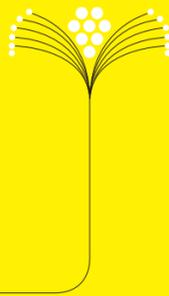


팔각산 팔봉에 허리 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좋다) 처녀총각 노니네.
 매봉산 맷돌바위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려 용치물길 알콩달콩 아이들 노니네.
 팔각산 팔봉 사이 구룡암 물줄기는 생명을 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천덕산 장군바위는 마을의 아버지. 섬섬옥수 옥계수는 마을의 사랑…….

-영덕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
 매방청춘가 중에서



영덕옛이야기 모음집 <동고동락> vol.2

동고동락에서 핀 꽃

2023 영덕생활 흥한참견
 영덕옛이야기모음집 <동고동락>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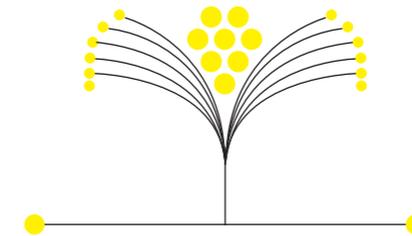


영덕 옛이야기와 어른들의 이야기

옛이야기 샘에서 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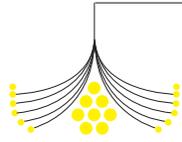






영덕 옛이야기와 어르신들의 이야기

옛이야기 샘에서 핀꽃



목차

1 병곡면 | 병곡1리 각리3리

동화 **웅감한 골목대장** ● 6
인터뷰 **병곡1리 각리3리** ● 15

2 창수면 | 미곡2리

동화 **꺼저리 잡자** ● 21
인터뷰 **미곡2리** ● 32

3 영해면 | 성내3리

동화 **할머니의 꽃가마** ● 39
인터뷰 **성내3리** ● 49

4 축산면 | 고곡1리

동화 **디딜방앗간에서 부르던 노래** ● 56
인터뷰 **고곡1리** ● 69

5 축산면 | 도곡2리

동화 **외로운 별, 태백산 호랑이** ● 74
인터뷰 **도곡2리** ● 84

6 지품면 | 낙평리

동화 **예배당 종소리** ● 89
인터뷰 **낙평리** ● 102

7 영덕읍 | 석리

동화 **별하늘을 품은 어머니** ● 110
인터뷰 **석리** ● 121

8 강구면 | 하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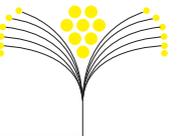
동화 **흰모래 해변-하저리 사람들** ● 129
인터뷰 **하저리** ● 135

9 달산면 | 주웅2리

동화 **가을별에 새겨지는 우정** ● 141
인터뷰 **주웅2리** ● 154

10 남정면 | 도천리

동화 **숲이 된 사람들** ● 160
인터뷰 **도천리** ● 167





표지면 | 표지 1 리 · 각 리 3 리

동화

용 감 한

골 목 대 장

글 신현량
그림 강구초등학교 조민율 성예나 이지율 최예은

인터뷰

병 곡 1 리

각 리 3 리

인터뷰어 강신기

용감한 골목대장

- 신현량

자래실 아이들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장난꾸러기였어요. 그중에서도 신이는 장난이 지나쳐 말썽쟁이로 소문났어요. 신이는 친구들에게 지기 싫어 더 심하게 장난쳤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혼이 나곤 했어요.

신이가 어떻게 장난을 쳤나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나눠 준 책을 찢어 딱지를 만들었어요. 신이가 만든 딱지로 친구들은 딱지치기를 했지요. 신 나게 놀다가 딱지를 뺏길 때면 친구 코를 주먹으로 날려 버렸어요.

키가 작고 몸이 마른 신이는 골목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막대를 휘두르는 의병대장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대장이 되려면 친구들보다 똑똑하고 용감해야 해요.

신이는 덩치 큰 친구들의 대장이 되기 위해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비석 치기를 할 때면 크고 두툼한 비석 닦은 돌이 필요하지요.

신이는 할아버지의 벼루를 마당에 던져 두 동강 내 버렸어요. 부서진 벼루를 돌처럼 다듬어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내 돌이 제일 크지?”

석이는 신나게 비석 치기를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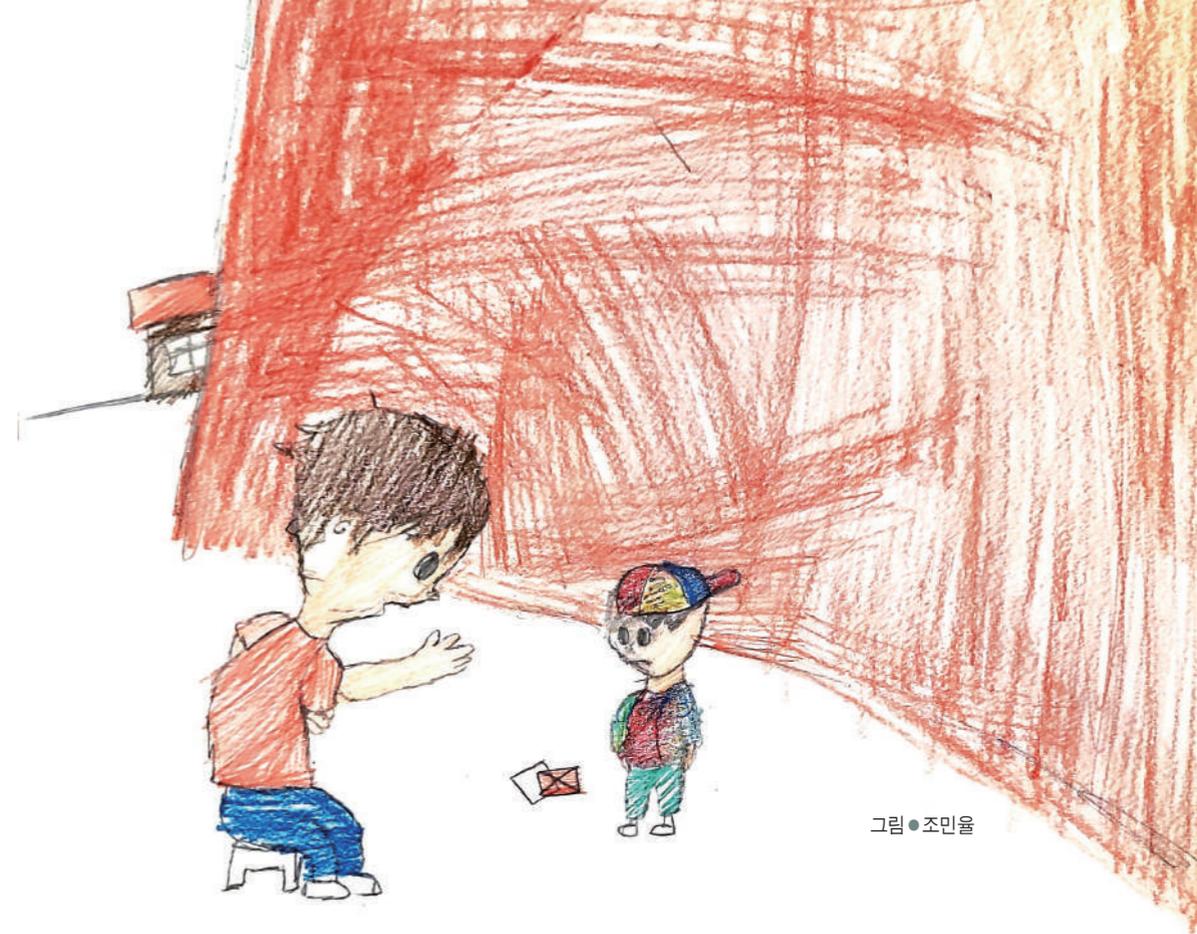


그림 ● 조민율

그뿐인가요?

쥐 잡는다고 천장을 뚫어 놓기도 하고 마당에서 흙 쪼아 먹는 닭벼슬을 잡아당기기도 했어요.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 꼭 신이를 두고 하는 말 같네.”

우물에 모인 아주머니들은 신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오늘은 어떤 못된 짓을 하려나?”

신이 흉보는 것을 들을 때면 엄마는 속이 상했어요. 마흔이 넘어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야단 한번 치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엄마는 신이를 믿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침 해가 뜰 때면 바다가 보이는 용머리 언덕에서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용왕님, 천지신명님 우리 신이 바르게 잘 자라서 큰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엄마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신이는 매일 신나게 놀았지요.
 신이의 마을은 자루 모양을 닮았다 하여 자래실로 불렸어요. 자래실은 바다쪽으로 소나무숲이 길게 펼쳐져 있고 마을 뒤로는 높고 깊은 산이 있었어요. 태백산 줄기에 자리 잡은 험준한 산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심심찮게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어요.
 호랑이는 소나무숲에서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우물을 한참 노려보다 돌아가기도 했어요. 호랑이가 나타날 때면 겁에 질린 동네 사람들은 집집마다 마당에 횃불을 켜놓고 인기척을 내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불을 무서워한대요.
 호랑이 털에 기름이 많아서 불이 쉽게 붙기 때문에 횃불을 켜놓으면 가까이 오지 못한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이와 친구들은 매일 신나는 모험으로 가득했어요. 바다에 자맥질해서 전복을 따오기도 하고 미역도 건져 올렸어요. 엄마들은 바위에 붙은 따개비를 따서 국을 끓였지요. 바다는 청태가 많았어요.
 짹짹 찢은 김치를 밥에 척 올려서 청태로 감싸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자래실은 농사도 잘되었어요. 해풍을 맞고 자란 농작물은 맛이 좋았어요.
 대부분 벼농사를 지었으나 고구마, 감자를 심기도 하고 참외, 수박, 옥수수도 있었어요. 호랑이만 안 나타나면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요.
 신이와 친구들은 바다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서리를 하기도 했어요. 참외 서리할 때가 제일 좋았지만 높은 원두막을 지어놓고 참외밭을 지키는 할아버지가 여간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참외밭 쪽에 얼썌거리기만 해도 지팡이를 흔들면 쫓아왔어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다니깐요.
 “요놈들, 혼구녕을 널테다.”

할아버지가 찢뚝거리며 쫓아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신이도 콩지 빠지듯 도망갔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온 동네에 찌렁찌렁 울려퍼졌어요.
 참외 서리를 포기한 신이는 시무룩해졌어요. 오늘 할 장난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는 신이었으니까요. 신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잘 익은 고구마밭을 발견했어요. 고구마밭은 밭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이었어요.
 신이는 엄마 고무신을 가져와 고구마밭에 몰래 숨어들었어요.
 신이는 엄마 고무신을 뒤집어 신고 밭으로 들어가 고구마를 자루에 가득 담아 나왔어요.
 들어가는 밭은 없고 나오는 밭만 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신이는 친구들을 불러모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봐라, 내 똑똑한 머리로 고구마 서리 성공했지.”
 신이는 으쓱하며 마른 소나무 가지에 불을 지피고 고구마를 넣었어요.
 고구마가 익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나자 저절로 군침이 꿀꺽 넘어갔어요.
 신이는 신나서 말했어요.
 “내가 제일 용감하지? 이제부터 내가 대장이다.”
 “뭐? 고구마쫄이야. 난 어제 할아버지가 지켜볼 때 참외 서리 했거든.”
 “나는 말이야. 음음. 저기 산에 혼자 올라가서 나무 한 짐 해왔다.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림 ● 성예나

영식이는 호랑이가 산다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짓말!”

“정말이야, 내가 제일 용감하니까 내가 대장이야.”

신이가 거짓말이라고 소리치자 영식이가 씩씩거리며 화를 냈어요.

신이와 친구들은 서로 골목 대장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용감하다고 으스스했어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영식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난 하늘을 붕 날아서 도랑에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났어. 하나도 안아팠어.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겠지.”

영식이가 가슴이 펴면서 자랑했어요.

“칫! 나는 바다를 헤엄쳐서 고래 뿔을 만지고 왔어.”

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신이는 영식이와 훈이에게 대장 자리를 뺏길 것 같아 조바심이 났어요. 신이는 자신이 제일 용감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지요.

“너희들은 나한테 비하면 그건 용기도 아니지. 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

“야, 그런 말 하지마.”

영식이와 훈이가 깜짝 놀라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주위를 살피더니 신이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가 제일 용감하지? 내가 대장이다.”

신이가 이겼다는 듯이 신나서 말하자 영식이와 훈이가 화를 냈어요.

“호랑이 얘기하면 진짜로 호랑이가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칫! 겁쟁이들. 호랑이가 나타나면 내가 때려잡는다고 했잖아.”

“신이, 너 정말 못말리는 말썽꾸러기야. 너랑 다신 안 놀아.”

화를 내던 훈이가 갑자기 소리를 낮추며 귀를 쫑긋했어요.

“췌, 조용히 해 봐. 무슨 소리 안들리니?”

“뭐야. 무섭게.”

영식이와 훈이는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치더니 슬금슬금 달아났어요. 신이는 친구들이 가버리자 모든 게 시들해졌어요. 기껏 고구마 서리를 해왔더니 대장 노릇 한번 못해보고 친구들이 가버린 거예요. 신이는 막대기로 타고 있는 장작불을 쭈석거렸어요. 재가 머리에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신이는 재미 삼아 검정솥으로 얼굴에 수염을 그렸어요. 불에 동그라미도 그려넣었어요. 신이의 얼굴이 검정 도깨비 같아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수수밭이 한 번 흔들리더니 스스속 소리가 났어요. 신이는 흘깃 보다가 호기롭게 혼잣말을 했어요.

“호랑이가 뭐가 무섭다고. 난 도깨비다.”

신이는 손가락으로 뿔을 만들어 도깨비 흉내를 냈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도 시들해졌어요. 남은 고구마를 수수밭에 숨기려고 자루에 담을 때였어요. 아기 호랑이가 수수밭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신이는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자빠졌어요.

도망가야 하는데 발이 얼어붙었는지 꼼짝할 수 없었어요. 호랑이는 넓적한 앞발을 내디디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용왕님, 천지신명님, 다시는 말썽 부리지 않을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신이의 눈물이 모아준 두 손에 또르륵 흘러내렸어요. 신이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신이는 엄마를 속상하게 한 일이 후회되었어요.

호랑이에게 잡혀가서 다시는 엄마를 못보게 될 것이 무서웠어요. 신이는 말썽쟁이였지만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기 호랑이가 다가오는



그림 • 이지을

기척이 느껴졌어요. 신이는 두 손을 꼭 모아 쥐며 눈을 감았어요.

“용왕님, 천지신명님.”

신이는 부드러운 털이 다리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어요. 아기 호랑이가 둥그

란 눈을 뜨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망울에 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신이는 엄마도 없이 혼자된 아기 호랑이가 가여웠어요.

“너도 혼자니?”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아기 호랑이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아기 호랑이는 방실한 엉덩이를 흔들며 뒷

발을 내밀었어요.

뒷발가락 사이에 큼직한 막대가 꽂혀 있었어요. 붉은 피가 엉켜서 말라붙어 있었어요. 신이는 날카롭게 꽂혀있는 막대를 빼려다가 고민했어요.

“아기 호랑이를 잡아가면 내가 대장이 될 수 있어.”

신이는 자루에 든 고구마를 버리고 아기 호랑이에게 씌웠어요.

아기 호랑이는 자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엎드렸어요. 무서웠나봐요. 신이는 아기 호랑이에게 미안했어요.

자루를 벌려주자 앞발을 신이의 손에 올려놓으며 뺨히 쳐다보았어요. 신이는 미안한 마음에 아기 호랑이를 안고 뒷발 사이에 박힌 막대를 빼주었지요. 다시 흐르기 시작한 피는 소매를 찢은 천으로 묶어 주었어요. 아기 호랑이는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기 호랑이야, 너도 혼자가 되니 무섭지? 어서 엄마한테 가렴.”

신이는 아쉬웠지만 아기 호랑이를 잡아둘 수 없었어요.

아기 호랑이를 잃어버린 어미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펼쩍펼쩍 뛰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어린아이는 방에 숨고 어른들은 지푸라기를 칭칭 말아서 횃불을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횃불을 휘두르며 쫓아내려고 하자 더 난동을 부렸어요. 어미 호랑이는 횃불을 피해 소나무숲으로 밀려나면서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어요.

커다란 입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마을에 찌렁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숲에서 횃불을 사이에 두고 어미 호랑이와 맞서서 버티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공격하면 소나무 숲을 모두 태울 생각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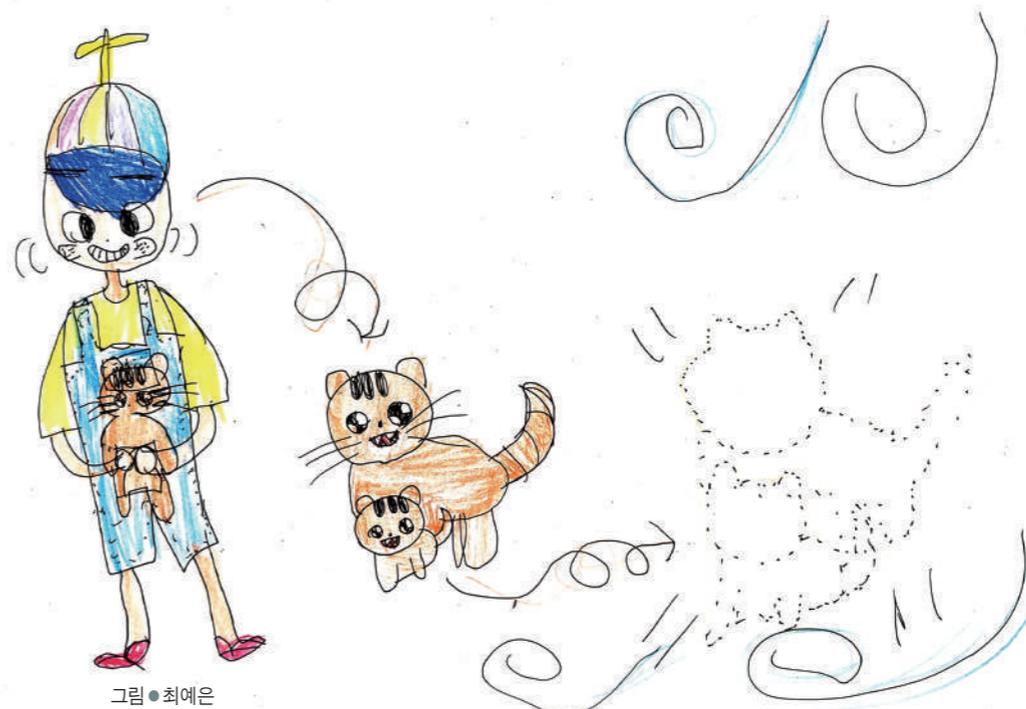


그림 • 최예은

“호랑아, 엄마 곁으로 가렴.”

신이가기 호랑이를 안고 소나무숲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지.”

아기 호랑이를 바닥에 내려놓자 질뚝거리며 어미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어미 호랑이는 아기 호랑이의 발을 살피더니 신이를 쳐다보았어요.

신이는 무서웠지만 용기 내어 어미 호랑이의 눈을 쏘아보았어요. 어미 호랑이는 신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아기 호랑이의 목을 잡은 채 수수밭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두어 번 꺽충 뛰어오르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우와. 신이가 호랑이를 물리쳤다.”

“신이는 용감한 골목대장이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있던 영식기와 훈이가 함성을 질렀어요.

“신이가 큰일 할 줄 알았다니까.”

마을 어른들도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신이는 마을 어른들 틈에서 엄마를 찾았어요. 머릿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엄마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어요.

“이제부터 말썽 안피우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이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효를 다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답니다.

● 이 이야기는 병곡면 병곡1리 어르신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병곡리는 지형이 자루 같다고 하여 자래실, 자루실이라고 불렸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마을에 나타났는데 동네 우물에서 나오기도 하고 수수밭에서 나오기도 했대요. 호랑이 털에 기름이 많아서 지푸라기로 햇볕을 만든 후에 휘두르면 급하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병곡1리·각리3리

인터뷰 Interview

마을장소 최기우 어르신 집, 병곡1리마을회관 인터뷰어 강신기

참 여 자

병곡1리 고정희, 권선영, 김금옥, 김성순, 김순조, 김연이, 김옥자, 김정례, 김춘옥, 김하숙, 김한기, 김해분, 리영희, 박영옥, 박옥희, 윤옥희, 이복이, 이상수, 이수자, 한순연, 황돌분, 황악이, 황옥연

각리3리 김영숙, 최기우

병곡1리 마을이야기

결혼

- 친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가마타고 시댁으로 갔다.
- 시집을 때 멀리서 오면 산고개 넘어와서 후배들이 결혼식 따라갔다 결혼식 끝나고 늦은 시간이면 자고 가기도 했다.
- 가족끼리라면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없는 집에 양자로 아이를 주기도 했다.
- 옛날엔 한동네에 3명이 같은 날 시집오기도 했다.

생활

- 소풍을 가면 엄마들이 다 따라왔었다. 저고리 치마, 한복 입고 오는 엄마들도 있었다.
- 운동회는 마을의 가장 큰 잔치여서 마을 앞에서 국밥을 팔기도 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다.
- 지금 생각하면 흠치는 거지만 당시에 서리가 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당시에 고구마 서



● 최기우, 김영숙(아내), 강신기

리를 한 적이 있는데, 땅이 진흙이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남으니까 고무신을 일부러 조금 큰 걸 거꾸로 신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들어가는 발만 있고 나오는 발이 없다고 어떻게 고구마를 서리해 갔냐며 난리가 났었다.

호랑이

- 결혼하기 전(70여년 전) 친구 두 명과 함께 고구마 서리를 하러 우거진 숲에 들어갔다. 한쪽은 고구마 밭, 한쪽은 수수밭이었는데 수수밭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왔다. 놀랍고 무서운 마음에 친구들과 들고 있는 횃불을 휘저어서 위협했지만, 호랑이는 소나무 많은 쪽에서 계속 안 가고 서서 울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수수밭에서 호랑이의 새끼가 나왔다. 새끼가 나오니까 호랑이가 조용히 새끼를 데리고 사라졌다.
- 동네 우물 쪽에서도 호랑이가 나온 적 있다.

- 지푸라기를 말아서 횃불을 휘두르면 호랑이가 다가오지 못했다. 호랑이 털에 기름이 많아서 불이 붙으면 죽기 때문인데 호랑이가 불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이야기

국가유공자 최기우 - 각리3리

- 2023년 현재 만 75세, 부산 출신이다. 영덕에 온지 25년이 됐다.
- 현재 영해면 복지관과 병곡면 마을회관에 색소폰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 육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남 파병 와서 월남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포병으로 근무했을 때, 105ml는 덜한데 155ml 포는 소리가 정말 컸다. 요즘에는 보호차원에서 귀마개도 끼고 하지만 그때 그런 게 없었다. 밤새도록 포로 사격을 하니 달팽이관이 손상되었다. 당시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흔적이 있으면 국가 상이 신청이 쉬운데 하지 못했다. 지금은 노화가 있다 보니 이제 증명하기가 힘들어 일반 병원에서 4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 아들한테 이제 조용히 살 거라고 하니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듣고 65세에 영남사이버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활동 중이다.
- 영덕에 와서 평생 학습 관련해서 일을 해보려니까 마땅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색소폰, 마술, 놀이 등 4~5명이 함께 일주일에 두 번 교육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 색소폰은 나이 70세에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하여 지금도 불고 있다.
- 같은 연배 앞에서 공연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같이 늙어가는 입장일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인다. 말로는 표현 안 되는 느낌이 있다. 오히려 비슷한 연배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들

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부끄러워서 잘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앞으로 음악도 연주해 주고, 세무 상식, 법률 상식 같은 꼭 필요한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팀을 만들어 함께 활동하고 싶다.

- 어르신들이 평생을 일만 해왔기 때문에 노는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박수도 안 치던 분들이 이제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게 됐다. 이렇게 노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미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김옥자 어르신 - 병곡1리

임신했을 때 진통이 심해 밤새 진통을 겪다가 아침 첫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큰 집으로 갔다. 가는 내내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때 이를 하도 갈아서 지금까지 아프다.



차에서 내려 큰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나올 거 같아서 힘들어 하고 있으니 머리에 소쿠리를 이고 시장에 물건 팔러가던 할머니가 보시더니 자신의 짐을 친구에게 맡기고 도와줬다.

그렇게 추운 12월, 텅빈 논에서 애를 낳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이불, 눈썹 칼, 실을 챙긴 덕분에 이불을 깔고, 아이를 낳고 칼로 탯줄을 자르고 실로 태를 묶었다. (옛날 할머니들은 다 태를 묶을 줄 알았다고 한다.)

그때 할머니의 말을 듣고 택시를 잡아 온 남편과 논에서 낳은 아기를 안고 큰집으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큰집을 갔더니 태를 빼내야 한다고 배에 힘을 주라고 해서 열심히 힘을 썼더니 태가 나왔다.

고향이 병곡인 인터뷰어 강신기 이야기 - 병곡1리

- 청태(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었다. 어릴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한짐 해 놓고 청태에 밥 올리고 김장김치 찢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다. 그렇게 나무를 가져다놓고 지금은 없어진 연못가서 스케이트 타고 놀았다.

- 처음 쿨피스가 나왔을 때 할머니가 전방(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가서 원피스 하나 사오라 그랬다. 그래서 “환매(할머니) 원피스는 옷 아닌교”했더니 원피스도 모르냐고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냐고 그러셨다.

- 아버지가 타고 온 택시에 치여 도랑에 떨어지는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 당시에 도랑이 다 시커멓기 때문에 일단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근처 집으로 데려 가서 아이를 씻기고 보니 본인의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셨다고 한다.



창수면 미곡 2리

동화

꺼저리 잡자

글 이영숙
그림 지품초등학교 갈영찬 이수민 최승희

인터뷰

미곡 2리

인터뷰어 원충희, 최병인

꺼저리 잡자

- 이영숙

금이 어머니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일어났다.
 “금이 아버지요. 인자 일납시다. 쪼매 있으모 해 뚝니다.”
 금이 어머니가 금이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다.
 오늘은 정월대보름날이라 정월대보름 달이 흰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¹⁾ 가장 먼저 밥을 해 먹는 사람이 그해 농사를 제일 먼저 마무리 한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을 믿고 지키고 있었다.



1)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

그림 ● 갈영찬

비록 농사가 많지 않은 밭농사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고 인심²⁾이 좋았다.

“참 오늘 보름이제. 내가 깜빡 했네 허허.”

금이 아버지는 정월대보름이라는 걸 잊은 것이 무안³⁾했는지 헛웃음을 웃었다. 어제 참봉 어른네 집일을 좀 거들어 주었더니 너무 피곤하여 집에 오자마자 잠들었다.

“아이고 참. 이자빨 걸 이자뿌소. 참 기가 막히네.”

금이 어머니도 어제 금이 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잘 알기에 먼저 일어났다.

“어서 불 때 주소. 나는 어제 오곡을 가마솥⁴⁾에 미리 앉혀 놔심디. 물만 부모 됩니더.”

“알것소. 참, 아이들 찾을 것 다 해 놔소?”

“야, 걱정 말고 빨리 나오소.”

금이 아버지는 불 땀 준비를 다 하고 가마솥 뚜껑을 한 번 열어 보았다.

‘허허 잘 해 놔네. 불만 잘 때모 되겠네.’

혼잣말을 하며 금이 어머니의 일머리를 인정했다.

영덕 창수면 미곡리는 주변의 경관⁵⁾이 뛰어나 평산 신씨 집안인 죽로 신항⁶⁾이라는 분이 붙인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등운산 아래 위치하였다 하여 미실, 미곡이라고도 불렀다. 마을 이름대로 사람들 심성이 곱고 예의 바르며 옛날에는 벼슬 하는 사람도 많았다. 등운산 자락 따라 이어진 산 아래 마을이라 해가 늦게 뜨지만 밭농사는 잘 되는 곳이다.

2) 인심: 남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알아주고 도와주는 마음 3) 무안: 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낯이 없음 4) 가마솥: 크고 우묵한 솥 5) 경관: 아름다운 경치 6) 신항: 생몰년 미상. 한말의 의병. 충청북도 청주 출신 7) 누부: 누나의 경상도 사투리 8) 연년생: 해마다 아이를 낳음. 또는 그런 아이 9) 부산하게: 서둘러서 수선하고 비빔

금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어제 준비해 둔 나물 반찬들을 다시 손질 하면서 수복이 담는다. 오래만에 자식들과 풍성한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 흐뭇했다.

다른 집보다 더 빨리 아침을 먹어야 하므로 바깥 가마솥에 밥이 잘 되어 가는지 살피러 갔다.

“금이 아버지요. 밥 다 됐는지 함 보고요. 인자 뜸 들거로 불 그만 때소.”

“알것소. 나도 그랄라 카고 있소.”

가마솥 밥을 확인한 금이 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요란하였다.

“꺼저리 잡자. 꺼저리 잡자. 어데 있노 안 보인다.”

“누부⁷⁾야. 뭇 개 찾았노.”

“안 갈채 준다. 빨리 찾거나 해라.”

“누부야 마이 찾오모 내 좀 도가.”

“다른 소리 할 시간에 빨리 찾아 보라.”

“딱따구 줍자. 딱따구 줍자.”

“일로는 오지 마라. 내 자리다.”

연년생⁸⁾으로 태어난 사형제가 방안을 부산하게⁹⁾ 돌아다니며 꺼저리 잡자 하면서 붉은 콩을 찾고 있다.

‘꺼저리 잡기’란 미곡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지는 정월대보름날 하는 놀이다.

정월 대보름 되기 전날에, 그러니까 열 나흘 날 밤, 꼬투리는 희고 콩 색깔은 붉으며 껍질이 얇은 불콩을 볶아서 장판 아래 ‘꺼저리 놀자’ 하

그림 ● 최승희



면서 부모가 숨겨두면 아이들이 정월 대보름날 일찍 일어나 먼저 그 불콩을 찾는 놀이다.

그 불콩을 찾을 때는 ‘꺼저리 줍자’ 또는 ‘딱따구 줍자’ 하면서 찾아서 먹으면 일 년 동안 몸에 부스럼¹⁰⁾이 안 난다고 했다.

방안에서 사형제가 서로 많이 찾으려고 떠드는 소리가 금이 어머니는 너무 감사했다.

금이 어머니는 몇 해 전 여름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 전해에 가뭄이 들어 밭농사를 망쳐 보릿고개¹¹⁾도 심하게 겪었고 가을걷이가 너무 빈약¹²⁾하여 채소와 들깨 수확량¹³⁾이 형편이 없었다.

특히 다른 해는 그나마 잘 되는 콩도 콩각지¹⁴⁾가 모두 말라 콩 타작을 하고 나니 겨우 다섯 되도 되지 않았다. 금이 할머니는 메주도 못 담그게 되었다고 걱정 하셨다. 집집마다 흉년¹⁵⁾으로 어려워 이웃 간에 예전처럼 서로 인심 나누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해 정월대보름날 꺼저리 잡을 콩을 준비 할 수가 없었다.

“금이 에미야. 올해는 콩이 없제?”

“예, 어무이요. 메주도 제우¹⁶⁾ 열 덩어리밖에 못 쪼니더.”

“글체. 우째야 되것노.”

“글니더. 이번 보름날은 우짜고 싶니더.”

“담 영해장에 가모 보름 날 아이들 멕일 거 다른 거 찾아보라고 애비한테 말해 나라.”

^{10)부스럼}: 피부에 나는 종기의 총칭 ^{11)보릿고개}: 지날날, 묵은 곡식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농촌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음력 4-5월을 이르던 말 ^{12)빈약}: 보잘것 없음 ^{13)수확}: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농작물 ^{14)콩각지}: 콩을 싸고 있는 껍질 ^{15)흉년}: 수해·풍해·냉해·총해 따위로 농작물이 잘되지 않은 해 ^{16)제우}: 겨우의 경상도 사투리 ^{17)신신당부}: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곡하게 하는 부탁 ^{18)조청}: 물게 고은 엿 ^{19)엿기름}: 보리에 물을 부어 썩이 튼 다음에 말린 것 《엿과 식혜를 만드는 데 씀》 ^{20)부사가}: ‘부수어’의 경상도 사투리 ^{21)가리}: ‘가루’의 경상도 사투리

“예, 알았니더.”

흉년으로 겨울나기가 어렵지만 자식들을 위해 꺼저리 잡기 할 콩을 금이 아버지에게 영해장에 가서 구해 오라고 신신당부¹⁷⁾했다. 온 나라가 겪은 흉년이라 영해장 곡물 가격이 너무 비싸고 품질도 좋지 않았다. 콩을 구하지 못하고 온 금이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해 정월대보름 ‘꺼저리 잡기’는 하지 못하고 보리쌀을 조청¹⁸⁾에 버무린 강정을 먹었다. 보리쌀도 귀하고 조청 만드는 엿기름¹⁹⁾도 귀해서 강정도 겨우 준비 했다. 조청이 굳자 강정은 아주 딱딱했다. 금이 할머니는 연세가 칠십 셋이라 이가 약해서 강정을 제대로 깨물어 잡수실 수가 없었다.

“어무이요. 지가 부사²⁰⁾가 가리²¹⁾로 만들어 드릴까요?”

금이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금이 아버지는 강정을 가루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 했다.

“개안타. 내사 안 무도 된다. 아이들 잘 멕이라.”

꺼저리 잡기를 하지 않아서 인지 아이들도 강정을 잘 먹지 않았다.

“야들아 할무이가 너거 멕인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며 만든 긴데.... 더 무라.”

금이 어머니는 손자들 건강을 걱정하시는 시어머니께 미안해서 아이들을 다 그쳤다.

“예 나중에 묵겠심더. 할머니 고맙습니더.”

만인인 금이가 할머니께 각듯이 인사하고는 강정을 집었다.

“엄마, 우리 식이네 찰밥 얻으러 갔다 오께.”

“그래 갔다 온나. 너무 뛰 다니지 마래이. 그라고 정규 잘 챙기래이.”

정월대보름날 한 찰밥, 기장밥, 수수밥, 차조밥 등 오곡밥은 동네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의미로 서로 나누어 먹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얻은 오곡밥은 갈무리

²²⁾를 잘 하여 며칠씩 두고 먹었다.

흥년 든 다음해라 나물죽으로 봄을 건넜다. 우리나라 비극적 역사인 6.25 전쟁을 겪어 나라 전체가 더 힘들고 가난했다. 전쟁이 끝난 지 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 모든 생활이 전쟁 전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월이 되어 산에 나물들이 많아질 무렵, 금이 할머니 몸에 부스럼이 나기 시작 했다. 금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옴는다고 골방에 혼자 계셨다. 금이 어머니랑 금이 아버지가 교대로 부스럼에 좋다는 약초를 으깨어 발라 드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유월이 되자 마을 여기저기서 부스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금이 할머니는 부스럼으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연이어 마을 어른 몇 분이 돌아가셨다.

금이 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하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몇 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엄마, 내가 미음²³⁾ 끓이 왔니더. 일나가 좀 잡수이소.”

말이인 금이가 미음을 끓여 드려도 금이 어머니는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보시게. 아이들을 생각해가 인자 좀 묵어 보소.”

금이 아버지도 아내가 자리보전²⁴⁾하고 누워 있으니 어쩔 줄 몰랐다. 금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운을 못 차리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막내 정규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기운이 없나. 내가 머 해 주꼬.”

“정규야.”

금이 어머니는 막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22)갈무리}: 잘 행해서 간수함 ^{23)미음}: 쌀이나 좁쌀을 오래 끓여 체에 발인 음식(병자어린아이들이 먹음) ^{24)자리보전}: 병석에 몸져누움

“엄마, 내가 인자 말 더 잘 들으께.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하께.”

“아이구, 정규야.”

금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막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정규가 열이 오르면서 밤새 앓기 시작했다. 온 식구가 놀라서 정규 곁을 지키고 간호 하느라 밤을 새웠다. 금이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자기 때문에 정규까지 아픈 거라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정규를 돌보았다.

“아이고, 정규야. 엄마가 잘못 했데이. 아프지 마라. 아프모 안 된데이.”

잠시도 쉬지 않고 물수건으로 열이 심한 정규 몸을 닦아 주었다.

금이 어머니는 막내까지 앓을까봐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간절히 빌었다.

‘어무이요. 우리 정규 살려 주이소. 정규 빨리 낫게 해 주이소.’

정규는 삼일 동안 몹시 앓더니 차츰 회복²⁵⁾ 되었다.

그 이후 금이네는 정월대보름 날에는 ‘꺼저리 잡기’ 콩을 철저히 준비했다.

“야들아, 인자 밥 묵을 준비해라. 꺼저리 고만 잡아라.”

금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자 어이들은 잡은 콩을 보여 주었다.

“엄마, 내가 쥬 마이 잡았다. 히히.”

둘째 성규가 자랑하였다.

“오냐. 밥부터 묵고 나중에 함 보자.”

금이 아버지가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시자 식구들은 상에 둘러앉았다.

금이 아버지는 사형제가 든든하였다.

금이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²⁶⁾ 때 의병 활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두 형님을 가슴

^{25)회복}: 전 상태로 돌아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 ^{26)일제강점기}: 1910년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 1945년 광복할 때까지의 시기



그림 • 이수민

에 묻고 살아 왔다. 그 당시 두 형님은 스물을 갓 넘긴 나이였다. 큰 형님의 존엄한 뜻을 둘째 형님도 따른다며 함께 의병이 되어 독립 운동에 앞장 선 분들이었다. 두 형님이 의병 활동 하시다 돌아가시자 금이 할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금이 아버지는 자주 사형제들에게 두 형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다. 나라를 사

27) 자금심: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 28) 살림 밀천: 살림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주 따위. 또는 그런 사람

랑하고 아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민족 자금심²⁷⁾을 심어 주었다.

오랜만에 풍성한 아침을 먹는 자식을 바라보니 금이 어머니는 흐뭇했다.

“인자 밥 다 못나? 그라모 누가 꺼저리 콩 젤 마이 잡았는가 함 보자.”

“자 봐라. 내가 젤 마이 잡았지.”

둘째 성규가 주머니에서 ‘꺼저리 잡기’ 콩을 꺼냈다. 여섯 개다.

“킷, 내가 더 많구만.”

말이 금이가 일곱 개를 내보였다.

“아이구 한 개 차이네. 머. 개안타.”

“누부야 내가 아까 한 개만 돌려케도…”

세 개를 내보이는 막내 정규가 금이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셋째 명규는 시무룩하게 아무 말이 없었다.

“명규야, 너는 몇 개고?”

“나는 몇 개 안 된다. 어무이는 몇 개 숨가 났더노?”

“너거 마이 묵고 더 건강하라고 마이 숨가 났지.”

“근데 나는 와 네 개뿐이고. 몬 찾겠더라.”

“아이고 너거들 다 몬 찾았네. 밥상 치우고 나모 더 찾아 봐라.”

금이 아버지는 사형제들의 말을 들으며 빙긋이 미소 지었다.

사형제 모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므로 반듯하게 키우려고 아이들 장래를 위한 교육 계획을 금이 어머니랑 찬찬히 준비하고 있었다. 금이 어머니가 딸을 낳자 첫 딸은 살림 밀천²⁸⁾이라고 더 좋아하시던 시어머니가 손녀 이름을 보금이라고 지어 주셨다. 금이 할머니는 첫 손녀를 무척 아끼시며 귀한 만큼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을 철저히 가르쳤다. 금이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라 반듯한 여자 아이로 자라서 말이 뭉을 단단히 했다.

“그라도 우선 찾은 거 목자.”

“아까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 드렸지만 지금 인사 한 번 더 하자이.”

“예, 아버지가 하이소.”

말이 금이가 다리를 고쳐 앉으며 다소곳이²⁹⁾ 두 손을 모았다.

“그래. 두 손 모으고.”

아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금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부지 어무이 우리 아아들이 인사 드립니다. 이 만큼 우리 집이 화목³⁰⁾한 거는 다 두 분 덕입니다.”

금이 아버지가 부모 생각에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어무이요. 몇 해 전에 우리 정규 살리 준 거, 고맙심더. 지를 낮게 해 준 것도 어 무이지예. 고맙심더.”

금이 어머니도 목이 메는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우리 오늘 꺼저리 많이 잡았심더. 우리 꼭꼭 씹어 묵고 더 건강하께예.”

말이 금이가 센스 있게 덧붙였다.

사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꺼저리 잡기 콩을 꼭꼭 씹어 먹었다.

“부스럼은 썩 물렸거라!”

명규가 두 손을 휘저으며 크게 말하자 온 식구가 크게 웃었다.

“맞다. 부스럼은 썩 물러가라!”

“하하하하.”

“오늘 꺼저리 잡은 콩은 더 맛있네.”

29) 다소곳이: 무릎에 두 손을 얹고 반듯하게 30) 화목: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글네. 하하하하.”

‘꺼저리 잡자’라는 정월대보름 전통 풍습을 따라 했던 시절을 들려주시던 마을 회관 어르신 눈빛을 잊을 수 없다.

- 이 이야기는 창수면 미국 2리 마을 회관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동화입니다. 미국리에서는 정월대보름 전날 부모님이 몰래 장판 아래 감추어 둔 볶은 콩을 어린이들이 정월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찾아서 먹는 전통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콩을 먹으면 그해 여름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리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전통 풍습과 유적지를 잘 지켜 영덕군의 모범 마을이며 우리의 민족정신이 마을 곳곳에 변함없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 도덕적 태도, 지역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민족 자긍심을 키우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Interview

미곡2리

마을장소 미곡2리 마을회관 인터뷰어 원충희, 최병인

참 여 자 권달순, 권상규, 권상수, 권화자, 김옥현, 김충환, 김효강, 남옥희, 박성열, 박화숙, 신분교, 신영목, 신호규, 안순옥, 윤분덕, 윤후남, 이순남, 이장님, 조필란, 조후명, 진효규, 최순희, 최춘화, 황분희, 황순남



미곡2리 마을이야기

마을 이름 뜻

- 죽로 신할 선생이 마을 주변의 산세가 아름다운 동네라 하여 ‘미실’이라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 미곡2리는 해가 빨리 진다고 ‘음지마(음지 마을)’이라고 불렀다. 미곡1리는 ‘양지마(양지 마을)’이라고 불렀다.

보름 풍습

- 동민의 안녕과 풍년을 위해 정월 대보름 자정에 제사를 지냈다.
- 나물, 채소, 콩나물국, 오곡잡곡 등을 먹었다.
- 찰밥, 귀장밥, 수수밥, 차주밥 등을 해서 먹었다.
- 보름날 새벽에 네 개의 솔에 밥을 한다. 그 밥을 도장에 넣으면 밥이 안 상한다. 그렇게 보름에 했던 밥을 같은 성씨 집안끼리 하루하루 집을 돌아가면서 밥을 먹으러 다녔다.
- 저녁에 밥이랑 나물을 물이 잘 빠지는 어림(채반)에 놔두고 개에게 먹인다. 밥을 먼저 먹

- 으면 풍년,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흥년이라고 했다.
- 열나흘날 아침에 일찍 밥을 먹는다. 마을 사람 중 가장 일찍 밥을 해 먹으면 그 해 농사를 가장 일찍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저녁엔 칼국수를 해 먹었다.
- ‘불콩’이라 하여 꼬투리는 희고 열매는 붉으며 껍질이 얇은 콩이 있다. 보름 전날 그 콩을 볶아서 방의 네 구석에 장판 밑에 놓아두었다. 형제가 많으니 서로 많이 주우려고 일찍 일어나곤 했다. 콩을 놓을 때는 “꺼저리 잡자” 하면서 놓았고, 주울 때는 “꺼저리 줘자, 딱 따구 줘자” 하면서 주웠다. 그 콩을 먹으면 1년 동안 몸에 부스러기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 귀밤이술 : 열나흘날 당나무 제사 지내면서 한 잔씩 나눠 먹었고, 그것을 먹으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였다.
- 동신 제사를 지낸 떡을 약떡이라고 하는데, 제사 끝나고 약떡 조금씩 빗어서 나눠 먹었다. 일이 있어서 못 나온 어르신 집의 이웃집에 줘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떡을 먹으면 일 년 내내 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 있었다.

- 보름 낮에 소한테 소죽(밥, 나물, 국 등)을 줬다. 고생하는 소한테 밥을 먹임으로써 그 해 농사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비는 뜻이 있었다.

개인이야기

이순남 어르신(89세)과 시아버지 이야기

- 울진군 온정면 금천에서 왔다고 금천댁이라고 불린다.
- 19살에 시집을 와서 외동 며느리로 15년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시아버지를 모셔 효부상을 받았다.
- 남편이 외동이라고 한이 되어 슬하에는 8남매 낳았다.

-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니 더덕 다듬는 냄새를 맡고 저녁 반찬에 더덕 반찬을 너희들끼리 다 먹느냐고 불평하셨다. 그리고 술을 좋아해서 영덕장에 가서 자주 사오라 시켰다. 손부가 술을 전해주니 “고맙소”라고 하면서 예쁘고 사람 좋다고 그랬다. 그래서 보이냐고 예쁜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깐 “그것도 안보이면 우알라고”라고 했다.
- 장마철에 불이 잘 안 피워져서 밥을 못 짓고 있었는데 성격 급한 시아버지가 빨리 아침 식사를 안 챙겨 준다고 가마솥 뚜껑을 깨뜨렸다. 며느리(이순남)가 울자 나무도 울지 않는데 내가 성질을 못 이겨 미안하다 사과하셨다.
- 손자(이순남 어르신 아들) 공부시킨다고 논 서마지기 팔았더니 농사 지어서 애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고 화를 내셨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죽어야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셨다. 그래서 며느리인 이순남 어르신이 “나 좀 보소”하니깐 “못난 며느리 보면 뭐해 더 못났지”라고 했다. 못나도 보라 하며 밥을 먹여 드리려고 손가락을 넣고 밥을 밀어 넣었다. 그랬더니 차마 며느리 손가락은 못 깨물고 밥을 꿀떡 삼켰다.

할아버지(시아버지)와 손자(아들) 일화

- 겨울에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손자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서 매미를 쫓으려 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놔두라고, “매미도 못 쫓는 게 뭘 하겠노”하면서 논 팔아 먹고 별나게 공부한다고 화를 냈다. 나중에도 술만 먹으면 별나게 공부했다고 손자랑 할아버지랑 싸웠다.
-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똥이 안 나와서 손자보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손자가 “할배가 아인가 보다”하며 놀렸다.
- 군대 휴가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손자가 술 한잔 먹으면서 화장실로 가서 울었다. 맨날 싸우더니 왜 우냐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우짜노” 했다.



황순남 어른신

- 울진군 온정면에서 21살에 시집을 왔다.
-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이면 굉장한 거였다.
- 시동생 학교 다닐 때 13년 동안 베포(도시락) 싸 주었다.
- 어른신들은 아직 일본 단어들을 많이 쓰셨다.
- 시계도 없던 시절에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도시락을 싸 주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밥을 하나는 소리를 들었다.
- 옛날에 전화도 없을 때 남편이 20일 만에 편지가 오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읽었다.
- 서울 부자 집에 갔더니 비서가 다른 사람 신발을 다 닦아주었고, 시아버지는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 시장 다녀올 때 보따리 들고 오면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다.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형님 이야기(조필난 어른신)

- 당시 형님과 이종 간이었던 올케가 중매 서서 결혼했다.
- 오빠가 동생인 조필난 어른신이 “일도 못하는데 종가집에 시집보낼 수 없다”라며 말렸지만, 시댁쪽에서 아이만 낳아주면 된다는 답이 와서 결혼하게 되었다.
- 결혼해 와 보니 형님의 남편인 시숙이 일찍 돌아가셔서 슬하에 자식이 없어 종가집 종부가 후손이 없는 상황이었다.
- 시동생인 남편을 본인 자식같이 키웠다.
- 결혼해 왔더니 아이만 낳아주면 된다고 했다. 밤마다 방문 밖에 간식도 차려 주고 8년간 부엌일을 하지 않고 바느질만 할 수 있게 해줬다.
- 조필난 어른신 남편이 죽었을 때 옛날에는 손아래가 죽으면 손위는 조문하지 않는 풍습

이 있어 형님이 찾아오지 못하고 조필난 어른신을 위로하는 편지를 써줬다.

결혼 전 추억 이야기(조후맹 어른신)

- 시집오기 전 남, 여 13명이 마을의 또래 친구들과 윗놀이하고 노래 부르고 놀았던 기억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다.
- 함께 놀던 친구끼리 밥을 해 먹었는데, 집집이 돌아가면서 노는 방식을 ‘돌림상’이라고 했다.
- 여행 비용 없이 친척집에서 먹고 재워주고 남, 여 같은 성씨라서 연애하는 감정도 없이 잘 놀았다.
- 결혼 후 모임을 만들어 매년 8월에 모여 놀았으나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친정 쪽에도 친척까지 다 돌아가셔서 고향에 산소만 다니고 있다.

이산택 이야기(신분교 어른신)

- 이래실에서 시집와서 다들 이산택이라 부른다.
- 지금 제일 즐겁고 기쁜 날은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고 제일 슬픈 날이 자녀들이 돌아가는 날 떠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이다.
- 지금은 나이 들어 농사를 못 지으니까 팔아서 7남매에게 나눠줬다.



경로당 | 정내 3리

동화

할머니의 꽃가마

글 박승렬
그림 축산향초등학교 유정수, 전영은, 진서연

인터뷰

성내 3리

인터뷰어 권효진, 이옥수, 정봉연

할머니의 꽃가마

- 박승렬

“할머니, 오늘은 경로당¹⁾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손녀 영희는 늘 그랬듯이 경로당을 다녀오시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달라고 조릅니다.

“하하, 이젠 내놓고 줄라대는구나!”

할머니는 응석받이 손녀에게 이웃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희야, 아랫마을 명자네 할머니를 알지?”



그림 ● 진서연

1) 경로당 : 마을 노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게 마련한 집이나 방

“예, 명자가 제 친구이니까 할머니를 잘 알아요. 그런데요?”

“명자 할머니가 이곳에 시집을 때 참 예뻐어. 그런데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시집을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재물이 없었다고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다는구나.”

명자 할머니께서는 조용한 성품이라 평소에는 말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지나온 시집살이가 생각난다면서 물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²⁾된 후 몇 년이 지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많았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마을에서는 살림살이에 허덕이다보니 나라 안의 형편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 명자 할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 형편이라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명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아랫마을에 착한 신랑감이 있다고 중매가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아직 어려서 시집 안 보낸다고 했다. 그리 알거라”

명자 할머니의 나이가 열여덟 살이었습니다. 부엌일을 돕고 있었는데 엄마의 뜬금없는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 혼인 이야기야?”

백성들은 어려운 형편에 제때 끼니를 이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집안 형편에 입 하나라도 덜려고 그러는가보다 싶었지만 금이야 옥이야 키워온 딸을 곁에 두고픈 엄마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엄마, 몸도 편치 않는데 혼자 동생들을 키울 수 있겠어?”

명자 할머니는 남의 집으로 시집가면 어떻게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엄마와 동생들이 걱정되었습니다.

^{2) 해방}: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다시 찾은 날 ^{3) 신행}: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혼담을 주고받던 봄날, 신랑 댁에서 청혼 기별이 왔습니다. 혼인을 결정한 신부 측에서 날짜를 정하여 신랑 댁에 보냈습니다. 혼인 전날에 신랑 측에서 옷감과 편지가 든 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가와 이웃들의 축복을 받으며 신부 집에서 혼인식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지나 신랑 댁에서 정해준 좋은 날에 집을 떠나 신행³⁾길에 올랐습니다.

언젠가 이웃 언니가 타고 가던 꽃가마를 보고 ‘나도 저렇게 예쁜 꽃가마를 탈 날이 올 거야.’ 하던 그 꽃가마를 타고 집을 나서기 전에 언제 올지 기약 없는 길을 떠나면서 엄마와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었습니다. 예쁜 볼에 달같이 그



려놓은 연지가 눈물로 지워졌습니다.

초가집 돌담길을 지나 논두렁길 지날 즈음 시원한 바람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에 날아든 나비랑 봄바람에 살랑대는 민들레꽃이랑 밭을 갈고 있는 엄마 소와 송아지의 정겨운 울음소리랑 아지랑이 봄벌에 출렁이는 푸른 숲길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친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가마꾼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신랑 댁이 가까워졌음을 알아차린 신부는 옷매무새를 갖추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내리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예쁜 신부가 왔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신랑의 도움으로 낫선 곳에 내린 신부는 첫날을 친절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시집오기 전 엄마가 미리 가르쳐 준 부엌일과 음식 만들기, 어른 모시는 법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붙임성 있게 잘 지냈습니다. 집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 혼자 버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자칫 일과를 못 맞추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며늘아가야, 이런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 어떡하니? 친절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조그만 일에도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시며 나무라십니다.

“예, 어머님 앞으로 잘 할게요.”

어찌할 줄 몰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색시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여보, 요즈음 제가 큰 잘못도 없는데 어머님의 꾸지람이 많아졌어요.”

4) 발품: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하여 직접 걸어다니는 수고를 들인다는 뜻

신랑은 힘든 시집살이로 쇠약해진 예쁜 색시를 보듬어 줍니다.

“당신도 이제껏 잘 견디어 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 봅시다.”

시어머님의 잔소리와 꾸지람이 늘어나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절으로부터 가져올 재물이 없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더욱 화가 났던 것입니다.

시집을 때 친절 엄마가 건네준 건 수저 두벌과 옷 몇 벌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는 후로 힘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친절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가슴에 꼭 품고 지냈습니다. 모두 일손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면 서러운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는 신랑이 위로해 주었지만 시집살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를 가진 것 같아요. 없는 살림에 걱정이 앞서네요.”

혼인한 후 이래저래 시달리다보니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묵묵한 신랑이 곁으로, “응, 그래?” 하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색시의 운명인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닌 듯 대꾸했지만 그날 이후부터 색시를 위해 나들이 하면서 몰래 맛있는 것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달이 지날수록 태어날 아기와 산후 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웃마을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발품⁴⁾으로 받은 곡식을 머리에 이고 몇 십 리 길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아기를 가진 몸으로 조신하다보니 넉넉지 않은 시대 생활에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덜 마주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농사지은 고추를 팔려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기를 가진 몸보다 더 큰 고추자루를 버스에 올려놓고 얼른 탔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내양

이 귀찮은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큰 자루를 실으면 어떡해요? 손님 탈 자리가 없으니 가지고 내리세요!”

“오늘 중으로 먼 길을 갔다 와야 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원하며 부탁했지만 막무가내로 고추자루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스러져요, 아가씨!”

당황하여 입안에서만 중얼거리다 보니 이미 고추자루는 밖으로 내동댕이쳐져 있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해 고추자루를 붙들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갑자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신랑도 모두 미워졌습니다. 그런다고 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무거운 고추자루를 머리에 이고 몇 십 리길을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정신없이 이집 저집 다니며 고추를 팔았습니다.

어둑어둑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걷는 중에 버스 안내양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밋다고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어두운 고갯길을 울먹이면서 가던 중 나뭇잎이 획 날렸는데 짐승인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갯길 모퉁이에 들어서면 도둑들이 나타나 해코지를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고추와 힘들게 팔아 모은 돈을 빼앗길까봐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척집에 잠깐 들러 숨을 돌렸습니다. 온 종일 굶었지만 차마 배고프다는 말은 못하고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시집살이가 몹시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아기를 가진 몸으로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친척 아주머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이 위험하니 시댁까지 데려다 주마.”

아주머님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서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밤 늦도록 기다리고

있을 시댁 가족들이 나무랄까봐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아버님의 헛기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를 가진 몸으로 그 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걸어 왔느냐?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가 쉬거라.”

시아버님의 말씀에 고마움과 서러움에 북받쳐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팔고 남은 고추와 돈을 무사히 가져왔다는 기쁨으로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없는 살림에 제사는 자주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일이 생생합니다.

어느 날,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며느라기의 심성을 알고 난 시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으로 며느라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라기야, 그간의 서운한 감정은 잊거라. 이 시어미가 잘못 했으니…”

하시며 그동안 상처받은 며느라기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라기는 쌓였던 서운함이 풀리면서 온 몸이 눈물에 젖도록 평평 울었습니다.

“여보, 묵묵하게 지내 온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소. 이제 어머님도 당신의 마음을 아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지내시오.”

항상 곁에서 힘을 주는 신랑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정성 덕분에 색시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가 그렇게 예뻐 보인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며느라기야, 고맙다. 애썼으니 몸조리 잘 하거라.”

보약을 지어 오신 시어머니는 끓어오르는 약탕 앞에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소식을 받은 친정 엄마도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할머니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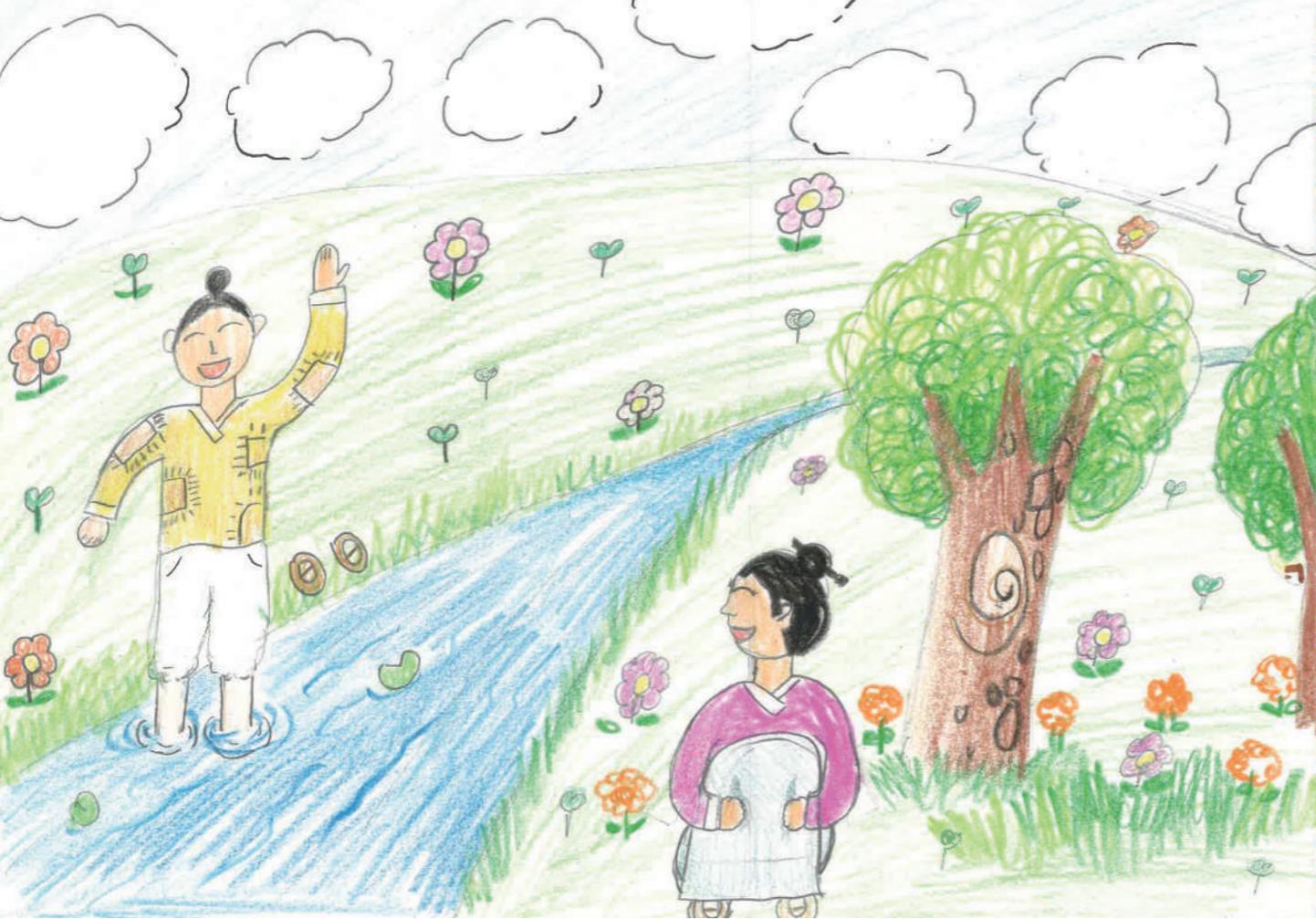


그림 ● 전영은

“영희야, 앞집 ‘막순’이네 할머니를 잘 알지? 그 할머니는 결혼 후 딸만 넷을 낳고 부터 남편이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자 할머니는 시댁에서 쫓겨나 힘든 세월을 보냈단다. 다행히 친척 분의 도움으로 생활이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다.”

“할머니! 딸을 낳았다고 왜 쫓겨나요?”

영희의 갑작스런 반응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구분 없이 잘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대를 이어주는 일이야.”

요즘 세상과 다르지만 그때에는 아들을 낳거나 낳지 못하면 시집살이에 영향을 주었다 합니다. 영희는 할머니가 ‘아들’에 힘을 주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넓은 거랑 가에 밭을 담그고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제법 자란 아들이 엄마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민들레꽃을 가리킵니다. 꽃가마를 타고 친정을 떠나올 때 보았던 민들레꽃과 같았습니다. 엄마는 얼른 다가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같이 예쁜 꽃이네.”

“아니야, 예쁜 엄마를 많이 닮았어.”

갑자기 지난 일들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질 때 신랑이 어깨를 감싸줍니다.

“오늘은 당신답지 않구려.”

“행복에 겨워 그런가 봅니다.”

긴 그림자 뒤로 하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꽃가마에서 내린 수줍은 색시를 맞이해 주던 노을이 가만가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꽃가마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 할머니 시집살이도 편하지는 않았단다.”

“예, 할머니. 어머니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영희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재롱을 떨었습니다.

매일같이 열한 명이나 되는 시댁 식구의 끼니를 챙겨주고 남은 국물로 배를 채웠다는 ‘다복’이네 할머니 이야기까지 들은 영희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들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신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잠이 쏟아지는 손녀를 누이고, 내일은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영해면 성내3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진 것 없이 꽃가마를 타고 시집 온 색시의 모진 시집살이와 임신한 몸으로 장사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딸만 낳았다고 고생하신 할머니 이야기와 끼니를 굶어가며 사댕의 많은 식구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할머니 이야기가 함께 스며있습니다.

성내3리

인터뷰 Interview

마을장소 영해면 성내3리 마을회관 인터뷰어 권호진, 이옥수, 정봉연
 참여자 권난희, 김귀년, 김강수, 김문규, 김상수, 김숙자, 박영주, 박옥자, 배익명, 배정숙, 윤충길, 이대명, 이복남, 이분학, 이석조, 이숙자, 이윤경, 이재광

성내3리마을이야기

제사

- 조선시대 노하동, 길아래동이라 불렀던 성내3리 마을제당은 경로당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인 장수꿈에 있으며 ‘수구당’ 또는 ‘아기당’ 이라고도 부른다.
- 신수는 수령 약 3백년으로 추측하고 있는 소나무이며 당 안에는 신상으로 여신을 모셨으며 제상이 있으며, 바깥에는 산신을 위한다.
- 제일은 음력 정월 15일 자시에 지내며 제관은 전에는 7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이며 정월 3일 마을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며 12일경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깬다. 제관은 14일 목욕재계를 한다.
- 제물은 메(밥), 갹(국), 병(백편)과 채소(청채, 백채), 어물 중 상어는 꼭 있어야 하며 그 밖에 문어, 광어, 가자미를 차리고 육류는 쇠고기를 놓고 탕은 육탕이다. 과실은 대추, 밤, 배, 감, 사과 등을 깎아서 쓰며 산신제에는 피로(깎지 않고) 쓴다.
- 제물은 다 손수레에 싣고 옮겼었다.
- 제의는 분향, 재배, 참신, 초헌, 축, 아헌, 종헌, 재배, 소지 순으로 한다.

- 제사 지내기 3일, 4일 전에는 금석줄이라고 새끼를 꼬아서 줄을 친다.
-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정갈한 마음으로 징을 치면서 간다. 근데 그 징을 치면서 가면 개도 안 짖었다.

전해오는 노동요

‘서마지기 이 논때기 반달같이도 떠나가네.
니가 무슨 반달이고 어이 초승달이 반달이지’

아기당에 대한 전설

조선시대 영해부사가 기생을 사랑하여 여아를 낳고 산후 조리 잘못으로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부사가 공무를 돌보지 않고 시름에 잠겨 있었다. 이때 읍민이 기생의 화상을 그려 부사에게 드리자 부사는 그 화상을 서재에 걸어두고 그리워하다가 부사도 죽었다. 그 뒤 부임하는 부사도 며칠이 안 되어 죽었다. 용감한 한 부사가 새로 부임하여 밤을 지새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 촛불이 꺼지더니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서 전임 부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기생의 화상을 찾지 못하자 다시 그려 기생과 딸을 위한 사당을 짓고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제사 드리자 고을이 편안해졌다. 해마다 제사를 잘 지내면 농사도 잘되고 마을이 평안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기생과 어린 딸을 모셨고 특히 어린아이를 사당에 두었으며 아기당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옛길로 마을 초입이 되므로 수구당이라고도 불렀다. 마을의 안녕을 위한 큰 행사로 개개인의 일년 소원을 비는 귀한 풍속이 계속 이어져 마을의 복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람이 있다.



놀이

- 썰매타고 놀았는데 그런 것도 다 만들어서 놀았다. 나무판에 쇠붙이를 가져다 대서 타고 놀았다.
- 골목에 오디나무 큰 게 있는데 국민학교 때 그거 먹느라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고는 했다.
- 굴렁쇠하고 놀았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높은 게 자전거 발통에 있는 타이어를 다 빼 버리고 나무 막대기 두 개로 굴려서 다녔다.
- 강통에 불을 넣어서 돌리는 쥐불놀이도 하고 놀았다.
- 길고 짧은 두 개 막대를 치며 노는 자치기도 하고 놀았다.
- 높고 좁은 도랑에서 스킷또(썰매)를 타고 놀았다. 썰매가 따로 없으니 짚단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내려왔다.

- 새총 만들어서 새도 잡고 놀았다. 정말 잘하는 아이는 나무에 매미도 잡았다. 새총은 탱자나무로 하는 게 가장 좋았다. 새총 만들 때 고무줄이 필요했는데 고무줄 없으면 기저귀에 있는 고무줄 빼서 만들기도 했다.
- 바다에서 차 바퀴에 있는 튜브를 타고 놀았다.
- 팔씨름, 씨름, 말뚝박기 등 많은 놀이를 했다.

생활

- 운동회가 마을의 최고 잔치였다.
- 옛이 가장 맛있는 과자였다. 그래서 헛 고무신, 하다못해 멀쩡한 고무신을 옛장수에게 가져가서 바꿔 먹었다.
- 학교에서 도시락을 난로에 데워 먹었다.
- 환갑 땀 기생도 불러서 잔치를 열기도 했다.

음식, 농사

- 밀사리, 콩사리라고 해서 밀이나 콩을 베어 불에 구워 먹었다.
- 송천강이 가까워서 자주 가서 민물고기 잡고 놀았다. '뿌구리탕'이라고 다리 밑에서 국수 넣고 파 넣고 끓여 먹었다.
- 보리를 채로 볶아서 빵아서 죽을 끓여 먹었다.

개인 이야기

권난희 어르신

6.25사변 무렵 아버지는 안 계시고 먹을 것이 없어 입 하나 덜겠다고 이웃 마을에 시집을

오게 되었다.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으나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왔다고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

임신한 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은 고추를 팔러 가기 위해 고추자루를 버스에 실었다. 마음씨 나쁜 안내양이 부피가 큰 고추자루라고 발로 차서 고추자루를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내동댕이쳐진 고추자루를 붙들고 서럽게 울었다. 하는 수없이 그걸 머리에 이고 몇 십 리 길을 걸어 가니 밤이 되었다. 달밤 길을 울면서 걸어가던 중 검은 물체가 짐승인 줄 알고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중간에 문둥이 마을도 있어 혹시나 주머니 돈을 빼앗길까 봐 마음을 졸이며 걸어갔다.

중간에 친척 집에 들르니 시어버님이 임신한 몸으로 그 밤길을 걸어왔냐고 이야기하시길래 서러움에 목메어 울었다. 그래도 고추자루를 가지고 왔다는 기쁨으로 마음을 달랬다.

그 고추 판 돈이 천원 정도 되었는데 그 돈으로 제사 음식을 사서 제사를 지냈다.



이숙자 어르신

재래식 결혼식을 많이 하는 시대에 신식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했으나, 딸만 4명 낳는다는 이유로 아이 2명을 데리고 쫓겨났다. 막내가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니 호적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수기 작성으로 호적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

딸 많이 낳아서 쫓겨난 서러움보다 막내가 호적이 없다는 속상함이 더 커서 면사무소 직원을 찾아가서 먹살을 잡고 난리를 치니 면사무소 직원이 도망을 다니고 난리가 났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은 사위가 병원도 데려다주고 잘 살고 있다.

이강수 어르신

시집을 오니 식구가 11식구나 되었다. 늘 11식구가 먹을 국수를 만들어야 했다. 쌀이 귀한 시절 국수를 자주 해 먹었는데 국수를 만드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반나절을 디딜방아에 밀을 찧었는데 손위 동서는 앉아서 하고 나는 작고 다리에 힘이 없어, 팔로 위에 지지대를 밀어 방아를 찧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찧은 밀가루로 손국수를 11개를 만들어 주고 나면 항상 내 먹을 것은 부족해서 남은 국물 조금으로 때울 때도 있고 찢 보리 쌀을 자주 해서 먹었으나 그것마저 나한테 충분히 돌아오지 않아 수많은 세월을 배고픔에 시달렸다.

하루는 가마솥에 밥을 하는데 가마솥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내가 부정을 타서 그렇다고 또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불량 가마솥이었는데.

축산면 — 고곡 1리

동화

디딜방앗간에서
부르던 노래

글 이영숙

인터뷰

고곡 1리

인터뷰어 이옥순

디딜방앗간에서 부르던 노래

- 이영숙

골목 끝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철이는 답다는 생각도 잊고 머리를 이불 속에 파묻고 엉덩이를 쳐들었다.

“철아, 나가지 마래이. 인민군이 어젯밤에 경자네 똥통 뒤에 숨겨둔 차좁쌀 두 포대를 홀랑 가져갔단다.”

엄마는 바깥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가, 우짜노. 그 집 인자 머 먹고 사노.”

철이는 이불 속에 숨어 말했다.

“그래 말이다. 보리쌀 삶은 거라도 한 줌 갖다 즐라카이 무서워서 못가겠다.”

“내는 문간데이. 시키지 말거래이.”

철이는 여름철이라 더운 테도 땀을 흘리면서 여전히 머리를 이불에 넣고 벌벌 떨면서 손사레¹⁾를 쳤다.

철이는 인민군이 무서웠다.

얼마 전 인민군 제5사단이 영덕진까지 내려와 우리 국군 제3사단과 맞서게 되었다. 도곡 마을은 적의 전차를 습격하여 인민군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총과 포탄

^{1) 손사레}: 어떤 말이나 일을 부인하거나 조용히 하기를 바랄 때 손을 펴서 휘젓는 일 ^{2) 흡}: 부피의 단위. 곡식가루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씀(한 흡은 한되의 1/10)

이 날아들자 주민들은 해변을 따라 피난을 갔다.

엄마도 월포 솔숲에 보름쯤 숨어 있자는 생각으로 피난 준비를 했지만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 망설여진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자 피난 갔던 사람들이 거지꼴을 하고 돌아왔다.

“철이 어무이, 피난가지 마소. 배고파서 견지도 못하것더라.”

“우리 거지처럼 아침이모 남의 집에 가가 밥 얻어 묵고 겨우 살았다. 아휴, 말도 마래이.”

월포 솔숲 피난살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인민군은 짧은 남자를 보면 바로 잡아갔기 때문에 철이 아버지는 마을 뒷산에 숨어 있었다.

철이 엄마는 인민군 눈을 피해 몰래 아버지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있었다.

만약 들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같이 숨어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붙잡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드나들었다.

철이네는 보리쌀 두 포대를 마루 밑에 구멍을 파서 숨겨두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보리쌀 두 흡²⁾을 퍼 와서 밥을 지어 먹었다.

“경자 누나하고 경식이 배고파서 우짜노.”

철이는 혼자 밥 먹은 것이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올까 싶은 생각에 문고리를 잡았다. 엄마가 기겁하며 말했다.

“야야, 큰일 난다. 너거 아버지도 집에 없는데 니 총 맞으로 나는 문 산데이. 절대로 나가모 안 된다.”

매일 밤, 총소리가 났다. 낮선 아저씨의 고품도 들렸다. 인민군이 돌아다니는 마을은 사람 숨소리는커녕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철이는 무서워서 여름이라 땀이 나도 방안에서 숨어 꼼짝할 수 밖에 없었다. 총

도 무서웠지만 화난 인민군이 더 무서웠다. 인민군이 마을에 돌아다니고부터는 마을 사람 누구도 안심하고 밤잠을 잘 수 없었다. 철이도 잠은 안오고 인민군을 피해 산에 숨어 있는 아버지 생각이 더 났다. 몰래 음식을 갖다주고 온 엄마가 아버지 다리가 모기한테 물려 엉망이더라는 말이 떠올라 더 걱정 되었다.

갑자기 집이 두르르르 흔들리면서 디딜방앗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통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 큰 물건을 놓을 때 나는 소리였다. 연이어 인민군들 소리가 났다.

“여기가 제일 낫구마이.”

“아이구 겨우 끌고 왔지비. 나레 디기 겁 났시우.”

“야, 근데 이거 우찌 고칠까 걱정이네.”

철이와 할머니는 누워 있는 방 봉창³⁾을 통해 들려오는 인민군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할매, 무슨 소리 들었제?”

“췌!”

할머니가 손으로 철이 입을 막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옆방에 자던 엄마가 벽을 두드렸다. 엄마도 디딜방앗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신호였다. 한 방으로 모이려 해도 겁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은 벌벌 떨면서 밤을 세웠다.

날이 밝아도 세 사람은 방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나가 보꾸마. 인민군이라케도 늙은이를 우찌 하겠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디딜방앗간에 가셨다.

“아이고 이기 머꼬. 야들야 나와 봐라. 시상에, 이기 머꼬.”

3) 봉창: 창틀이나 창짝이 없이 벽을 뚫어서 구멍만내고 안으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

할머니의 놀란 소리를 듣고 엄마와 철이가 후다닥 디딜방앗간⁴⁾으로 갔다.

“음마야, 이기 머꼬. 시상에 이기 머꼬.”

엄마도 놀라 할머니와 같은 소리만 할 뿐,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철이도 놀라 입만 벌리고 디딜방앗간에 퍽 버티고 있는 까맣고 커다란 탱크만 바라보았다. 탱크 뒤쪽에 웅크리고 자고 있던 인민군들이 부스스 일어났다.

순간, 세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몸을 떨었다.

키가 큰 인민군이 다가왔다.

“할마이 동무, 놀라지 마시오. 우리 나쁜 사람 아님다.”

“이 탱크 고칠 동안 여기 좀 봐 눅시다래.”

철이네 방 뒤쪽에 있는 마을 디딜방앗간을 줄지에 탱크 한 대가 차지하였다.

“이 보시오. 와 여⁵⁾이런 거 봐 두노. 어이.”

할머니가 용기를 내 조금 소리 높여 꾸짖듯이 말했다.

“누구 허락 받고 이라고요.”

그제사 엄마도 놀란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할머니 따라 한 마디 거들었다.

“어마이 동무, 우리 나쁜 사람 아님다. 겁먹지 마시라우.”

키가 큰 인민군이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어 갔다.

“우리 탱크가 고장 나서레 고쳐야 하니 그 동안 신세 좀 지갓시오.”

말은 부드럽게 하여도 인민군들이 마을에서 부린 행패를 알고 있는 엄마는 손을 떨면서도 할머니를 부축했다.

뒤에 서 있던 얼굴이 둥근 인민군 한 사람이 다가왔다.

“아집 동무, 이 탱크는 고장 나서 포를 쏠 수 없으니 걱정 마시구레.”

4) 디딜방앗간: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뺨는 방아가 있는 집 장소 5) 여:여기의 경상도 사투리

“우리 이 탱크만 다 고치고 나면 떠날거이, 겁내지 마시오.”

“근데 우리 배가 고파 죽겠시우. 먹을 거 좀 주실 수 있음…”

인민군은 꼭 동네 아저씨처럼 철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철이는 순간 온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긴장하였다. 아직 어린이라 철이 키가 인민군 허리쯤이어서 인민군 허리의 총을 보았다.

‘저 총으로 우리 식구 죽이모 우짜노.’

“전쟁 통에 너저 겘은 사람들이 곡식 다 뺏아 갔는데 집에 묵을 거 머가 있겠노.” 할머니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보리쌀 쪼매 있는 거 삶아가 좀 맥이라.”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시키면서 철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무이요. 쪼매⁶⁾ 있는 보리쌀 삶아가 저 사람들 주고 나모 우리는 우짜능교.” 뒤따라오던 엄마가 걱정 반 불평 반으로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래도 굶고 있는 사람들 모른 채 하모 안 된다. 그라모 문쓴다. 사람 도리는 해야제.”

“엄마, 인민군이 총 차고 있는 거 봤나?”

철이는 엄마에게 인민군 총을 말하며 제발 보리쌀 삶아 주기를 바랐다.

철이네 방 뒤에 있는 마을 디딜방앗간에 인민군이 폭격 맞은 탱크를 끌고 와 짚으로 숨겨둔 날부터 철이네는 나날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탱크 다 고치고 나모 우리를 가만 놔두겠나. 인자 우리 무서버서 우짜고.”

엄마는 두 발을 동동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는 아버지도 이기는 우리 집 대장이었다.

엄마가 시끄럽다고 고함치면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엄마 말

6) 쪼매: 조금이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 7) 기미: 검색

을 다 들어 주었다.

인민군과 탱크가 방 뒤에 있고부터 엄마는 바깥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다.

“탱크가 우리 방 뒤에 있다 아이가. 진짜 무서버가 우짜노. 총 찬 인민군이 들락 거릴킨데. 보리쌀도 다 무가고 인자 우짜야 되노. 우리도 뒷산에 숨으러 가까.”

엄마는 옷가지를 챙기다가 문을 조금 열고 방 뒤쪽을 살피기 시작했다. 철이도 방 뒤에 인민군이 있고 폭격 맞은 탱크가 있다고 하니 숨이 막힐 정도로 겁이 났다.

혹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오다가 붙잡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다.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다. 엄마는 방 뒤쪽으로 난 봉창에 대못을 박아 열리지 않게 했다. 봉창을 이불로 가려서 뒷쪽에 그림자도 비치지 않게 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마을은 매미 소리만 요란했다.

인민군은 이집 저집 마구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았다. 비명이 들리고 아이들의 울음이 터지면 또 곡식을 빼앗긴 거다. 다행한 일은 아이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을 해치지 않는 않았다.

철이네 방 뒤 디딜방앗간에 폭격 맞은 탱크가 오고 난 후 인민군의 수가 늘어났다. 인민군은 더위를 참아가며 탱크의 고장 난 부분을 고치려고 어디 가서 부속품을 훔쳐 왔다. 시간이 지나도 탱크는 고쳐질 기미⁷⁾가 안 보였다.

인민군들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숨어 있던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철이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이불 속에 숨어 있다가 끌려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인민군이 타이르듯 말했다.

“우리가 가르쳐 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

인민군은 아이들을 두 줄로 세워놓고 노래를 가르쳤다.

“꽃바람도 새바람도 붉은 피를 흘리는 ~~.”

철이는 무서워서 입만 달싹거렸다.

노랫소리가 작으면 무섭게 으름장⁸⁾을 놓았다.

“야! 야! 밥도 못 먹었나? 와, 소리가 작네. 더 크게 불러야지비.”

철이는 붉은 피를 흘린다는 노래를 부르기 싫었지만 인민군이 무섭게 소리를 질러 철이와 아이들은 매일 불려갔다.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끝까지 찾아오라고 닭달⁹⁾을 해서 형들을 내쫓았다. 학교에 다니고 있던 형들은 안 나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6학년 형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인민군이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 그런 노래는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절대로 학교 와서 부르면 안 된다.”

“친구들에게 절대 가르쳐 주어서도 안 된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인민군이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노래를 외우지 못하면 인민군에게 무섭도록 야단을 맞았고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은 아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두려워했다.

철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흥얼거리며 노래를 외웠다. 그러면 형들이 학교 선생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며 절대 외우지 말라고 머리를 쥐어박았다.

인민군은 어디서 어떻게 훔쳐왔는지 부속품을 넣어놓고 폭격 맞은 탱크를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탱크 고치는 시간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시켰다.

키가 조금 큰 인민군 한 명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고 다른 인민군들은 노

8) 으름장: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위협하는 짓 9) 닭달: 몰아대서 다그침

래를 들으며 탱크를 고쳤다.

철이는 탱크가 겁났지만 호기심이 생겨 결눈질로 보기도 했다. 탱크는 시커멓고 크고 무서웠다. 쇳덩어리가 내는 굉음은 천둥보다 커서 고막이 찢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 철이는 탱크를 빨리 고쳐서 인민군이 제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철이가 매일 불려가 이상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탱크를 못 고치면 계속 철이가 불려갈 거고 다 고치면 아이들을 신고 그대로 가버릴까 마음을 졸였다. 엄마는 손자를 귀여워하는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어무이요, 아이들 노래 부르는데 함 가보이쇼. 해코지는 안 당하는가 함 보고 오이쇼.”

“아이들 또 불려 갔나. 아이고 빨개이 자숙들, 우째야 쓰것노.”

할머니도 인민군들이 겁이 났지만 손자가 잘못될까 겁이 나서 조심조심 살피려 가곤 했다.

디딜방앗간에서 멀찍이 숨어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안도의 숨을 쉬면서 손자 손을 잡고 돌아갔다.

“야야 철아, 개안나. 해코지¹⁰⁾ 안하더나, 아이고 우리 귀한 손자 이 땀 좀 봐래이 어서 가자.”

할머니는 철이의 손을 잡고 잔걸음¹¹⁾으로 방으로 돌아왔다.

탱크를 고치는 동안 인민군은 밤이 되면 전봇대를 베어 버렸다. 엄마가 전봇대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걱정을 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이 전봇대를 와 베노. 이 더분 여름에 불 땔 일이 머 있다고.”

10) 해코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11) 잔걸음: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

철이는 전봇대 베는 것도 수상하고,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이상해서 물었다.

“야가 멀 모르네. 전봇대가 얼마나 중요한데…”

“머가 그리 중요한데?”

나무로 만든 전봇대는 전기나 통신 연락을 하고 있어 중요하다는 엄마 설명을 들었다. 밤에 전봇대 베는 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 가까이 인민군이 있는 줄 알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낮에 숨어 있던 어른들은 밤이 되면 모여 마을 상황을 살폈다. 전봇대가 베어지는 날은 어른들의 가슴도 쿵 내려앉았다.

인민군을 몰아내는 데 전봇대가 제 역할을 다 할 텐데 하고 어른들은 걱정하였다. 전봇대가 없어지면 다시 세우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닐 거라고 더 걱정했다.

인민군은 전봇대를 베어버리는 일 외에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마을에는 거동¹²⁾하기 힘든 노인들과 부녀자, 아이들만 남아있었으니 인민군이 위협은 주지 않았다.

가끔 할머니들이 나이 어린 인민군에게 보리쌀로 주먹밥을 만들어 갖다 주면 고맙다고 맛있게 먹기도 했다. 그래도 철이는 인민군이 무서웠다.

탱크가 어느 정도 고쳐졌는지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다가 곧 꺼지고 했다.

시동이 걸릴듯 말듯 하면 인민군들은 철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북한말을 하면서 서로 화를 냈다. 다시 부속품을 풀고 끼우고 하더니 시동이 걸리자 자기들끼리 만세를 불렀다. 노래 부르던 아이들에게 탱크에 꽃을 풀을 뜯어 오라고 했다. 형들이 하루 동안 도리끼라는 잎이 길쭉한 풀을 뜯어 주었다. 인민군들은 그 풀을 서로 엮어 탱크를 감쌌다. 아마 탱크를 위장¹³⁾하여 끌고 갈 모양이라고 형들이 말했다.

8월 14일 아침 일찍 인민군들이 탱크에 시동을 걸었다.

12) 거동: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나 태도. 몸가짐 13) 위장: 병력장바시설 등이 적의 눈에 띄이지 않게 하는 일

탱크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엄마는 몹시 놀라면서 철이를 바짝 안았다.

“아이고 저 탱크로 우리 죽이모 우짜코.”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 마을 하늘을 빙빙 돌았다.

“이기 머래여? 웬 비행기가? 어서 도망 가자우. 탱크 포기하고, 모두 빨리 빨리 도망가자 우.”

“탱크에 수류탄 던지라우. 어서!”

인민군들의 우왕좌왕 하는 소리에 이어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철이네 집 뿐 아니라 온 동네가 들썩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는 줄 알았다. 수류탄 터진 연기가 디딜방앗간뿐만 아니라 철이네 방 안까지 자욱하게 퍼졌다. 비행기는 마을을 폭격하지 않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조용해졌다. 인민군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점심 때가 지나자 마을이 조용해져 철이는 엄마랑 방 뒤쪽 디딜방앗간으로 가보았다.

이웃 할머니들과 형들도 그제야 나오기 시작했다.

디딜방앗간 지붕 한 쪽이 땡 뚫렸다.

수류탄 연기 냄새가 가지지 않은 탱크는 다시 한 쪽이 부수어져 있었다.

“아이고…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네.”

철이 엄마가 철이를 꼭 안으며 깊은 안도¹⁴⁾의 숨을 내쉬었다.

인민군이 없어지자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여름 방학이 끝나자 형들은 학교에 갔다. 철이는 혼자 심심 했지만 탱크 가까이 가기가 싫었다. 인민군들이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았다. 산으로 피신 갔던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오셨다.

14) 안도: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마음을 놓음

“인자 저 봉창 덮은 이불도 치우고 대못도 뽑아 주소.”

엄마는 그 봉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옛날부터 무척 좋아했다.

바로 산 밑에 사는 진구 아버지는 산에 숨어 있다가 걸린 감기로 몸이 쇠약¹⁵⁾해져 있었다. 영양 보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걱정이었다. 집집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서로 도울 수가 없었다.

철이는 아버지가 인민군을 피해 산으로 피신 갔을 때 언제나 아버지가 걱정되어 엄마 몰래 많이 울었다.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 온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두 마지기 되는 논에 나가 여름내 자란 피¹⁶⁾를 뽑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버지에게 시원한 우물물을 퍼 올려 갖다 드리는 일이 신난 철이는 늘 싱글벙글했다.

철이 엄마도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 집안일 하는 것이 고단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산나물을 캐러 다녀도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9월이 되자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기 시작했다.

철이는 아직 어려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함께 놀 또래¹⁷⁾친구가 없었다. 같이 노래를 불렀던 형들이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했다. 형들도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철이를 불러냈다.

“철아, 우리 왔다. 인자 놀러 가자.”

형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신이 나서 뛰어갔다.

얼마 동안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는 디딜방앗간에 있는 폭격 맞은 탱크였다. 탱크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다가 인민군이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럴 때면 노래를 가르쳐 주던 인민군이 생각나 온몸이 오싹¹⁸⁾거렸다.

^{15) 쇠약}: 몸이 쇠하여 약함 ^{16) 피}: 벼과의 한해살이풀. ‘돌피’의 개량종으로 밭이나 습한 곳에 재배하며, 높이 약 1m. 여름에 연한 초록빛 또는 자갈색 꽃이 거칠고 크게 피. 열매는 식용·사료로 씀 ^{17) 또래}: 나이나 정도가 서로 비슷한 무리 ^{18) 오싹}: 무섭거나 추워서 갑자기 몸이 움츠러들거나 소름이 끼치는 모양

“그 노래 싫다. 제발 안 부르모 좋겠다.”

형들은 철이 혼자 폭격 맞은 탱크를 독차지하고 놀 수 있으니 좋겠다고 했지만 철이는 절대 혼자 오지 않았다. 인민군이 하던 독한 말과 노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철아, 인자 진짜 우리 안심해도 된다. 잡단다.”

올해는 콩도 잘 익는다고 콩밭에 풀 뽑으러 갔다 온 엄마가 말했다.

“머가 잡혔는데?”

“지난번에 탱크 부수고 도망 간 인민군 한 사람이 잡혔단다. 경정서.”

“진짜가? 누가 잡았다 카노.”

“경정에 사는 5학년 아아가 산에 소 풀 뜯으러 갔다가 보고 신고해가 잡았다칸다.”

“야! 그 형 장하네. 상 줘야 한다.”

“글쎄. 장하제. 안 그래도 큰 상 줘야 된다 쟤다.”

“근데 그 형은 인민군 보고 안 무서벗는가? 나는 지금도 무서분데…….”

그날 학교 갔다 온 형들도 인민군 잡은 경정 학교 5학년 형 자랑을 침 튀기면서 했다.

꼭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신나서 인민군이 도망가는 흉내까지 냈다.

엄마는 인민군이 다 잡혔다는 말을 듣고는 밤잠을 잘 잤다.

철이는 전쟁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전쟁을 겪고 싶지 않았다.

디딜방앗간을 지나며 탱크를 볼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로 부르던 노래가 기억나 끔찍했다.

폭격 맞은 탱크는 철이가 3학년 가을 운동회를 마칠 때까지 디딜방앗간에 있었다.

중학생이 된 형들도 철이 들자 탱크를 피했다. 그 때 인민군이 시켜서 부르던 노래를 잊으려고 애쓴다고 했다. 그 탱크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때 부르던 노래가 떠올라 철이도 귀를 꼭 막았다. 비 오는 날이면 그 노래 가르쳐 주던 인민군의 무서운 말이 떠올라 고개를 세차게 흔들기도 했다.

고곡1리

인터뷰 Interview

마을장소 축산면 고곡1리 인터뷰 이옥순
 참여자 이상철, 김철호

아이들이 피해 다니는 그 탱크는 녹이 쓸기 시작하면서 흉물¹⁹⁾로 변했다.
 녹이 쓸어 흥측해진 탱크를 볼 때마다 인민군이 떠올랐다
 마을에서 폭격 맞은 탱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여러 번 면사무소에 부탁
 했다.
 가을 운동회 하고 추수가 다 끝나자 면사무소에서 치워 주었다.
 탱크가 없어지자 어른, 아이 모두 후련하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운동장이 더 좋은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철이가 6학년이 되자 디딜방앗간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새 방앗간이 지어졌다.
 기계를 이용하여 곡식을 빻고 떡까지 찌는 방앗간으로 변신했다.
 팔순이 다 되어가는 철이 어르신은 방앗간 기계 소리가 가끔 그 때 부르던 노래
 로 들리는 것 같아 몸이 오싹거린다고 하셨다.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폭격 맞은 탱크 앞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생겨
 나지 않고, 지구촌²⁰⁾ 곳곳에서 전쟁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라
 고 하셨다.

● 이 이야기는 영덕군 축산면 고곡 1리 이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동화입니다. 우리나라 비극적 역사의 일부분인 6.25전쟁 때 작은 마을에 우연히 들어온 인민군으로 하여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때의 어린이들이 겪은 생활을 통해 여러 어린이들의 사회적 관계, 세 계관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19) 흉물 : 흉하게 생긴 사람이나 동물 20) 지구촌 : 통산교통 수단의 발달로 좁아져서 지구 전체가 한 마을처럼 된 것을 이르는 말

고곡1리 마을이야기

6.25이야기(이상철 어르신)

- 6살 때 인민군들이 이 동네를 점령했다. 뒷집이 디딜방앗간이었는데, 인민군들이 폭격 맞은 탱크를 끌고 와 부속품 같은 걸 다 훔쳐 가져가서 디딜방앗간 안에다가 탱크를 숨겨 놓고 고쳤다.
- 짚으로 덮어서 숨겨두고 8월 보름날에 돌격하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인 8월 14일 날 장사 상륙작전이 터져 다시 밀리는데 총소리가 탕탕탕 나고 난리가 났었다.
- 탱크를 고칠 때 어린애들을 불러놓고 노래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불렀었다. “꽃바람도 새바람도 붉은 피를 흘리는~” 이런 내용의 노래였다.
- 장사상륙작전에서 인민군이 밀리면서 탱크를 가지고 가려고 시동을 거는데 비행기가 날아와서 못 가져갔다. 탱크를 ‘도리끼풀’이라고 하는 풀로 위장해서 시동을 걸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못 가져가고 수류탄으로 다 부수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부순 탱크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탱크 위에 올라가서 놓고, 포도 돌려가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 그때 인민군들이 동네에 와서 이불, 옷, 나락, 보리, 수수가 어느 집에 얼마나 있는지, 심



● 이상철 어르신

지어는 감나무에 몇 개가 달렸는지도 조사해서 뺏어 갔다.

- 6.25 때 월포에 소나무가 많은 숲으로 보름 정도 피난을 갔는데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었다. 아침 되면 밥 얻으러 돌아다니곤 했다.
- 옛날에는 나무로 된 전신주(전봇대)를 썼었다. 인민군들이 전기나 전화가 없어야 마음껏 훔쳐 갈 수 있으니까 밤만 되면 톱으로 전신주를 다 베었다.
- 밤에 전신주를 베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무서웠다. 밤에 야경 도는 사람들이 전신주 베는 거 안 지켰다고 지서(경찰) 불러서 난리가 났었다.
- 인민군들이 낮에는 못 움직이고 밤에만 움직이는데, 경정의 학생들이 소먹이를 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인민군들이 숨은 걸 발견해서 신고했다.

생활

- 경정에서 대게를 잡아서 지게를 지고 진보까지 팔러 가는 사람이 많았다. 지나가다가 슬쩍 게 다리를 당기면 엄청 커서 한 마리로 두 사람이 다 못 먹을 만큼 큰 게가 2마리씩 빠져나왔다. 길에 흘린 생선이나 게를 주워서 실컷 먹었다.

고곡 지역 이야기(김철호 어르신)

- 고곡리는 영해부 남면 지역으로 지금은 고곡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고실이라 불렀다. (윗고실, 아랫고실)
- 고실 마을은 고래산 밑에 자리하며 도곡과 영덕을 경계로 20리에 걸쳐 길게 마을을 이루어 있어 도로가 생기기 전에 구불구불 도보로 다니던 시절엔 30리도 넘는 험한 고갯길로서 전례에 의하면 고실고실 열두 고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고 한다.
- 영덕과 포항으로 이어지는 도보 길은 현재 차 도로가 형성되었다.
- 축산중학교가 생긴 곳을 '학교 고실'이라 불렀다. 경정, 축산 등 해안마을, 화천, 도곡, 상원 등 축산면 학생들이 다녔다. 특히 경정리에서는 아낙네들이 고기를 머리에 이고 고곡을 비롯한 산골 마을에 와서 쌀과 감자 등 곡식과 바꾸어 가기도 했다. 때로는 고기를 이고, 산길을 넘어와 이 집, 저 집 팔러 다니다 보면 배가 너무 고파서 고기 몇 마리 주고 밥으로 바꿔 먹기도 했으며, 그렇게 한 끼를



● 김철호 어르신

때우기도 했다.

-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라 해안에는 감나무가 없어서 해안 사람들은 감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다. 그래서 남의 집 감을 훔쳐 먹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는 수박 서리, 오징어 서리 장난도 많이 했었다.

- 마을 앞 냇가에 비가 조금만 와도 건너지 못해서 마을 어른들이 업어서 건너 주기도 하고 학교에 못 가기도 했다. 그중 비만 오면 학생들을 업어서 건너게 도와주던 언어장애 어른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신을 한목소리로 '복 받을 것이다! 후손이 잘될 것이다!' 했다.

- 경정에서 고곡으로 오는 산길에는 많은 처녀, 총각들의 연애 장소가 많아서 지금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께서는 추억의 장소가 많을 것이다.

- 늦은 시간에 그 산길에 고기가 담긴 지게를 지고 넘어오다 보면 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바위 밑으로 열린 도망가서 지게를 밖에 두고 숨었다가 한참 후에 나오면, 어떨 때는 고기가 그대로 있고 어떨 때는 고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 등골이 오싹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 현재 고곡리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고곡1리, 2리로 분리되었고 고곡 1리는 고래산 밑에서 3개의 자연부락(자연적으로 형성된 촌락)을 이뤄 주민들끼리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고 있다.

축산면 | 도곡2리

동화

외로운 별,
태백산 호랑이

글 박승렬
그림 축산향초등학교 김재원, 김태양, 이효재, 임재범

인터뷰

도곡2리

인터뷰어 신문기, 이옥순

외로운 별, 태백산 호랑이

- 박승렬

나는 어디든 자유롭게 날며 온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구름 이야기꾼입니다.
이번 여행에는 제 친구인 바람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두 친구는 맑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갑니다. 한참을 가니 저 멀리 이야기가 가득한 마을이 보입니다. 봄이면 산나물 향기 가득하고 시원한 여름이면 나그네의 마음을 흔드는 계곡의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저마다 뿔을 내고 겨울이면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신돌석 장군¹⁾이 태어난 집과 공원 그리고 기념관이 잘 가꾸어져 있는 도곡 2리에 가까워질 즈음, 웅장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산봉우리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저기 높은 곳에서 잠깐 쉬어갈까?”

구름이 말하자 바람도 쉬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래, 쉬어가자.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알아?”

“응, 여기는 신돌석 장군이 태어나게 된 흥미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항일 의병들이



그림 ● 김재원

훈련하던 고래산²⁾이라는 곳이야.”

장군이 태어난 집에서 바라보면 고래산이 보입니다. 집채만 한 큰 바위 아래 작은 굴 안에서 신돌석 장군의 부모님이 촛불을 켜놓고 여러 날 기도를 올린 끝에 신돌석 장군을 낳았습니다. 본명은 ‘태호’이고 불리는 이름은 ‘돌석’이었지만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더 알려졌지요. 고래산에 올라보면 아직도 장군의 호탕한 웃

¹⁾ 신돌석 장군: 본명은 신태호, 불리는 이름은 신돌석, 1878년11월3일 출생하여 1908년11월18일까지 영덕을 중심으로 항일운동한 의병장

²⁾ 고래산: 높이 291.3m,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에 있는 산

음이 찌렁찌렁 울리는 것 같습니다.

구름은 바람에게 말합니다.

“신돌석 장군은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몸집이 컸지. 외투용 긴 두루마기 옷이 휘날릴 정도로 걸음걸이가 엄청 빨랐다고 해.”

“그래, 축지법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맞장구를 친 바람은 서당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양반 자제들과 함께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며 학문에 임했던 장소가 여기야.”

“훗날 의병을 지휘하는 능력도 여기서 깨우치게 된 거야.”

“어릴 때부터 힘도 장사였어. 큰 호랑이가 장군으로부터 쫓기기도 했다. 하하.”

바람은 신이 나서 구름에게 들려줍니다.

“신돌석 장군이 산에 올라 공부할 때 뒤숭숭한 머리를 식히고자 산을 내려오는 데 앞에 큰 물체가 막아 서 있었다. 주춤하면서 큰 호랑이인줄 알고 ‘이놈 비키지 못할까?’하고 고함을 쳤는데 그건 호랑이가 아닌 큰 나무였고 고함소리에 뿌리째 뽑혀버렸다고 해.”

구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람은 놀랐습니다.

“와, 바람인 나도 어려운 일인데 고함 소리에 나무가 통째로 뽑혀 버려?”

“그 정도로 힘이 장사였어. 그 힘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의병 활동의 바탕이 된 거야.”

구름은 바람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신돌석 장군이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시기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열아홉이라는 어린 나이에 항일 의병을 조직하여 참여해 오다가 나라의 명령으로 의병이 해산되었습니다. 몇 년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나라를 찾는 운동과 동지들을 모으는 데 힘을 쏟았지만 나라가 힘이 없다 보



그림 ● 김태양

니 일본에 의해 강제로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신돌석 장군은 나라의 외교권이 빼앗기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송정³⁾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라를 걱정한 ‘우국’이란 시를 읊었습니다.

누에 오른 나그네 갈 길을 잃고

^{3) 월송정}: 경북 울진군 평해면 월송리에 있는 정자 이름

낙목에 가로 놓인 단군의 티전을 한탄하노라.
 남아 27세에 이룬 일이 무엇인가
 문득 가을바람이 부니 감개만 이는구나.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신돌석 장군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의미심장하게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사나이로 태어나 지금의 이 시국을 그냥 바라볼 수만 없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바람 앞 촛불 같은 나라를 구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너도 장성하였으니 대장부로서 뜻을 펼쳐 보거라.”

부모님은 논밭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신돌석 장군에게 쥐어주면서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인근 양반 마을들도 그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여보, 부모님과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어떤 고초가 따르더라도 굳건하게 버텨야 하오. 우리나라 독립의 그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아내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가정에 좀 더 충실한 아들로써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가족들은 걱정 마세요. 부디 몸 성히 돌아오시길 빌게요.”

아내의 말에 장군의 가슴은 눈물로 차올라 가족들을 부둥켜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름은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군자금으로 영릉의병진⁴⁾을 일으켰을 때 양반과 유생들도 지원했다 하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던 거야.”

4) 영릉의병진: 영해(경북)과 강릉(강원도)를 중심으로 신돌석 장군에 의해 결성된 의병 조직



그림 • 임재범

장군은 수천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영해, 영덕을 중심으로 인근 의병과 연합하여 경상도, 강원도까지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일본군에게 큰 손해를 입히면서 쫓겨 다니기도 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백산 호랑이가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신돌석 장군의 용맹에 놀란 일본군은 그를 ‘나는 호랑이’라 부르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장군의 나이는 스물아홉 살이었습니다.

바람은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평민 신분의 의병대장으로 나라를 위해 활동한 성과도 엄청나지 않았겠어?”

바람의 말에 끄덕이던 구름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위해 울진군에 통신장비를 설치했잖아?”

“맞아, 전선 작업을 하던 일본군을 혼낸 뒤 전신주 여러 개를 뽑아 패대기치고 사라졌다고 해.”

바람은 전신주를 뽑는 흉내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나라를 걱정하며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 찾았던 태백산의 천제단⁵⁾으로 날았습니다. 장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곳에서 신돌석 장군이 흰 말을 잡아 나라를 위해 기도를 올렸는데 그때 하늘이 너무 감동하여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태백산 주변 사람들이 대한독립을 기원하던 장소이기도 해.”

“의병 동지들! 구국 항쟁에 정말 수고가 많소! 지금은 일본군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 잠시 고향에 내려가 부모형제 처자식을 돌보며 지내길 바라오! 따뜻한 봄날에 연락하겠소. 우리 그때 다시 만납시다!”

신돌석 장군의 의병 활동은 계속되었으나 일본군의 끈질긴 추격을 감당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면서 의병을 해산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깝게 지냈던 부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의 사정이나 들어봅시다.”

부하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나라의 앞일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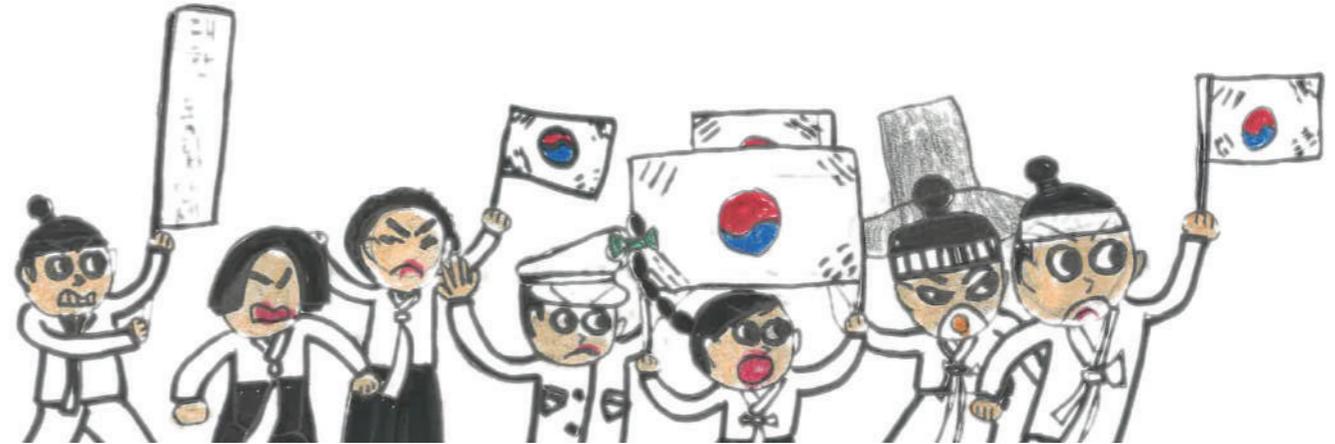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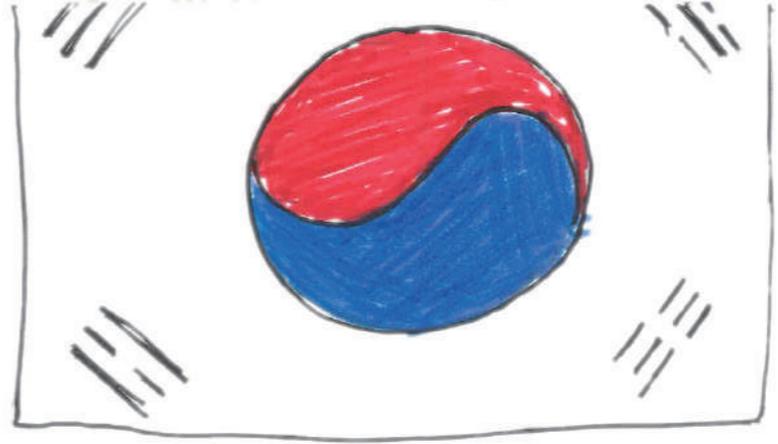


그림 ● 이효재

웬 날벼락입니까? 일본군이 신돌석 장군을 붙잡기 위해 내걸었던 현상금에 눈이 어두운 부하에 의해 무참하게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믿어 왔던 부하로부터 변을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서른한 살의 나이로 허망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장군과 함께 활동해 온 의병들은 가슴을 치며 몇 날을 슬퍼했습니다.

망골이라는 마을의 옹기장수 할아버지가 신돌석 장군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옹기를 전부 깨버리면서 큰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가 없었다라면 항일 역사와 대한독립 운동에 큰 변화가 있었

^{5) 천제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에 있는 제단으로 하늘을 숭배하는 의식의 장소

을 거야.”

말을 끝낸 구름은 바람과 함께 원통하게 돌아가신 장군의 생각을 둘러봅니다. 초가 담장 너머 그날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 온 청석바위⁶⁾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신돌석 장군이 돌아가신지 몇 년 후 우리나라는 일본에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후 장군의 항일정신을 이어받아 3.1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수천 명의 만세 소리가 천지를 흔들며 놓은 ‘영해시장 3.18 만세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말합니다.

“진정 애국이 어떤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 준 외로운 장군이었어. 이제 그 후예들이 ‘외로운 별, 태백산 호랑이’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때가 된 것 같아.”

감동 속에 빠져있는 바람이 말합니다.

“맞아, 장군의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나라의 힘을 키워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짐을 덜어드리는 거야.”

은은하고 투박한 질그릇 향이 풍겨오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이 곳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던진 애국지사들이 많은 곳으로 분명히 다른 기운이 느껴져.”

구름은 강한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구름과 바람은 가만가만 도곡 2리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귀를 기울여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웃기도 하

⁶⁾ 청석바위 : 신돌석 장군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놀곡마을 근처 골짜기에 있는 청석바위에서 순국하였다고 전해짐

고 함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를 해주는 광경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나라사랑 기운이 가득한 이곳에 사는 것도 행운이야. 고된 시집살이 잘 견디고 아들딸 모두 잘 키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모두 장군님의 은덕이 아닌감?”

연세가 지긋하신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에 한바탕 웃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겪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열다섯 살 무렵에 신돌석 장군의 묘를 이장하는 걸 구경했어. 그때 불을 피웠는데 다 타버리고 이빨만 남아있기에 언뜻 보니 보통 사람들 이빨 보다 훨씬 크고 굵어 보였어.”

장군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매년 유월이 오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신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유적지 내 ‘충의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쉽게 달래지 못한 구름이 말합니다.

“신돌석 장군의 생가와 공원, 기념관 등 유적지를 잘 가꾸어 오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구름과 바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높이 날아오릅니다.

푸른 바다 어촌을 지나 물소리 맑은 산촌을 지나서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주저리주저리 이야기가 열려있는 곳으로 한없이 날아갑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하길 약속해요. 안녕.”

● 이 이야기는 영덕군 축산면 도곡2리에서 태어난 신돌석 장군에 대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와 일본군을 상대로 펼쳐진 의병 활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나라가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영덕지역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해 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태백산 호랑이’로 더 알려져 일본군에게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우리나라 독립 만세운동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돌석 장군의 업적과 유적을 잘 가꾸어오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Interview

도곡2리

마을장소 축산면 도곡2리 마을회관 인터뷰어 신문기, 이옥순
 참여자 권남희, 김봉규, 김순이, 김연희, 김지수, 남혜옥, 류수영, 백문자, 신일섭, 안춘면, 양민임, 이중락, 전경숙, 조순녀, 주경숙, 주정순, 최영록, 허인숙, 홍승오

도곡2리 마을이야기

신돌석장군 관련 이야기

- 대한제국 말기의 평민 출신 항일 의병장으로, 을미사변과 을사늑약 이후 경상도 강원도 일대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며 활약한 신돌석 장군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다.
- 장군에 대해 내려오는 얘기로는 어릴 때부터 몸집도 크고 후루막(두루마기)이 뒤로 날릴 정도로 걸음이 빨랐다고 한다.
- 신돌석장군이 공부하던 자리가 아직도 있다.
- 15~16살 때 신돌석 장군 묘를 이장하는 걸 구경했었다. 그때 불을 피웠는데 주변에 나무가 없어서 불이 안 퍼져 나갔다. 다 타고 이빨만 남았는데 그 이빨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고 굵었다.
- 100일 기도를 드리러 돌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경사가 심해서 사람이 서서 못 올라갈 정도다.
- 개구쟁이라고 소문났었다. 마을의 장독대 다 깨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다.

옹기

- 흙토(土), 골곡(谷)이라서 도곡마을이라고 하고 옛날부터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
- 쪼대흙이라고 도자기 만드는 흙이 아주 많이 있다. 즉 참흙이 많다는 뜻이다.
- 갈탄이라는 흙이 나오는데 갈탄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갈탄을 캐서 도자기를 만들었다.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떠난 후에 도곡 2리에 만골촌이라고 옹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옹기공장이 3개가 있었다.
- 도곡에서 나오는 흙이 모자라서 흥해 곡강에서 백토를 가져왔다. 백토는 손으로 비비면 매끈한 게 찌거기가 하나도 없는 최상품 흙이었다. 청자를 만들기도하고, 화장품 원료도 사용했다.
- 옛날에는 그 백토로 벽에 1년에 한 번씩 발랐는데 요즘으로 치면 도배이다.
- 옹기를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하러 다니는데 소달구지(소나 말의 힘을 빌리는 짐수레)에 싣고 다녔다. 옛날 영해부사 시절에는 여기밖에 없어서 존재감이 대단했다.

기타

- 여름이면 농사철이라 농사짓고 겨울이면 낮에는 나무하고 저녁에는 새끼를 꼬아야 했다.
- 수박 서리를 딱 한 번 해봤는데 앞에 다른 형들은 안 걸렸는데 내가 할 때 걸렸다. 그래서 동장이 거기 있던 애들 이름을 다 불러서 잡혔다. 주인집에 5천원 씩 물어줬는데, 그 집주인 분이 그 돈으로 게 한 마리 사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

개인이야기

백문자 어르신 이야기

시집 오기 전, 중학교까지 나올 정도로 친정이 잘살았다. 21살 가마 타고 시집왔는데 너무



촌동네라 매일 울었다. 친정에는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바로 밥하고 빨래하고 다 가능했는데 여기는 산에 나무도 없고, 물도 멀리 도랑까지 가야 해서 도랑에서 물 길어다 먹고 빨래를 했다.

이 마을 땅이 물기가 없으면 돌처럼 푹푹 뭉쳐지는 땅으로, '쪼대땅'이라고 불렸다.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어서 쌀이 별로 없었다. 기계를 돌리면 흙이 돌처럼 돼서 날아다니면서 사람 다리를 때려서 멍이 들었다.

쌀이 없어서 시레기에 오만 잡곡을 다 넣어서 소죽처럼 먹었다. 곡식은 잘 없고 거의 시레기 밖에 없는 밥을 먹으며 살았다.

큰아들이 입이 까다로워 밥을 잘 안 먹는데 할아버지 밥은 쌀밥이고 다른 식구들 밥은 보리밥이라 아들이 할아버지 쌀밥이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 식사 끝날 때까지 눈치만 보다가 할아버지가 남긴 걸 먹고 자라서인지 많이 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조순녀 어르신 이야기

시집왔더니 너무 못살았다. 하루는 밖에 키우던 소가 집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집이 다 부

서졌었다. 갑자기 집이 없어져서 한동네에서 여덟 번이나 이사하기도 했다.

남편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몸에 좋은 오만 가지를 다 써봤다. 그러다 개울가에서 골뱅이를 잡아 막걸리랑 소주랑 골뱅이를 한 술에 넣고 하루종일 달여 먹었더니 기침이 덜했다.

류수영 어르신 이야기

친정 동네가 삼계인데 딸 부잣집이라하면 다 아는 딸 여섯에 셋째 딸로 자랐다. 신랑 될 사람이 외동이라서 먹는 거는 걱정 안 할 거 같다고 시집갈 생각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시집 보냈다.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싸여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별난 사람이었다.

친정에서 밥 한번 안 해봤는데 억지로 시집와서 밥을 하려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힘들었다. 옛날 집은 안방과 부엌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어른들은 방에서 밥하는 거를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할 줄은 모르고 밥을 한 번하는 데 밥솥을 수 십번 열어볼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김장, 묵 만들기 등 너무 많은 것들을 시켰고 눈물로 살았다.

여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다가 집에 돌아가자고 엄청 울었다.

시어머니가 술을 좋아하셔서 한번은 술이 너무 취해 집에 못 오신다고 데리러 오라고 해서 붙잡고 돌아오다가 도랑이 있는 데서 붙잡은 손을 놔버렸다. 시어머니가 도랑에 빠졌는데 솔직히 속이 시원했다.

너무 힘들어 하루는 마을에 있는 못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밤에 훌린 듯 그곳에 신발을 벗어두고 두 걸음 정도 들어갔다. 그때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집에 가는 담에 쓰러져있었다. 그때부터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담배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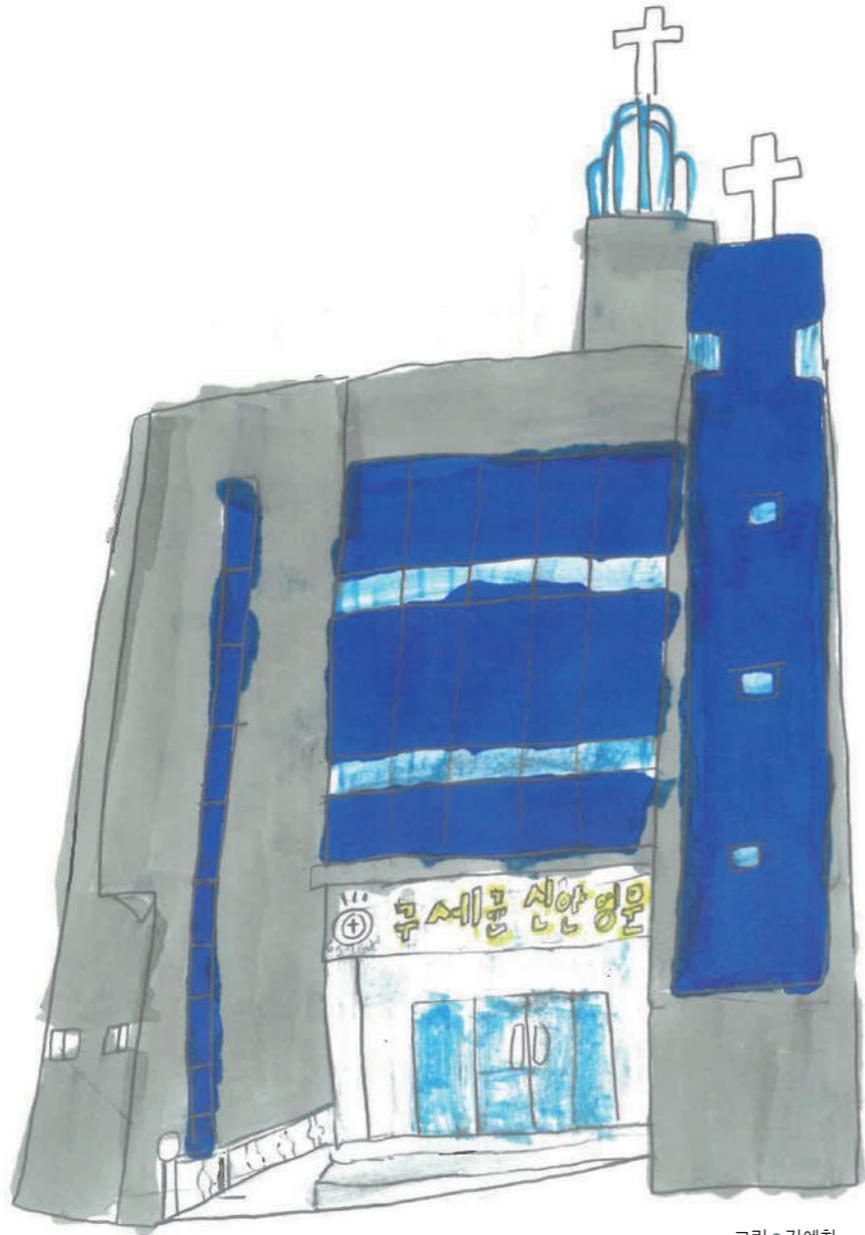


그림 ● 김예찬

있지요.

처음 예배는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도 저는 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으니 외롭지 않나구요? 바람이 소식을 전해주고 새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가끔 심심할 때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내곤 해요.

탱그러엉 탱그러어엉.

종소리가 울리면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기도를 한답니다.

오랫동안 높은 곳에 있으니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지요. 황장재로 넘어가는 오솔길에 신작로³⁾가 생기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세군 교회에서 전쟁고아를 위해 고아원을 만들 때도 있었지요. 가장 좋았을 때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였어요. 저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눈치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나무라기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맑고 우렁찼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오늘은요, 전쟁이 있었던 해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꼭꼭 숨겨두었던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 마을은 교회가 들어온 덕분에 다른 곳보다 일찍 새로운 문물⁴⁾을 받아들였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절대 자를 수 없다고 저항할 때, 마을 사람들은 깔끔한 차림으로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왔으니까요. 부모님들은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외국 이야기에 귀를 쫓긋했고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3) 신작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새로 낸 길 ^{4) 문물}: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등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이르는 말 ^{5) 술선수범}: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

마을의 청년들은 정의롭고 술선수범⁵⁾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청년들 중에 행동이 반듯하고 말수가 적은 세영은 믿음이 강했어요.

세영이 어릴 때 일이에요. 세영의 아버지는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음식을 먹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한일병합조약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식민지로 삼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린 세영



그림 ● 김도연

은 온몸으로 부딪쳐서 잠근 문을 열었어요.

“나라 없는 땅에서 수치스럽게 살 수 없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운 없던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질 날이 올 거예요.”

아버지는 어린 세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매일 예배당에 나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시간에 맞춰 종을 울리는 것도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저는 청아한 소리가 멀리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껏 흔들렸어요,

댕그렁 댕그렁.

종소리가 오십천변들에 울려 퍼지면 약속이나 한 듯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일본 경찰은 세영 아버지와 청년이 된 세영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을 벌일까 의심부터 했지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때리고 쫓아내기도 했어요. 겁을 주기도 하고 못 박은 좁은 공간에 가뉘 억지로 기도를 시켰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못에 찔려 피가 났어요.

일본 경찰은 그 모습을 보고 재밌다고 막 웃어대다가 저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더 모아서 괴롭히려는 거죠. 저는 참다못해 곱고 은은한 종소리 대신 이런 소리를 들려줬어요.

‘테테테테테테’

저의 욕하는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예배당에 모이지 않았답니다.

일본 경찰의 감시가 점점 심해졌어요.

예배당 일을 돕던 세영은 아버지의 권유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더 많이 배워서 큰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뜻이었지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 없

는 세영은 두려웠어요.

세영은 떠나기 전날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먼 길 떠나는 세영에게 말했어요.

“넓은 곳을 보고 큰 뜻을 품거라.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 얼⁶⁾을 빼앗길 수 없다.”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넣어주었어요.

세영은 1919년 3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갔어요. 서울은 조용하던 고향과 아주 달랐어요. 사람들이 골목에서 힘차게 쏟아져 나왔어요.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어요.

“대한 독립 만세!”

상투 튼 어른이나 꼬지머리 아이 할 것 없이 가슴속에 숨겨온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만세, 만세, 독립 만세.”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이 괴롭혀도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소망은 한가지였어요. 우리가 자주독립국⁷⁾임을 알리는 것이죠.

세영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은 노신사 한 분이 한 손에 들었던 태극기를 나눠주었어요.

세영은 어느 틈에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만세를 불렀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목

6) 얼: 정신 7) 자주독립국: 다른 국가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주권을 가진 나라

청껏 소리쳤어요.

“일본은 물러가라. 대한이여 영원하라.”

붉게 물든 석양이 하늘 가장자리에 걸렸어요. 세영은 가슴이 벅차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때였어요.

탕! 탕! 탕!

천지를 울리는 소리가 들리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쓰러진 사람들 가슴에서 석양처럼 붉은 피가 솟구쳤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를 불렀어요. 일본 경찰은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사냥하듯 총을 쏘아댔어요. 무기도 없이 태극기만 흔들었던 힘없는 대한 사람들은 쓰러진 위에 또 쓰러졌어요. 무서웠지만 아무도 흠어지지 않고 끝까지 항거⁸⁾했어요. 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붉은 해를 보며 결심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 돌아가서 서울의 일을 알리자.”

집으로 돌아온 세영은 예배당 종을 세차게 흔들었어요.

저는 목청껏 소리내었지요.

“세영이가 돌아왔어요, 모두 모이세요. 땡그러영 땡그러영.”

세영의 마음이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차게 울렸어요. 종소리를 들은 사람

8) 항거: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함

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어요. 평소 말이 없던 세영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서울,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비폭력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독립 만세 운동에 동참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토를 빼앗기고 봄마저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모든 것을 앗아간 일본에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의기에 가득 찬 마을 청년들은 세영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했어요.

세영은 구세군낙평영문 참위⁹⁾였던 권태원과 영덕 지역 만세 운동을 계획했어요.

그들의 뜻은 순식간에 영덕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저녁이면 예배당에 영덕의 청년들이 모여 들었어요.

“우리 지역은 3월 18일 영해 시장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합시다. 동해안에서 규모가 제일 큰 영해 시장에서 시작하면 경북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송천 예배당 조사¹⁰⁾였던 정규하가 말했어요.

“좋아요. 명망 있는 향반¹¹⁾ 가문도 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애써 봅시다.”

낮선 청년들이 예배당을 드나들자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세영의 움직임이 수상하게 여긴 일본 경찰들은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어이, 세영. 고문을 당해봐야 다시는 꿈쩍 못할텐데.”

일본 경찰은 세영을 향해 겁을 주었어요.

저는 두려움을 참으며 조용히 속삭여 주었지요.

“잘하고 있어. 너의 뜻대로 해. 땡그러엉.”

^{9) 참위}: 구세군 계급의 하나 ^{10) 조사}: 장로교에서 목사를 도와 전도하는 교직 또는 그 교직에 있는 사람 ^{11) 향반}: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여러대 벼슬을 못하던 양반

일본 경찰의 감시가 세영을 향하자 권태홍의 형은 자신의 집에서 만세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세영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책 읽는 시늉을 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만나지 않자 일본 경찰의 감시가 느슨해졌어요. 만세를 부르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영은 친구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을 읽게 했어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세영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밖에서 잠긴 문을 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예배당에는 만세를 부르기도 한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영은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는 예배당에서 가슴에 품고 온 태극기를 꺼냈어요.



서울에서 받아온 태극기였지요.
잔잔한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세영과 청년들은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태극기를 완성한 청년들은 소리 없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손에서 하나둘씩 태극기가 흔들리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극문양이 그려진 수천 장의 태극기가 완성되었어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영해장터까지 옮기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세영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배당 나무의자에 앉아 간절히 기도할 때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면서 보부상 한 명이 들어왔어요.

“목숨 걸고 황장재를 넘는 우리 보부상은 여태껏 의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보부상이 태극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도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세영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3.18만세 운동 준비는 신분, 종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참여한 독립 운동이었지요.

잔잔한 파도가 여러 번 몰려오다 큰 파도 되어 덮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에 만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일본 경찰의 감시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마을 사람 둘,셋만 모여 있어도 몽둥이로 때렸어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 만세 불렀다고 잡아갔어요.



그림 ● 김예찬

모진 고문을 겪어도 3.18만세 운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3.18 만세 운동을 하루 앞둔 날 아침이었어요.

세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당 마당에 서서 차분히 숨을 세 번 내쉬었어요.
어젯밤 집에서 만들어진 태극기를 철탑 아래 감춘 후에 종을 쳤지요.

저는 세영의 뜻에 따라 비장한¹²⁾ 소리를 내었어요. 하늘 가까이에서 내는 결연한¹³⁾ 소리가 널리 널리 퍼졌어요. 그 소리는 의기에 넘치는 희망찬 종소리였어요,
댕그렁 댕댕, 댕그렁 댕댕, 댕그렁 댕댕.

세영의 손이 오랫동안 저를 잡고 흔들어 주었어요.
만세 운동 전에 마지막 예배가 열렸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어요.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당에 몰려온 일본 경찰들은 나무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난동을 부렸지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종을 울린 죄로 세영을 잡아갔어요.
저만 아는 비밀인데요.

세영이 말해주었어요.
만세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세영이 먼저 잡혀야 한대요. 세영이 일본 경찰의 눈을 따돌리려고 종을 친 거예요.

예배 시간이 훌쩍 지나 등근 해가 철탑 위를 지나갔어요. 신호를 한 듯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배당 뒷문으로 들어갔지요. 그들은 철탑 아래 숨겨둔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올렸어요. 만세 운동의 성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세영의 지혜로 만세 운동 성공을 기원하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3월 18일 아침해가 조용히 떠올랐어요.

12) 비장하다: 슬프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씩씩하고 장한 13) 결연하다: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있어 태도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확고함

영해는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영덕 곳곳에서 영해시장으로 몰려들었지요. 일본 경찰의 관심은 오로지 세영에게 있었어요. 세영이 움직여야 만세운동이 일어날 거라 믿고 있었지요. 세영을 붙잡아 놓았으니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영해장터에서 시작된 만세 소리가 온 동네를 뒤덮었어요.

그 소리는 메아리를 타고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저는 영해 바다를 향해 눈물을 흘렸어요.

구세군낙평영문 참위 권태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는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 독립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밝은 명령으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만세.”

놀란 일본 경찰은 총으로 만세운동을 막았어요. 흰웃은 입은 마을 사람들은 총을 맞고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총을 쏘고 몽둥이로 때려도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소식을 들은 영덕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만세 운동에 동참했어요. 매일 인사를 나누었던 마을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어요. 며칠동안 영덕은 만세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권태원이 잡혀가고 정규하가 옥에 갇혀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답니다.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슬프고도 아름다운 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만세를 불렀지요. 일본 경찰은 철타에 매달려 있던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쳤어요. 흙투성이가 되어도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3.18 만세 운동이 파도처럼 밀려가고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바닥에 내쳐져 소리를 낼 수 없었지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 없어서 마음 아팠지만, 저의 걱정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뜻을 한데 모아 용기로 맞섰던 그날 일이 쉽게 잊혀질까 그것이 걱정이랍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영과 마을 사람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저의 종소리가 궁금하시다구요?

우리 마을 예배당으로 놀러 오세요

데땡 데땡 데땡.

이번에는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 이 이야기는 지품면 낙평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동화입니다. 이 마을에는 120년 된 낙평교회가 있습니다. 낙평교회는 1919년 들불처럼 일어난 3.18 독립만세 운동 계획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3.18 독립만세 운동은 영덕군 곳곳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만세운동으로 영덕군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Interview

낙평리

마을장소 지품면 낙평리 마을회관 인터뷰어 신문기, 이정희
 참여자 강천수, 김순자, 김준호, 김창호, 박복남, 박분순, 박성호, 배석만, 손혜숙, 신갑순, 신갑출, 신춘자, 이노미, 이정순, 임수도, 지형수, 천명자, 천의위, 최두리, 최병수, 최병윤, 최상분, 최상봉, 최의위

낙평리마을이야기

지역

- 낙평교회는 영덕 지역 3.18독립만세 운동 계획의 중심지였다.
- 권태홍씨의 형 집이 낙평 3·18운동 시초가 됐다. 3·18만세 운동 의논한 자리가 지금도 있다.
- 마을 하나에 낙평교회, 구세군 낙평교회, 류천교회가 있음.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구세군으로 나눠졌다.
- 지금은 교회터가 집터로 바뀌었고 최가집 교회에서 시작했다. 교회에서 침대도 만들어 주고 시루떡도 해주기도 했었다.
- 마을에 고씨터, 최씨골목 등이 있다.
- 비석거리: 병자호란 이후에 비석을 중심으로 진모현, 영덕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지금은 비석 없어졌다.
- 막골에 3m되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맞으면 피부병(여드름, 땀띠 등)이 사라진다는 설이 있다.

출산

- 옛날에는 다 집에서 출산했고, 어르신들이 아이를 받아줬다.
- 임신하면 배가 나오니 부끄러워했다.
- 아이가 나오면 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아기 쪽 태와 엄마 쪽 태, 양쪽을 실로 묶고 나서 자른다. 자를 때는 한 뼘 정도 여유를 두고 자르면 볼일을 잘 본다는 얘기가 있었다.
- 아기가 나오고 태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배를 문질러 빼내기도 했다. 태가 안 나오면 탯줄을 산모 발가락에 묶어두고 기다리기도 했다.
- 산모의 어르신들이 아이를 놓고 삼칠일(21일) 안에 산파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다.
- 옛날엔 쌍둥이도 많이 없었다. 당시엔 아이 생겼다고 병원을 가서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낳기 전까진 쌍둥이인지도 몰랐다.
- 한 산모가 한 아이를 놓고 다들 숨을 돌리는데 아직 라면 같은 게 꼬물거려서 다들 뭔지 몰라 한참을 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이가 머리부터 나와야 하는 데 거꾸로 돌아서 발가락이 밑으로 와서 라면처럼 보였던 것이다.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배를 누르고 해서 두 번째 아이를 결국 꺼냈는데 탯줄을 목에 3번 정도 감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오래 살진 못했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세끼 다 먹여줬다.
-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40~50명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 구세군 교회 사관이 운영했다.
-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남녀가 자주 만날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연애하기 쉬웠다.
- 천목사(사관)가 아프고 굶주린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서 먹고 자며 교육도 시켜줬다.
- 구세군에서 생수 공급을 한다.



농사

- 해방 전에 벼, 보리농사 지었고 해방 이후에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 벼, 보리농사 → 담배 농사 → 마늘 농사, 과수(사과), 복숭아 농사 시대 변화에 따라 맞춰서 농사를 지어왔다.

전쟁

- 영덕~안동 길이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로여서 군사 도로로 사용되면서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

장례 및 부조

- 사람의 시체를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인 '상여'는 원래 나무 소재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거워서 점점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 행상 : 상여의 경상도 사투리
- 행상골(창고)에 목상여가 없어지고 쇠파이프 행상은 20년 되었다. 행상을 멜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행상을 메지 않은 지 20년 다 되어간다.
- 상여를 메고 갈 때 사람들이 사례로 돈 같은 걸 주기도 했다. 안가는 척하면서 더 받아내고 그랬다.
- 굶은 제복(상주 옷, 짚으로 새끼 꼬아서 만듦) 화장실 앞에 나무 상자(병막)을 만들어주고 대나무 꼬고 넣어뒀다.
- 축하할 일 있을 때(결혼 등)는 상포계(부모父母·본인[己]·아내[妻])의 사상四喪에 부조하는 것이 목적)에는 밀주, 감주를, 초상 같은 때는 흰죽, 팔죽을 썬서 부조했다.
- 곡식으로 축의금(보리쌀, 콩나물, 쌀)을 내기도 했다.

음식

- 쌀이 없어 쌀 조금에 산나물을 많이 넣어서 산나물 죽을 많이 해 먹었다. 그래서 고급 나물이라고 해도 나물엔 손도 안 댄다.
- 봄 되면 침을 캐다가 녹말을 빼서 침떡을 해 먹었다. 지금이야 맛있고 귀한 음식이지만 그땐 너무 싫었다.
- 송이버섯을 사리 꼬챙이를 만들어 거기에 끼워서 들고 왔다. 그리고 고추장에 담귀서 고추장장아찌처럼 해 먹었다.
- 중국에서 온 대두박(콩)으로 콩기름 짜서 떠먹었다.
- 바닷가 사람들이 생선, 젓갈 등을 머리에 이고 와서 쌀, 조, 수수 등 곡식으로 바꾸어가는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놀이

- 정월대보름에 안모태, 실리모태 두 편을 나눠서 놀았다. 3~4일 전에 새끼를 꺾어서 줄을 만들었는데 여자들이 밟고 지나가면 부정이 탄다고 해서 따로 보관했다. 전날에 동채(차전 놀이 할 때 쓰는 물건)를 만들어 행사를 했다.
- 4~5일간 풍물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기금 조성했다.

생활

- 삼, 누에, 문종이(창호지)- 매미 태풍에 사과, 포도, 서숙(좁쌀), 감자로 주로 먹고 살았다.
- 중신애비(중매쟁이)통해서 결혼 많이 했다.
- 교회 덕분에 신문물이 빨리 들어와서 교육열이 높았다.

생수 변천사

- 두레박으로 우물 물을 퍼서 마셨다.
- 따베(따배기, 짚으로 만듦)를 머리에 이고 웅기 버지기(자배기보다 조금 깊고 아가리가 벌어진 큰 질그릇) 양철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날랐다.
- 조금 개발돼서 계곡물을 정수한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 먹다가 4.19혁명 이후에는 지하수 파서 물을 먹을 수 있었다.
- 지하수를 파고 나서 집집마다 손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 땅을 4~5m 파야 해서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힘들어했다.
- 우물이 필요 없어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묻어버렸다. 남아 있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 계곡 물로 머리를 감으면 그래도 부드러웠는데 지하수로 씻으면 머리가 뽕뽕했다. 알고 보니 지하수에 석회석 성분이 많은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구세군에서 공급하는 생수를 마신다.

개인이야기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

강원도의 친척 언니 집에서 우연히 군인을 만났었다. 그 이후 이정순 어르신의 본가인 부산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지품면 낙평리로 혼자 찾아왔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돌길을 지나, 보리밭을 지나 모퉁이를 돌아 멀리서 그 남자를 봤지만 다시 집에 가려고 돌아섰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너무 안 와서 그 사이에 그 남자가 내가 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찾아왔다. 그러더니 가방을 뺏어 자기 집으로 들

어가 버렸다.

그렇게 집에 얼떨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못사는 집이었다. 가방을 안 줘서 한 달을 그 집에 있었는데, 친가에서 전보가 와서 부산으로 돌아갔다. 날을 잡고 연락준다는 남자는 3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알고 보니 결혼할 돈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한 것이었다. 그렇게 겨우 결혼하여 딸도 놓고 잘살았다.



옛이야기 | 석리

동화

별하늘을
품은
어머니

글 조종문
그림 원황초등학교 김우영, 엄우진, 황진원

인터뷰

석리

인터뷰어 이정희, 오정민

별하늘을 품은 어머니

- 조종문

민규는 이제 일곱 살입니다. 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한 부모 가정 아이입니다.

민규 아빠는 날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부였지요.

배질¹⁾을 나갈 때는 매일 그날의 새벽하늘 구름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후, 마을 사람들과 돛단배를 타고 석리와 축산항 죽도산 사이에 있는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곤 했습니다.

민규가 네 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민규 엄마는 이른 새벽부터 배질을 나가는 아빠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꼼꼼하게 꾸러서 아빠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보, 민규 아빠요, 오늘도 잘 챙겨오이소.”

“알았다. 맨날 나가는 배질인데 뭘 그리 걱정하노.”

엄마는 그날따라 아빠가 좁다랗고 비탈진 석리 마을 내리막길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석리 마을 집들은 마치 큰 바위에 따개비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서로 등을 기대어 웅기중기 모여 있다고 하여 사람들은 ‘따개비 마을’이라고



그림 ● 황진원

부르고 있으며 마을 골목은 모두 산비탈을 깎아서 터놓은 길입니다.

민규 아빠는 배질을 나가는 선원²⁾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젊어서 조업³⁾을 하는 동안 힘든 일은 언제나 도맡아서 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동철아, 그쪽에 있는 큰 밧줄을 이리도 펴뜨 넘겨라 했는데 뭐 하노?”

“예, 알았니디.”

“뭘 그래 자꾸 꾸물대노?”

돛단배 선주⁴⁾가 버럭 화를 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 배질: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

2) 선원: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작업 3) 조업: 고기잡이를 하는 배의 주인 4) 선주: 고기잡이를 하는 배의 주인



그림 ● 엄우진

그날도 선주가 다급하게 동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민규 아빠입니다.
 경정리 앞바다에 배질을 나간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척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파도마저 작은 돛단배를 단숨에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여보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를 꼬옥 부뜨러라, 알았나?”
 “.....”
 선주가 고레고레 큰 소리로 외쳤지만 선원들은 서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 풍랑: 바람과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 6) 파손: 물건 따위가 심하게 부서져서 못 쓰게 된 것 7) 실종: 사람이 알 수 없게 사라진 것 8) 저인망어선: 원뿔형 그물로 바다의 고기를 잡는 큰 배 9) 물질: 해녀가 바다에 나가서 조개, 전복 따위를 건져 올리는 행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센 풍랑⁵⁾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석리 마을 바닷가 모래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규 아빠 소식은 모르다며?”
 “우째 이런 일이 다 있노……”
 “아이고 우짜면 좋노.”

바닷가 모래밭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숨을 내쉬면서 어제 경정리 앞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일어난 일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주고받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조업을 나갔던 돛단배가 풍랑을 만나 배가 바위에 부딪쳐서 파손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원 다섯 사람 가운데 민규 아빠만 실종⁷⁾이 되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저인망어선⁸⁾을 만나서 겨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민규 아빠는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석리 앞바다 용바위 근처에서 발견되어 조출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후, 민규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물질⁹⁾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었답니다.

석리 뒷산에 진달래가 밟그스럼하게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규가 태어나서 여섯 번째 맞이하는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바다에 물질을 하고 오신 할머니와 엄마는 마당에서 해산물을 손질하면서 주고받는 말을 방 안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던 민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민규 애미야! 니도 인제는 젊디젊은 나이에 혼자 살지 말고, 어디 좋은 사람 있으면 나가서 살아도 된다, 민규는 내가 잘 키울께.”

“어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레 하닝교, 싫니더. 당치도 않는 말이시더.”

“아이다, 애미야! 마을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다. 나는 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멀리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면 내는 보내줄까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래 하닝교, 아들 민규가 저렇게 잘 커가고 있는데요. 당치
도 않는 말 하지도 마소 고마.”

민규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을 귓전 밖으로 들은 것처럼
부리나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규는 여섯 살이지만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의 내용은 대체로 이해할 수 있었답
니다. 민규는 그날 이후, 어린 아이였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민
규는 언제나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속상해 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언행¹⁰⁾에
조심을 하였습니다.

석리 앞바다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은 따뜻한 봄빛이 되어 마을을 빗질하듯 곱게
내리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규 애미야! 오늘 물질하기 참 좋은 날 같다. 얼른 나오너라.”

할머니는 물질에 필요한 물옷¹¹⁾과 태와¹²⁾을 준비하시면서 엄마를 재촉했습니다.

“예. 어머님요,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식구가 먹었던 밥그릇을 서둘러 씻은 후, 마당에 계시는 할머
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규 어머니는 시어머니¹³⁾인 할머니와 여전히 물질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그
리고 겨울을 보내며 민규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여름밤이었습니다. 민규 어머니가 마당에서 옥수수를 삶고
있을 무렵, 민규는 살평상에서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말했습니다.

“할매요!”

10) 언행: 말과 행동 11) 물옷: 물속에 들어갈 때 입는 해녀가입는 옷 12) 태와: 해녀가 자맥질 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을 뜨게 하
는 뒤용박 13)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왜?”

“할매,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소.
아무 이야기나요.”

마당에 피워 놓은 모깃불 연기가 할
머니 무릎을 베고 누운 민규의 얼굴 위
로 살짝살짝 스쳐 가고 있었습니다.

“할매요, 뭐 하닝교, 퍼뜩 이야기 하나
해주소.”

민규는 할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오냐, 알았다.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야 하제……”

“아무거나 해주소.”

“오냐, 알았다. 그러든 우리 똥강아지한테 무슨 예길 해야하노?”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름밤 더위를 씻어내는 시원한 파도 소리가 살평상까지 들려왔습니다.

“할매요, 뭐하닝교?”

“그러든 이 할매가 처녀 시절 때, 동네 처녀 총각들이 데이트 한 거 얘기할게.”

“네, 좋아요.”

민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무조건 좋다고만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

민규는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사이, 어머니는 삶
은 옥수수 한 소쿠리를 살평상에 내려놓으며 민규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할매가 처녀 시절 때는 동네 총각하고 서로 눈이 맞으면 데이트할 장소가 마땅



그림 ● 김우영

한 곳이 없어서 보리밭이나 뒷산에 있는 묘 옆에서 데이트를 했제.”

“할매요, 왜 하필 무서운 묘 옆에서 데이트를 했닝고?”

“그건 말이다, 혹시나 나이 어린 열라들이 처녀 총각이 데이트하는 걸 보면 안 되기 때문이었제.”

할머니는 멀고도 멀었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려는 기색¹⁴⁾을 보이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을의 처녀, 총각들이 한 방에서 어울려 놀 때는 방안 불빛이 밖으로 세나가지 말라고 이불을 창문에 치고 놀았다.”

“헤헤, 왜 이불로 창문을 가렸는데요?”

“그건 말이다. 처녀 총각들이 어울려 노는 것을 혹시 동네 어른들이 알까 싶어서 그랬제.”

“어른들이 알면 어땀어요?”

“동네 어른들이 알면 안 되제,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문도 나고…….”

“……”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민규의 얼굴을 뻘뻘 내려다봤습니다.

“민규야, 할매 얘기가 별로 재미없나?”

“……”

민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다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만치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할매요, 데이트 이야기 말고 또 뭐 없어요?”

14) 기색: 어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얼굴빛

민규는 엄마가 갖다 놓은 삶은 옥수수 하나를 손에 쥐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규가 다른 이야길 더 듣고 싶어 하는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림 ● 김우영

“그리곤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김장철만 되면 많은 배추를 어떻게 절어서 김장을 했는지 말해줄게.

“예.”

마당에 피워 놓은 모깃불은 조금씩 식어 가고 있었습니다. 곁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던 민규 어머니는 먹다가 남아 있는 옥수수를 들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와 민규는 여름밤 별뿔별 하나가 길다랗게 꼬리를 달고 내리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예전에 김장을 할 때는 보통 한 집에서 배추를 200~300포기씩 했단다.”

“아이고, 그 많은 배추를 어떻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 맞다, 요즘은 배추 서른 포기 정도밖에 안하제.”



그림 ● 김우영

할머니께서는 그릇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그 많은 배추를 바닷가에 들고 가서 바닷물이 모인 웅덩이에 30분 정도 담가 두고 배추 숨을 죽였다가 건져냈다.”

“할매요, 그라몬 파도가 치면 배추는 어떻게 돼요?”

“파도가 세게 치면 담가둔 배추가 떠내려가서 그걸 줍느라 혼이났제.”

“헤헤헤.”

민규는 파도가 쳐서 웅덩이에 담가둔 배추가 떠내려간다는 이야기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할머니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규를 불렀습니다.

“민규야, 이제 그만 들어오너라. 할매 피곤하시겠다.”

“그래, 민규야. 이제 그만 방에 들어가서 자라.”

할머니께서도 민규가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기를 원했지만, 민규는 할머니의 이야길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웃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가는 데 개 짖는 소리는 고요한 석리 마을을 바람처럼 쓸고 가듯 퍼져나갔습니다.

“민규야, 오늘은 이쯤하고 내일 또 얘기해줄게.”

“할매, 오늘 다 해주면 안 되나요?”

“밤이 너무 마이 깊었다. 그만 자로 들어가자, 민규야!”

“.....”

할머니는 민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민규가 적잖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할매가 이야기 그만한다고 해서 마음이 마이 안좋나?”

“예. 할매요, 예기 다 해주소.”

“오야, 오야 알았다.”

밤이 이슬¹⁵⁾할 때까지 할머니께서는 석리 마을을 살기 좋게 해달라고 바다의 용왕님께 감사제를 3년에 1번씩, 10년 동안 실시해 오다가 200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뱃신’ 이야기와 겨울이 되면 땀감이 부족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 조밥과 김치와 새끼줄, 그리고 낫을 준비하여 뒷산으로 갔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갈 무렵, 민규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잠들었네.”

할머니는 민규가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방에 있는 민규 어머니를 가만히 불러냈습니다.

“애미야, 민규 잠들었다.”

어머니를 보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입가에 미소가 얇게 지나갔습니다.

“네, 어머님요.”

방문을 열고 나오는 민규 어머니의 눈웃음과 할머니의 눈웃음이 마주치는 눈빛이 여름밤 별처럼 잠시 반짝였습니다.

민규 어머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곤히 잠든 민규가 잠에서 깨어날까 싶어서 두 팔로 민규를 가만히 안아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할머니는 조용히 지켜 보시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애미가 저렇게도 민규를 아끼고 좋아하는 걸 누가 말리겠노. 품 안에 있는 지 새끼¹⁶⁾데, 언감생심¹⁷⁾ 다른 남자 생각이나 하겠나.....”

15) 이슬: 깊어가는 밤 16) 새끼: 자식을 일컫는 사투리 17) 언감생심: 감히 바랄 수도 없음

그날따라 유난히도 맑고 푸르게 보이는 석리 마을 앞 바다 백사장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여름밤 별하늘을 따뜻하게 감싸며 수평선 너머까지 멀리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영덕읍 석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석리는 아주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마을 집들이 마치 따개비처럼 붙어 있다고 하여 지금도 '따개비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석리 마을 남자들은 예전에는 돛단배로 고기를 잡았으며, 여자들은 물질(해녀)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처녀 총각들이 보리밭이나 묘 옆에서 데이트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많은 배추를 바닷물에 담갔다가 김장한 이야기와 나무를 하러 갈 때는 조밥과 김치, 새끼줄, 낫을 준비해서 뒷산으로 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Interview

석리

마을장소 영덕읍 석리 마을회관 인터뷰어 이정희, 오정민
 참여자 구춘옥, 김경호, 김덕이, 김실광, 김영기, 김옥란, 김인숙, 김춘희, 김희담, 박병련, 박증자, 윤금자, 윤명기, 윤순남, 이미상, 이복순, 이장순, 임옥순, 임윤우, 전양자, 전춘자

석리마을 이야기

생활

- 예전에는 바닷가 내려가는 길이 없었고 산 너머 장 보러 다녔다.
- 애들은 중학교부터 영덕으로 유학시켜 자취를 많이 했다.
- 계단이 393개가 있었는데 방수포를 우의처럼 두르고 미역을 실어 날랐다.
- 냇가가 없어서 물이 귀했다.
- 옛날에는 마을사람 2/3이 해녀였다.
- 이 마을 사람들은 비탈길을 많이 걸어서 걸음걸이가 비탈길에 적응되었다. 그래서 평지를 걸으면 약간 저는 것처럼 보인다.
- 만선을 알리는 깃발이 없어서 윗옷을 벗어서 깃발 대신으로 흔들었다.
- 영해장보다는 영덕장으로 주로 물건을 팔러 갔다.
- 머리에 물건을 많이 이고 다녀서 정수리에 머리가 다 빠졌다.
- 땀감이 부족해서 나무를 하러 갈 때 조밥, 김치, 새끼줄, 낫을 준비해서 뒷산으로 갔다.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갈비(떨어진 나무)를 갈고리로 긁어서 가지고 왔다. 불쏘시개 역할

을 하는 갈비를 굽어모아 온 덕분에 산불이 나도 크게 번지지 않았다.

-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것을 품앗이(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갓고 하는 일)했다. 새끼 꼬는 기계를 들인 집에서는 밤새 새끼를 꼬아서 집집마다 초가를 엮었다.
- 초가지붕을 바꿀 때 조금씩 남기고 올리다 보니, 점점 지붕이 두꺼워졌다. 가끔 초가지붕을 교체하다 보면 새집, 뱀, 쥐가 살기도 했다.
- 통조림 깡통 안에 초를 붙여서 사용했다. 초가지붕 안에 새집을 구경하려다가 불이 나기도 했다.
- 축산에서부터 양동이에 기름을 받아 와서 팔았다.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서 그런지 쉽게 넘쳤다.

마을 행사

- 석리의 연례행사 2가지
 1. 빨래 : 지게에 지고 산 너머 냇가에 가서 빨래하는 것.
 2. 김장 : 배추를 바닷가에 들고 가서 바닷물이 모인 웅덩이에 숨을 죽였다. 파도가 세계 치면 배추가 떠내려가 줍느라 바빴다.
- 개선문 환송식 : 군대 가기 전날에 염소 서리해서 잡아먹으며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날이었다. 소나무로 개선문을 만들어서 입대 환송식을 했다. 월남전에 4명이 갔는데 객지에 살아서 환송식을 못 한 한 명만 돌아오지 못했다.
- 기우제 : 천지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일주일 뒤면 비가 왔다.

연애

- 동네 오빠한테 반해서 연애 결혼했는데 바닷가에 바위 틈에서 연애를 했었다.
- 보리밭, 묘 옆에서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주로 했다.



- 애들한테는 귀신 얘기를 해서 근처에 못 오게 하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 몰래 숨어서 데이트를 했다.
- 처녀 총각이 어울려 놀 때 불빛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불을 창문에 치고 몰래 놀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불을 걷고 들여다 보시면서 “어망이 터졌나?”하고 단속하셨다.

전설

- 용바위 전설 : 바다에서 용이 나와서 산으로 오르는 형태. 용이 지나간 발자국 모양이 있다.
- 옛날 이야기 중에 마을의 부장 할배가 살았는데, 도력이 있어서 마을회관에서 죽도산까지 나막신을 신고 가는데 물이 갈라졌었다는 전설이 있다.

6.25 관련

- 큰 바위 옆에 배를 뒤집어서 숨었으며, 식량으로 밀 볶은 걸 먹었다.
- 옛날 어머니들은 총알이 숨이불을 못 뚫는다고 생각해서 애들을 한곳에 몰아두고 숨이 불로 돌돌 싸서 보호했다.



- 6.25 때 아군과 북한군이 근거리에서 주둔해 있었다. 연기가 나면 총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낮에는 불을 때서 밥을 하면 안 됐다. 근데 아기를 낳은 집이 밥을 하느라 연기가 나니 사격의 대상이 됐다. 나중에 보니 방안에 7발의 불발탄이 있었다.
- 아군이 도망가면서 한 사람을 길잡이로 데려갔다.
- 배 밑에 숨어 있는데 막 때리면서 공격당했는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
- 아군이 퇴각하니 인민군 측에 선 동네 사람이 여자들 치마를 다 모아서 인민군 이불을 해주자고 했다. 동사무소에 모이라고 해서 인민군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다. 인민군 앞잡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당했다.
- 북한군들이 장담을 다 잡아 삶아 먹고 가버렸다.
- 천지산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군이 숨어 있었다. 아이들이 탄피 주우러 갔었다.
- 6.25 때 조사리로 피난을 갔다가 왔다.

제당 관련

- 안씨가 먼저 들어오고 김씨, 윤씨, 이씨가 들어왔었다. 김씨, 이씨가 제당을 같이 사용하고 윤씨 제당은 따로 있었다.

- 제당이 지금도 있긴 한데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음식

- 농사짓고(보리, 콩, 수수, 차조) 미역 말리고 벼농사도 지었다.
- 과거에는 농사, 바다일 둘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 동네였다.
- 곡식 넣는 창고를 도장이라고 했었다.
- 도박, 우뭇가사리로 떡을 해 먹고 삶아서 그 물로 시멘트 대신 바닥이 갈라지지 않도록 발라 주었다. 우뭇가사리로 목을 만들어서 먹었다.
- 물질할 때 말뚱, 성계, 전복, 천초, 미역을 잡거나 땀다.
- 진저리(바다해초)를 총총 썰어서 밥을 해 먹고 말려서도 먹었다.
- 못 팔고 남은 감자로 감자떡을, 툷 가시리로 떡, 천초로는 목을 해 먹었다.
- 보릿재(보리겨)로 국수를 만들어 먹거나 보리재떡(보리개떡)을 만들어 먹었다.
- 파배기처럼 손으로 비벼서 길쭉하게 만들어서 '보리간대기'라는 것을 해 먹었다.
- 석동각이 유명했다. 석동각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었다.
- 우럭, 놀래기, 고래치, 흑돔, 망상어 등등 작살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도 맑고 생선도 많이 잡혔다. 바위가 많아서 물고기들이 많아 어종이 풍부했다. 덕분에 잘사는 마을에 속했었다.

석리의 자랑 미역

- 모래 같은 것이 없고 돌밖에 없어서 미역이 깨끗하고 가격이 좋았다.
- 10월에 잡해초를 다 정리해야 1~2월에 미역 물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미역이 자란다.
- 예전에 비해 미역이 잘 안 자란다. (전에는 깨끗한 미역물이 들어와서 많이 자랐다)
- 미역 상인들이 미역을 사러 많이 왔고 석리 미역이 좋아서 다른 지역 미역이랑 섞어서 석리 미역이라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 넓고 납작한 바위들이 많았는데 미역씨를 심겠다고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들을 폭파시켰다. 근데 결국 도움이 되진 않았다.
- 짬 : 미역 나는 바다 돌(입찰로 탄다)

바다 관련

- 뱃신 :동네를 좋게 해달라고 하는 감사제이다. 3년에 1번, 10년에 1번 하다가 200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안 한다.
- 바다 중간 뜰에 배에 줄을 묶어두고 헤엄쳐가는 첫 번째 목표로 삼아서 수영을 배우고는 했다.
- 수영을 배워서 자유롭게 되면 수경을 쓰고 작살로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 바위 잡고 물장구 연습을 했다.
- 머구리질이 수익이 좋아서 많이 했었는데 불법이었다. 그래서 경비병이 오면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 외지에서 머구리 하러 왔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머구리 장비를 물안(바다)에 숨겨 놔다가 경비병이 가고 나면 다시 꺼내서 사용했었다.
- 태풍이 치거나 하면 방송으로 배를 올려 놓으라고 알려줬다. 그래서 배를 등에 지고 바위 위에 배를 올려두고 했다.
- 방파제가 없을 때 목돌(4명이 어깨에 바위의 네 귀퉁이를 이고 돌을 옮기는 것)을 해서 바위를 쌓아놓고는 했다.
- 어장의 그물이 큰 재산이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그물을 가져와야 하니 건져서 오기는 하는데 파도가 세서 배가 전복되는 일도 있었다.
- 마을 위에서 주민들이 태풍의 상태를 보고 수신호를 줘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 석리에서 노배(노 젓는 배)에서 조금 발전해서 돛단배로 죽도까지 고기 잡으러 갔다.
- 매일 아침 하늘을 보고 구름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고 날씨를 추측하곤 했다.
- 바다의 수평선에 구름이 몽글몽글 깔려있으면 파도가 세서 위험하다.
- 잡은 생선은 대야에 이고 영덕장에 가서 팔았다. 53년 전에 작전 도로가 나면서 생활이 좀 편해졌다. → 영석도로(영덕-석리길 도로)

개인 이야기

윤명기 어르신 이야기

- 24세 때 선달 그믐 양미리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는데 들어오는 배마다 만선이었다. 파도가 많이 치는데 양미리를 잡으려는 욕심에 배가 4척이 나가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한 마리 없었던 적도 있었다. 파도가 높이 쳐서 죽도산이 안 보이면 입항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주가 계속 고기를 건지자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못 잡겠다 하고 크게 다툰 후 입항을 하는 데, 물길 잘못 찾아 바위 위로 배가 올라갔다. 경정으로 올라가자는 사람들과 조금 때를 봤다가 파도를 잡아 들어가자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 노를 저어서 경정항으로 올라가서 배를 묶어뒀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달려 나갈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석리로 돌아왔는데 파도가 세게 쳐서 배가 틀어지면서 물에 빠졌다. 물에 젖은 방한복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파도가 오는 것을 봐가면서 모래를 기여 물으로 들어왔고 배도 파도에 밀려서 물으로 들어왔다.
- 타고 있던 배를 다른 배가 들이받아서 배가 부서지고 허리띠 달린 장화를 신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는 배에서 쇠꼬챙이로 건져줬다. 낚시 배에서 빠진 것을 구해주신 것을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해서 갈 때마다 담배 한 보루씩 선물했다.

동화

흰 모래 해변 - 하저리 사람들

글 최정연
그림 강구초등학교 성예나, 손주희, 최예은

인터뷰

하저리

인터뷰어 권효진, 이옥수

흰모래 해변 - 하저리 사람들

- 최정연

애들아, 안녕. 나는 하저리 북쪽 숲밭에 사는 마을 해설사란다. 오늘은 가슴속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하저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 마을 어르신들이 살아 온 삶의 애환이 가득한 이야기들이야.

하저리는 바닷가 백사장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란다. 옛날엔 모래사장을 ‘불’이라 불렀지. 하저리 해변의 모래는 정말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만들어 흰모래 해수욕장으로도 유명해. 요즘도 달빛이 유독 환한 밤에는 삼작 밖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은빛 파도물결이 마치 메밀꽃이 이는 것처럼 장관이야.

하저리는 해안마을이긴 하지만 예로부터 감나무가 많았어. 북쪽 숲밭으로 올라 가면 감나무 과수원이 지천이었지. 해풍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하얀 감꽃들이 몽

그림 ● 손주희





그림 ● 성애나

실뭉실 매달려 있곤 했어. 가을이 되면 골목 담장 위로 감송이들이 말갱게 익어가는 걸 볼 수 있었지. 우리 할매집 해풍 맞은 홍시는 맛이 정말 일품이란다.

동해 바닷가의 전형적인 마을이라 하저리는 농사용지가 정말 부족했어. 마을에 특히 벼농사가 없다보니 밥을 지어먹고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지. 갯 시집 온 며느리는 시어른이 귀한 밥을 먼저 드시고 남겨 놓으면

그걸로 끼니를 겨우 떼웠다고 하네. 하저리 마을로 시집오기 전까지 바다가 어찌 생겼는지도 몰랐다네. 바닷물이 짜다고 해서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짝어 먹어 보고야 바닷물이 정말 짜구나 실감했단다. 남편이 배 타러 가고 여자들은 물질을 하면서 고구마나 콩 농사를 비탈길에 일구기도 했어. 하저리는 양말조차도 구하기 힘들었어. 양말이 없어 영덕까지 걸어서 다녔다고 해. 무서운 전쟁이 났을 때는 멀리 경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했었어.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물 속에 들어가 직접 미역도 뜯고 멍게도 잡아 먹고 살았어. 해안 마을에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흔했는데 봄이 오면 들에 나가 농사를 짓듯 바다속에 풍덩 들어가 물질을 하여 직접 채취한 해산물들을 강구장에 내다 팔아서 겨우 겨우 살림을 꾸릴 수가 있었어. 해안 마을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밭작물이 너무나 귀했어. 그렇게 미역을 말리고 포장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모두가 힘든 시절 궁핍한 생활을 어렵게 이어 갔었지.

은단이라고 부른 성게, 전복, 미역, 해삼을 채집해 팔기도 하고 물질하다가 해녀들이 가오리한테 찢린 적도 부지기수였어. 천초(우뭇가사리)를 자맥질(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졌다 하는 짓)하여 읍에 가서 내다 팔기도 했지. 작은 배를 타고 좀 더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수경을 물 위에 놓고 들여다보면서 마을 해녀들이 고기를 잡기도 했어.

해녀들은 끝 모를 깊은 바다에 그렇게 몸을 잠기는 날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다녀온 듯도 했단다. 깊은 바다 속에 감춰진 것들을 하나 둘 집어 들 때는 집에 남겨둔 남매 생각에 심호흡이 더 가쁘지 않았을까.

마을 해녀들이 물질할 때 깊은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다가 숨이 턱까지 차 오르면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뿜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 그것을 '숨비소리'라고 해. 숨을 한꺼번에 내쉬지 않고 휘파람 불 듯 내쉬는 것은 기압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해녀들 숨비소리는 숨이 턱까지 차 오르는 삶의 매 순간 그렇게 숨 끈을 놓지 않고 살아온 처연한 삶의 증거나 마찬가지로야. 해가 먹구름 속으로 숨어버리고 바다색이 잿빛이 되는 날에는 파도가 바람에 뒤집어져 물질을 못했어.

'불게'라고 부르는 작고 껍질이 얇으며 가시가 부드러운 종류의 게가 이 마을에 많이 나왔었어. 찌개도 해 먹고 양념 계장을 많이 해 먹었지. 양념 계장은 간장에 마늘, 엿기름, 고추, 통깨 넣어 요리했어. 미주구리(물가자미)는 말려서 전 부쳐먹고, 조려서도 먹었지. 송진(소나무순)을 꺾어 먹고, 뽕구(풀에서 나오는 연한 거) 빨아먹었다. 나락(벼의 방언)이삭을 먹었어. 쌀이 부족하니까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 쌀을 누가 건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쌀 위에 손자국을 남기고 나갔었어.

사람들은 나물을 캐러 산으로 다녔



그림 ● 성애나

지. 달래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달래가 질겨서 많이 안 먹긴 하지만 옛날에는 된장에 넣어서 자주 먹었어. 봄에는 고사리도 뜯어서 먹었지.

하루 종일 산 위에 올라가서 고기떼 위치를 보고 알려주는 사람을 ‘오끼야’라고 불렀네. 오끼야가 물고기들의 움직임 보고 고기잡이 배에게 “알로알로”, “사로사로” 라고 외치면서 윗옷을 벗어 휘두르며 위치를 알려줬다네. 그러다 배가 돌아올 때 “휘여-”라고 외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고기를 배에서 내리다 떨어지는 것들을 대야에 주워담아 가져갔어. 물고기를 많이 못 잡은 날엔 뱃사람들에게 도둑놈들이라는 욕도 좀 들어야 했지.

제사에 물고기가 많이 올라갔었어. 제사 지내는 날이면 어느 집 떡이나 과일을 받아 먹으려고 밖에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단다.

마을 아이들은 고무줄놀이, 널뛰기, 팽파먹기 놀이를 주로 하고 놀았어. 놀이하다 별척 걸리면 꼴등에게 노래를 시켰어. 그러면 옆에서 다들 모여 노래를 들곤 했지.

그 시절에는 부모님끼리 얘기해서 서로의 얼굴을 잘 몰라도 짝만 지어주면 그냥 결혼을 했네. 골목 끝 집 할머니는 이 마을로 오는 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래서 같은 동네엔 시집을 안 보내줬다고 해서 결혼 제의가 들어와도 결혼을 한참 안했네. 할머니 삼촌들이 한 동네에 있으면 편하다고 얘기해서 그때서야 결혼하게 됐다네. 그때 신랑 직장도 없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애들 잘 커서 일 잘하고 잘 살고 있단다.

멀리서 결혼 오면 시집오는 마을 주변까지 걸어와서 그제야 가마를 타기도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힘들게 살아 온 우리 할머니들의 사연들이 너무나 많단다.

강선할머니는 올해 여든 여덟이 되셨어. 시집와서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만 남편이 돌아가셨네.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웃들이 아이는



그림 ● 최예은

시택에 두고 분가를 하라고 하셨네. 열 아홉 꽃다운 나이에 청상과부로 늙어 죽기엔 너무 가여웠던거지. 그래서 어느 날은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재워두고 한 밤중 보따리를 싸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는 순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더라. 순간 ‘하느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다. 다시 나오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 죽어도 이 아이와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보따리를 풀어놓고 강선할머니는 잠자는 아이를 안고 눈이 툭툭 붓도록 밤새 목놓아 우셨다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중선(소개)으로 상처가 된 남편분을 만났는데 아들과 같이 살게 해준다기에 재혼을 하셨어. 재혼한 뒤 아이들이 태어나자 시택의 식구들의 구박이 시작되었네. 하지만 자식을 데리고 시집 온 죄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묵묵히 살아오셨네.

올해 여든 다섯 살의 순이 할머니는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친구 사이셨어. 두 분의 사이가 좋아 순이 할매가 어릴 때 서로 사돈하자고 미리 언약을 하셨네. 하지만 순이 할매가 열두 살 되던 해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순이 할매 나이 열 일곱 살 되던 해 5촌 당숙이 쪽지 하나를 꼭 읽어 보라고 건네주고 가셨어. 그 내용을 읽어 보니 친정아버지와 시아버님이 어릴 때 사돈하자고 언약을 맺은 쪽지였네. 열 일곱살이 되자 중매가 자주 들어왔지만 순이 할매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쪽지 유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그 당시 순이 할매 남편 집안은 아주

가난했고 할매 집은 부유하여 친정어머님의 반대가 완고했었다. 그러나 열일곱 순이 할매의 고집 끝에 친정어머님은 양보하셨고 ‘내가 졌다’ 하며 시집을 보내주셨다네. 시집간 순이할매의 시어머님은 부잣집에서 시집을 왔다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고 결혼 생활이 가난했지만 남편 사이에 딸 낳고 아들 낳고 잘 살았고 그 자식들이 성공을 하여 객지에 살고 있다네.

올해 여든다섯 살 완녀 할 머니는 첫 아이 낳고 삼칠만에 동네 우물가로 가서 큰 양동이에 물을 떠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날라야 했어. 삼칠까지는 시어머님이 길러 주셨지만 삼칠 이후에는 오로지 이완녀 할매 몫이었던데. 지독히 왜소했던 완녀 할매는 그 물 무게에 이기지 못해 척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 친정에 가서 각종 민간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했어. 이후 시골 일을 안 할 수도 없어 네 번이나 다치는 일이 있었어. 그 당시 병원 갈 줄도 모르고 ‘마이신’이라는 진통제로 세월을 버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병원 가서 치료 한번 못 받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신통할 따름이라시며 한숨을 쉬셨지.

지금까지 하저마을 어르신들이 살아 온 바닷가 삶의 애환을 들어 보았어. 바닷가에서 살아 온 어르신들이 아픈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마음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 또한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통해 척박한 지역 환경, 결혼 풍속, 바닷가 음식문화를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

바다 달빛이 유난히 환한 밤이 오면 은빛 파도물결을 오래 바라 봐. 사방이 온통 메밀꽃이 이는 것처럼 흰 모래 파도가 하얗게 일어 설거야. 매서운 바람속에서도 하저리바다 달빛 아래에서는 하얀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부디 바라볼게. 그러면 이만 안녕.

하저리

인터뷰 Interview

마을장소 강구면 하저리 마을회관 인터뷰어 권효진, 이옥수

참 여 자 김금순, 김금자, 김남예, 김두리, 김두애, 김순악, 김순자, 김영순, 김옥란, 김옥자, 김춘화, 남옥란, 박갑선, 박강선, 박옥순, 방옥자, 서복순, 신섭이, 안삼례, 이난녀, 이연미, 이완여, 임청자, 함옥남

하저리 마을이야기

생활

- 옛날엔 마을에 감나무가 많았다.
-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쌀이 모자라서 많이 굶었다. 시어른이 밥을 항상 조금 드시고 남겨 놓으셨는데 그걸로 허기를 채웠다.
- 하저리로 시집오기 전까지 바다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바닷물이 짜대서 안 믿었는데 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찍어 먹어 보고야 믿었다.
- 바닷가 쪽은 양말도 얻기 힘들었다. 그래서 양말 사러 영덕까지 걸어갔다.
- 6.25 전쟁 났을 때 경주까지 피난을 갔었다.
- 날이 궂으면 물질을 못하니까 나무를 캐러 다녔다.
- 하루 종일 산 위에 올라가서 고기떼 위치를 보고 알려주는 사람을 ‘오끼야’라고 불렀다. 오끼야가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보고 고기잡이 배에게 “알로알로”, “사로사로” 라고 외치면서 뒷옷을 벗어 휘두르며 위치를 알려줬다. 그러다 배가 돌아올 때 “휘어-”라고 외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고기를 배에서 내리다 떨어지는 것들을 대야에다가 주워다가



가져갔다. 물고기를 많이 못 잡은 날엔 뱃사람들이 도둑놈들이라고 욕했다.

- 옛날엔 모래사장을 '불'이라 불렀다.
- 남편은 배 타러 가고 여자들은 물질하거나 고구마, 콩 같은 농사를 짓기도 했다.
- 제사에 물고기가 많이 올라갔으며, 제사 지내는 날이면 떡이나 과일을 받아 먹으려고 밖에 줄 서서 기다렸다.

결혼

-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끼리 얘기해서 결혼했다.
- 이 마을로 오는 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엄마가 한동네에 시집 안 보내겠다고 했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결혼 제의가 들어와도 결혼 안 했다. 근데 삼촌들이 한동네에 있으면 편하다고 얘기해서 결혼하게 됐다. 그때 신랑 직장도 없고 그래서 막막했지만, 지금은 애들 잘 커서 일 잘하고 잘살고 있다.
- 멀리서 결혼 오면 시집오는 마을 주변까지 걸어와서 그제야 가마를 타기도 했다.

농사 및 돈벌이

- 이 마을엔 농사 지을 땅이 많이 없어서 더 먹을 게 없었다.
- 미역 말려서 포장해서 돈 벌었다.
- 은단(성계를 옛날엔 은단이라고 부름), 미역, 해삼, 전복을 채집해 팔았다.
- 물질하다가 가오리한테 찢린 적도 있다.
- 천초(우뭇가사리)를 자무질(자맥질-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하여 읍에 가서 팔았다.
- 수경바리 : 작은 배 타고 수경을 물 위에 놓고 들여다보면서 고기를 잡았다.

놀이

- 고무줄놀이, 널뛰기, 땅따먹기하고 놀았다.
- 벌칙으로 꿀등은 노래하게 시켰다. 그러면 옆에서 다들 모여 노래를 듣고 있었다.

음식

- 요즘은 잘 없는데 '불게'라고 부르는 작고 껍질이 얇으며 가시가 부드러운 종류의 게가 이 마을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찌개도 해 먹고 양념 계장을 많이 해 먹었다. 양념 계장은 간장에 마늘, 엿기름, 고추, 통깨 넣어 요리했다.
- 위쪽에 달래도 많이 난다. 요즘은 달래가 질겨서 많이 안 먹긴 하지만 옛날에는 된장에 넣어서 먹었다. 봄에는 고사리를 먹었다.
- 미주구리(물가자미)는 말려서 전 부쳐먹고, 조려서도 먹었다. 송진(소나무순)을 꺾어 먹고, 뽕구(풀에서 나오는 연한 거) 빨아 먹었다. 나락(벼의 방언) 이삭을 먹었다.
- 쌀이 부족하니까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 쌀을 누가 건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쌀에 손자국을 남기고 나갔었다.

개인이야기

박강선 어르신

시집와서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모두 아이는 시댁에 두고 분가를 하라고 하셨다. 내 나이 19세 이 꽃다운 나이에 혼자 청상과부로 늙어 죽기엔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가여웠다. 그래서 어느 날은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재워두고 한밤중에 보따리 썼다. 그래서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는 순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었다. 아, 순간 '하느님이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나오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죽어도 이 아이와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보따리를 풀어놓고 자는 아이를 안고 밤새 눈이 퉁퉁 붓도록 목 놓아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신(선)으로 상처가 된 남편 분을 만났는데 아들과 같이 살게 해준다기에 재혼했다. 재혼한 뒤 아이들이 태어나자 시댁 식구들의 구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식을 데리고 시집온 죄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울음을 삼키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김금순 어르신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동갑이고 친구 사이였다. 두 분의 사이가 좋아 우리가 어릴 때 서로 사돈하자고 미리 언약을 하셨다. 하지만 내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내 나이 17살 되던데 5촌 당숙이 쪽지 하나를 꼭 읽어 보라고 건네주고 가셨다.

그 내용을 읽어 보니 친정아버지와 시아버님이 우리 어릴 때 사돈하자고 언약을 맺은 쪽지였다. 내 나이 17세가 되자 중매가 자주 들어왔지만 나는 그 아버지의 쪽지 유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남편 집안은 아주 가난했고 우리 집은 부유하여 어머니의 반대가 완고했다. 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어머니는 양보하셨고 '내가 졌다' 하며 시집을 보



내주셨다.

시어머님은 부잣집에서 시집을 왔다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다. 나의 결혼생활을 가난했지만, 아들 딸 놓고 잘살았고 그 자식들이 성공을 하여 객지에 살고 있다.

이완녀 어르신

첫 아이 낳고 삼칠만에 동네 우물가에 물을 양동이에 떠서 머리에 이고 날라야 했다. 삼칠까지는 시어머님이 길러 주셨지만, 삼칠 이후에는 내 몫이었다.

지독히 왜소했던 나는 그 물 무게에 이기지 못해 척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친정에 가서 각종 민간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이후 시골 일을 안 할 수도 없어 4번이나 더 다치는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병원 갈 줄도 모르고 '마이신'이라는 진통제로 수많은 세월을 버텼다. 지금 생각해 보니 병원 가서 치료 한번 못 받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신통할 따름이다.



달산면 | 주응리

동화

가
을
별
에
새
겨
지
는
우
정

글 조종문

그림 원황초등학교 김효빈, 남경모, 문윤수, 엄지윤, 황서현

인터뷰

주
응
2
리

인터뷰어 김만식, 원충희

가을별에 새겨지는 우정

- 조종문

저만치 떨어져 보이는 산 능선마다 온통 가을빛으로 울긋불긋 물들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장승¹⁾처럼 서 있는 은행 나뭇잎들도 눈부시게 샛노란 가을빛이 골목 여기저기에 소리 없이 나뭇나뭇 내리고 있습니다.

순복이와 정훈이는 한마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마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는 단 둘뿐이라서 등하교²⁾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순복이와 정훈이는 마을에서 학교까지 약 20분 정도 시골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등하교를 할 때마다 자동차는 어쩌다 지나갈 뿐, 대체로 조용한 시골 도로입니다. 도로 양쪽에는 계절 따라 피고 지는 키 작은 들꽃들이 있어서 순복이와 정훈이의 등하교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했습니다.

순복이와 정훈이가 다니는 학교는 전교생이 3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산골 학교랍니다.

그날도 순복이와 정훈이는 오전 수업을 마쳤지만, 순복이는 학교 운동장 모퉁이에 있는 수돗가에서 정훈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청소 당번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승:기둥 모양의 통나무나 돌 따위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 세운 것 2)등하교:등교와 하교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그림 ● 문윤수

운동장 울타리 곁에 서 있는 곱게 물든 느티나무 이파리들이 한 잎 또 한 잎씩 순복이 발밑으로 떨어져 뒹굽니다.

‘정훈이가 청소를 끝마치고 올 때가 다되었는데…….’

순복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발밑에 떨어진 느티나무 이파리 하나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복아!”

기다리던 정훈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제 오나?”

순복이는 정훈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나란히 교문 밖을 나섰습니다.

하교하는 두 아이의 뒤를 가을빛도 따라갑니다.

마을에 도착한 순복이와 정훈이는 마을 앞 은행나무 밑에서 내일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정훈이 집에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³⁾가 많으신 친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훈이 할아버지를 학식⁴⁾이 많은 ‘큰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훈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어찌다 마을에 경로잔치 같은 행사가 있는 날에는 양반 갓을 갖추고 한복을 차려입으신 후, 행사에 참석하시는 완고⁵⁾한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마을과 관계되는 일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훈이는 등하교를 할 때는 언제나 잊지 않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방문을 열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구, 우리 귀한 손주 녀석 인제 오나? 오늘도 공부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왔겠제…….”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돋보기안경 너머로 정훈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할아버지에겐 정훈이는 돌도 없이 귀한 2대 독자⁶⁾인 손주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안 식구 중에 정훈이를 무척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정훈이 마음을

3) 연세: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4) 학식: 체계적인 지식과 사물에 대한 식견 5) 완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6) 독자: 딸과 관계없이 아들이 1명인 것



그림 ● 김효빈

포근하게 다독여 주십니다.

가을별이 따사로운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집 앞에 보이는 논에서는 벌써 벼들이 고개를 숙인 채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마을 뒷산도 점점 가을빛이 깊어 갔습니다.

정훈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집 전화기로 순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순복이는 정훈이의 전화를 받자마자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정자: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든 집 8)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텃새

갔습니다. 티질 듯이 노오랗게 익어가는 은행알이 나뭇가지마다 총총히 박혀 있습니다. 순복이와 정훈이는 은행나무 곁에 있는 마을 정자⁷⁾에 앉았습니다. 때마침 정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훈아, 니 왜 나를 여기에 나오라고 했노?”

“순복이 니한테 뭐 하나 물어볼기 있어서 불렀다.”

“뭘데?”

순복이는 자기를 은행나무 밑으로 불러낸 까닭이 궁금해서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순복아, 니 우리 마을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나?”

“모르는데..., 우리 마을은 주응리 말고 또 딴 이름이라도 있나?”

“그래, 우리 마을 이름은 주응리지,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말씀은 지금의 우리 마을을 예전에는 ‘매방’ 마을이라고 불렀다 하드라.”

“우리 마을을 왜 매방이라고 불렀는지 니는 알고 있나?”

“응, 알고 있다. 말해 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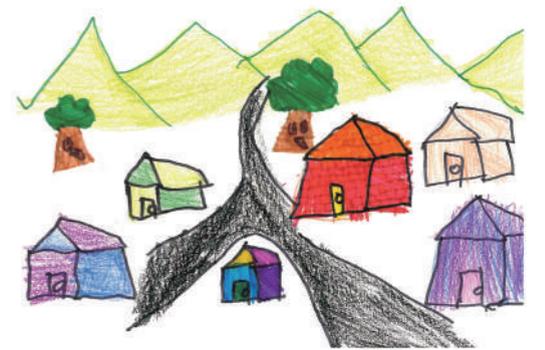
“그래.”

정훈이는 며칠 전, 할아버지에게 우리 마을을 매방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과 ‘매방 청춘가’라는 노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순복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응리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뒷산 모양이 마치 매⁸⁾와 같은 생김새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



그림 ● 황서현



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순복이는 정훈이의 말을 듣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을 매방이라고 불렀구나. 인제 알겠다. 그러든 매방 청춘가 노래는 뭔데?”

정훈이는 할아버지에게 들은 매방 청춘가 노랫말을 A4용지에 적은 것을 순복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볼펜으로 정성껏 푹푹 눌러 쓴 것입니다.

1절 : 팔각산 팔봉에 허리 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좋다) 처녀총각 노니네/
매봉산 맷돌바위 돌리고 돌리고 돌려 용치 물길 알콩달콩 아이들 노니네 //

2절 : 팔각산 팔봉에 허리 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좋다) 처녀총각 노니네/
천덕산 장군 바위 누구를 기다리나 섬섬옥수 옥계수, 님따라 흐르나 //

3절 : 칼바람 맞바람 오십구비 대서천 기어지나 돌아올제/ 포근한 품안 마을,
달 드리워진 하늘풍경/ 님 향하고 음암정 당산나무 내 입을 돌려놓네 //

4절 : 팔각산 팔봉 사이 구룡암 물줄기는 생명을 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천덕산 장군 바위는 마을의 아버지/ 섬섬옥수 옥계수는 마을의 사랑 //

5절 : 뿔매부리 매방산 맷돌바위 기운 따라 자식들 함박웃음 알콩달콩 큰 복 가득/
용지폭포 깊은 마음 구룡암 이어지는 명주실 가락 같은 매방 청춘가 //

6절 : 팔각산 팔봉에 허리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 처녀총각 노니네/ 팔각산
팔봉에 허리 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 처녀총각 노니네 //

정훈이가 전해 준 노랫말을 읽고 있는 동안, 노오란 은행잎 하나가 순복이 머리 위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은행잎은 마치 순복이의 머리핀처럼 보였습니다. 예뻐합니다.

점점 짧아지는 가을 해는 어느새 은행나무를 비스듬히 비추고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햇살 속으로 조용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고추잠자리들은 순복이와 정훈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참 동안 동구 밖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 논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벼를 한창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에서 가을 추수가 한창일 때 학교에서는 가정실습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복이와 정훈이 학교에서도 4일간 가정실습을 했습니다.

벼 수확이 끝난 마을 앞 논바닥에는 벼짚을 쌓아 놓은 모양이 마치 탑처럼 보였습니다. 가정실습도 하루 밖엔 남질 않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정훈이네 집 마당에는 타작¹⁰⁾하지 못한 콩 줄기가 가을별에 토랑토랑 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는 아침부터 점심때가 되도록 마당에서 콩 타작을 하는 어머니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데……?”

“……”

정훈이는 오후에 순복이와 함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옥천사’라는 절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왜 그러는데……? 어서 말해 봐라.”

정훈이는 며칠 전, 할아버지와 함께 옥천사에 갔었던 이후로 오늘은 순복이와 옥천사에 놀러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옥천사 절은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절입니다. 옥

^{9) 가정실습}: 지난날, 농어촌 학교에서 일손을 돕기 위해 정해 놓은 수업이 없는 기간 ^{10) 타작}: 곡식의 낱알을 줄기에서 떨어내어 거둠

천사로 가는 길은 오솔길이며 절을 둘러싸고 있는 산 모양과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주말이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절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돌아오라고 정훈이에게 당부¹¹⁾하는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훈이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자마자 순복이에게 집 전화로 얼른 연락하였습니다. 순복이와 정훈이는 마을 앞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마을 앞 은행나무는 순복이와 정훈이가 매일 등교할 때마다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훈이는 순복이에게 며칠 전 할아버지와 옥천사에 갔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순복이는 정훈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 좋아, 나도 옥천사 절에 대해 우리 할머니에게 들긴 들었지만... 잘 됐다, 오늘 한 번 가보지 뭐.”

순복이는 4학년이 된 지금까지 마을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 옥천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은근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정훈이와 함께 옥천사 절로 가기로 했습니다.

옥천사 절로 가는 길 옆에는 풀밭에 몰래 피어 있는 키 낮은 들국화와 키 큰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거리며 산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닿을 것만 같은 곳에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떡갈나무와 상수리나무 잎들도 보였습니다.

“정훈아”

“왜?”

11) 당부: 말로 강하게 부탁함 12) 연신: 잇따라 반복해서 자꾸

“정훈이 니가 오늘 옥천사로 가자고 말 잘했다. 옥천사로 가는 산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순복이는 옥천사로 가는 산길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¹²⁾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훈이도 순복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옥천사로 가자는 말을 참 잘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순복이와 정훈이는 옥천사로 가는 산 주변 경치를 둘러보면서 옥천사 절에 도착했습니다.

“정훈아, 여기가 옥천사 절 맞나?”

“그래, 맞다. 다 왔다.”

“절이 무척 아담하고 좋네!”



그림 ● 남경모

“.....”

순복이와 정훈이는 옥천사 절에 도착하자마자 절 둘레를 살펴보았습니다.

옥천사 절에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오래된 구유¹³⁾ 하나가 법당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유에는 가을 햇볕을 쬐고 있는 들국화가 예쁘게 한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정훈아, 말만 듣던 옥천사가 이렇게 작은 절인 줄 몰랐다.”

“옥천사 절은 다른 절에 비해, 시골에 있는 작은 절이긴 해도 저 앞에 보이는 단풍이 물들어 있는 산을 좀 봐라. 경치가 얼마나 좋노.....”

그때였습니다. 순복이는 들국화가 한가득 피어있는 구유를 가리키면서,

“정훈아, 이건 뭐꼬?”

순복이는 법당 옆에 있는 구유를 보고 정훈이에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정훈이도 지난번 할아버지와 옥천사에 왔을 때 구유를 가리키면서 할아버지에게 여쭙본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은 옥천사 스님이 하신 말씀을 정훈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중생¹⁴⁾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비우며 살지 않기에, 이 구유처럼 마음을 비우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곳에 갖다 두고 가을꽃인 들국화를 심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복이는 스님께서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훈이가 전해주는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따라 옥천사를 찾아온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순복이와 정훈이는 옥천사 법당 옆에 놓여 있는 구유를 보면서 가을볕이 잘 드는 곳에 나란히 앉았습

13) 구유: 가축의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14) 중생: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15) 투구: 예전에 군인이 전쟁 때 갑옷과 함께 갖추어 쓰던 쇠로 만든 모자

니다. 정훈이는 순복이에게 지난번 옥천사를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려 주기로 생각했습니다.

“순복아, 지난번 내가 이 절을 찾아왔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해줄까?”

“응, 그래 좋아. 어떤 이야긴데.....? 말해 봐라.”

순복이는 정훈이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내용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정훈아, 니 할배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정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순복이에게 찬찬히 말을 해주었습니다.

매방 마을 서쪽 산등성이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마치 장수가 투구¹⁵⁾를 쓴 것 같다고 해서 장군봉, 장군 바위라 부르고 있다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길 들었는데, 다 말해 봐라.”

순복이는 정훈이가 하는 말에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순복이의 모습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정훈아, 니 왜 일어서노?”

순복이는 정훈이가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정훈이는 순복이에게 옥천사에서 절에서 마주 보이는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옥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장군봉과 밀부골로 들어가는 어사골이 서로 어울려서 지금도 저렇게 산 경치가 아름다운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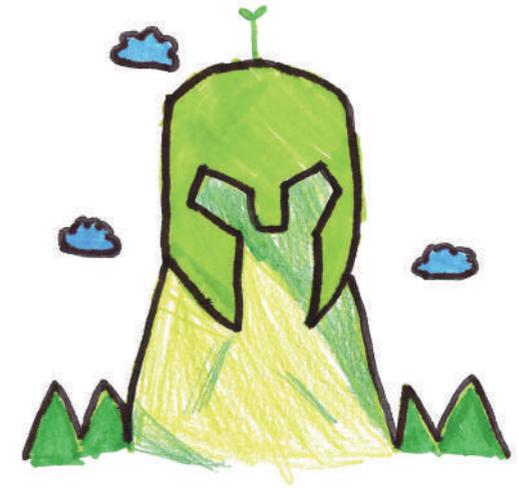


그림 ● 엄지윤

니 알고나 있었나?”

“난 잘 몰랐다, 헤헤.”

순복이는 정훈이가 말하는 옥천사 절 주변의 산이 아름다운 것을 처음 알고 난 것이 왠지 멋졌기도 해서 웃었습니다.

정훈이는 이어서 옥천사 절이 있는 산은 예로부터 산세¹⁶⁾가 웅장하고 산수¹⁷⁾의 조화¹⁸⁾가 좋아서 장수가 태어난다는 ‘장수목날’ 이라 하며, 그 옛날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 장수가 장수목날의 뛰어난 산세를 보고 장수가 태어날까 두려워서 사기¹⁹⁾로 만든 말뚝을 박아서 산목²⁰⁾을 끊었더니 땅에서 붉은 피가 솟아올라 흙이 붉어져서 ‘주토’(황토)라 했으며, 세월이 흘러 본래의 상태가 되어 마을에 위인이 나타났다는 전설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훈이는 순복이가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듯이 보여서 물었습니다.

“순복아, 니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노?”

정훈이 말이 끝나자마자 순복이는 괜히 자기 옷소매를 한 손으로 잡으면서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훈아, 니는 내가 잘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참 좋겠다.”

“아니다, 니가 생각하는 만큼 나도 많이 알고는 있지 않아.”

정훈이는 순복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고 싶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 것 뿐이다. 나도 많이 몰라.”

정훈이는 말을 하면서도 순복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순복이의 표정이 밝아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6) 산세: 산의 모양과 지세 17) 산수: 산과 물의 흐름 18) 조화: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림 19) 사기: 흙만으로 빚어 구워서 만든 것 20) 산목: 산의 중심이 되는 곳 21) 합장: 두 팔을 가슴께로 올려 두 손바닥과 열 손가락을 마주 합침

짧은 가을 해가 어느덧 서산에 한 팔 길이만큼 걸려 있었습니다.

“순복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우리 엄마가 집에 빨리 오라고 했거든.”

“응, 알았다. 그래 가자.”

순복이와 정훈이는 법당 앞에 서서 합장²¹⁾을 하며 잠시 머리를 조아린 후, 옥천사 절을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옥천사 절에서 한참을 걸어오다가 정훈이가 순복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복아, 오늘 옥천사 절에 온 거 어떤노?”

“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훈이 니하고 오늘 옥천사 절에 잘 왔다고 생각해?”

“그래? 니가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고맙다.”

“고맙긴…….”

순복이와 정훈이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있는 마을 산자락과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마을 앞 은행나무가 서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빠알간 노을빛을 안은 늦가을 하늘은 순복이와 정훈이 머리 위를 가만히 덮고 있었습니다.

● 이 이야기는 달산면 주용2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주용2리를 예전에는 ‘매방’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주용2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지금도 ‘옥천사’ 라는 조그마한 절이 있습니다. 옥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산 모양과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탓으로 여러 곳에 얽힌 전설도 많다고 합니다.

인터뷰 Interview

주응2리

마을장소 달산면 주응2리 마을회관 인터뷰어 김만식, 원충희

참 여 자 김옥화, 김윤춘, 김춘조, 문옥희, 박득이, 배옥선, 신용수, 유태용, 윤복순, 윤영섭, 윤인자, 이경선, 이옥숙, 최해순, 홍점순

주응2리마을이야기

마을 전설

- 예전에 마을을 매방이라 불렀다.
- 서쪽 산등성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장수가 투구를 쓴 거 같다고 하여 '장군봉', '장군 바위'라 불렀다.
- 옥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산세가 장군봉과 밀부골 들어간 어사골과 어울어지는 경치라 굉장히 산세가 좋다.
- 그 아래 약간 잘록한 능선을 장수목날이라 전하며 예로부터 산세가 웅장하고 산수의 조화가 되며 장수가 태어난다고 전해진다.
- 임진왜란 중 명나라 장수가 산세를 보고 비상이여겨 사기로 만든 말뚝을 박아 산목을 끊었다. 그랬더니 땅에서 붉은 피가 솟아올라 흙을 적셔서 흙이 붉어져 '주토'(황토)라하여 그 자리에 말뚝을 박아 위대한 사람이 나지 못하게 했다. 세월이 흘러 원상태가 되면 마을에 위인이 나타난다고 전해진다.
- 일본인들이 와서 나무다리를 놓고 계곡을 파버렸다. 이 다리를 장수목들이라고 한다.



- 어사교는 어사가 출동할 때 지나왔다고 해서 어사교라고 한다.

생활

- 옛날에는 수수, 선수 보리,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다.
- 담배굴(담배건조실)이 2개 있었다. 옛날에는 담배 팔면 목돈이 됐다.
- 맷돌바위라 해서 바위 위에 돌이 올려져 있는 것이 있다.
- 옛날에는 큰그랑(넛가)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 나중에는 샘그랑물(샘물)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길어 먹었다. 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계속 물을 푸니까 돌이 움푹 파였다.
- 그랑 : 개울, 큰그랑물 = 넛가, 샘그랑물 = 샘물

당제사

- '눈썹 센다'하여 자지말고 수수 만들고 보리타작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얘기가 있다.

- 당제사를 지내고 나면 백빚(백설기) 한조각 먹으려고 그 집앞에 사람들이 아이 뒀까지 받으려고 아이를 힘들게 들춰 업고 서서 받아 먹었다. 그 떡을 먹으면 안아프다는 말도 있었다.
- 콩을 볶아서 장판 밑에 놔두면 벌레가 없어진다고 해서 4군데에 그렇게 했다.

전해져오는 노래

- 매방청춘가

1절 : 팔각산 팔봉에 허리 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 (좋다) 처녀총각 노니네.

매봉산 맷돌바위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려 용치물길 알콩달콩 아이들 노니네.

2절 : 팔각산 팔봉에 허리 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 (좋다) 처녀총각 노니네.

천덕산 장군바위 누구를 기다리나 섬섬옥수 옥계수 님따라 흐르나.

3절 : 칼바람 맞바람 오십구비 대서천 기어지나 돌아올제, 포근한 품안 마을, 달길 드리

워진 하늘풍경 님 향하고 음암정 당산나무 내 님을 돌려놓네.

4절 : 팔각산 팔봉 사이 구룡암 물줄기는 생명을 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천덕산

장군바위는 마을의 아버. 섬섬옥수 옥계수는 마을의 사랑

5절 : 뒷매부리 매방산 맷돌바위 기운 따라 자식들 함박웃음 알콩달콩 큰복가득 용지폭

포 깊은 마음 구룡암 이어지는 명주실가락같은 매방청춘가

6절 : 팔각산 팔봉에 허리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 처녀총각 노니네. 팔각산팔봉에 허

리안개 돌리고 구룡암 폭포에 처녀총각 노니네.

개인이야기

이경선 어르신 이야기

- 25살에 시집왔는데 집이 시끄러워서 유산이 됐다.

- 결혼할 때 아가씨랑 둘이 장을 봤다. 결혼할 때 올림머리를 해 왔는데 머리를 풀라고 하는데 비녀가 없었다.

- 남편 집에 비녀를 살 형편이 안 됐는데 그래도 비녀를 사줬다.

- 결혼하면 나이(친구)가 따라왔었다. 그래서 아침에 친구가 비녀를 꽂아줬다.

-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 놀고 있으면 돌을 던져서 나오라고 티를 냈다. 그러면 눈치 보고 나가느라 힘들었다.

윤인자 어르신 이야기

- 강구 어포1동에서 산 넘어왔는데 “왜 여기까지왔나.” 맨날 얘기한다.

- 24살에 선보고 시집왔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른들이 가라고 해서 왔다.

- 결혼할 때 화정제로 넘어와 오금으로 오니까 가마가 있었다. 가마도 다 낡은 거였다.

- 나무로 엮어서 흙을 엮어서 만드는 걸 ‘섭다리’라고 하는데 오래된 다리를 가마 타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윤영섭 어르신

- 정유공장 딸을 좋아했는데 사진을 하나 받아서 입대를 했다. 보고 싶다는 얘기를 동기랑 했는데 촬영하자 꼬셨었다. 그래도 촬영하진 않았는데, 그 동기는 촬영하고 영창을 갔다.

- 나중에 신병이 들어왔는데 영덕 달산 이리골에서 왔다고 했다. 그래서 고향 갈 때 자기 집 들어서 안부를 전해 달라고 해서 신병집에 갔다. 그 집에 가니 예쁜 아가씨(신병의 동생)가 있었다. 막걸리 담근 거 먹고 놀았는데 자고 가라고 해서 달막재(주응의 골짜기)를 손잡고 넘고 그랬다. 그리고 3년을 휴가 때마다 찾아갔었다. 냇가에 앉혀놓고 목욕하기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 근데 제대하니까 시집을 가버리고 없었다.

- 먼 친척의 주선으로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아내에게 신경을 못



포항편 | 도천리

썼는데 어느 날 눈이 이상하대서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이 안 좋아서라고 했다.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 회사 결근했더니 해고를 당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포항에서 친구와 함께 석유 곤로(난로)를 짚어지고 여기저기 “곤로 왔습니다, 곤로사이소, 메탄올 곤로 왔습니다” 하면서 팔러 다녔다. 포항 골목골목 팔러 다니다가 ‘동동구르마(크림)’를 파는 아가씨들을 만나 같이 재밌게 팔러 다녔다. 그러다 중공업에 취직하여 한 달 다니다가 안 되겠어서 포항공고 짓는 노가다도 다녔다. 그러다 소장이 농땡이 친다고 해서 싸웠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찾아오고 그래서 도망가서 일주일을 다락에 숨어 있었다. 그길로 짐 싸서 옥산으로 이사왔다. 논 600평 세를 받아서 아내 병원비로 다 썼다.

- 딸이 설사를 심하게 해서 포항 병원을 가도 안 고쳐졌다. 다시 영덕으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가는데, 해 뜰 무렵에 가야 좋다고 해서 해 뜰 무렵에 찾아갔다. 선반을 보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다. 점쟁이가 시킨 대로 소금을 상에 차려놓고 배추에 3번 뿌렸더니 다음날 아이 설사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동화

숲 이 된
사 람 들

글 최정연
그림 원황초등학교 김가운, 감동규, 김서우, 김하람

인터뷰

도 천 리

인터뷰어 박병준, 전미하

숲이 된 사람들

- 최정연

안녕, 나는 숲이야. 450여 년을 살아왔으니 뿌리 튼튼한 고목이 되었지. 오늘도 나는 영덕 남정면의 도천리 마을을 지키는 울타리로 살아가고 있어. 이곳에 나를 만들어 준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곳에서 나고 자라 오랫동안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내기란 참으로 의로운 일이었지. 나는 이 마을의 성장과 안식을 꿈꾸며 그저 묵묵히 살아왔어.

가만히 귀 기울여 봐. 낮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지. 이런 날은 내 마음도 고요해져.

내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줄까 해. 내가 숲으로 태어난 이야기이며 몇 백 년 전의 우리 마을의 이야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야.

사람들은 이 도천리 마을을 지켜주라는 하늘의 신성한 기운을 타고 내가 태어났다고들 해. 마을과의 믿음으로 나는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세월 풍파를 겪으며 아픈 만큼 성숙해져 왔어.

도천이라는 이름은 삼국시대 이후 냇물이 흐르는 마을이라 하여 길내 혹은 질내로 불리다가 한자명으로 '도천'이 되었다. 한때는 숲의 규모가 엄청 넓어 이 울타리 안 사람들은 영덕 제일의 부자마을이었다고 해. 그런데 화재로 그 큰 규모가 다 줄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워.

도천마을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도천숲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제당을 세웠

다고 했어. 그 후부터 나는 정말로 신성한 나무신이 되어 살아왔지. 제당을 지키는 내 몸은 점점 그늘이 넓어지고 온 가슴으로 마을을 품어내기에 충분할 정도의 숲이 되었어.

내가 만들어지기 전 오랜 옛날 사람이 살던 마을 앞에는 머리가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그 산꼭대기 모양이 뱀 머리 모양을 닮아 마을을 위협하듯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앞산의 뱀 머리 형상이 마을을 위협하는 모양을 보완하기 위해 나를 만들어 숲으로 오랫동안 키웠다고 해. 숲을 조



그림 ● 김동규

성할 때 이 숲의 나무를 베면 해롭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 그루 나무로 심어져 이젠 큰 숲을 이룬 거지. 나는 내가 도천마을의 숲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 겸 임진왜란 시기에 나무들을 심었다고 하는데 그중 오래된 나무의 수령이 450년 된 나이 많은 나무들이라 해. 숲 안에 마을 제당이 있어 그 주위에는 나무들을 베어내지도 못하고 전혀 손을 대지도 못하였다고 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신성시 여겨 숲 가까이 사람 걸음조차 못 오게 막았다고 해.

한때 우리 마을에는 전쟁이 나기 전 채명신이라는 장군이 왔었어. 마을에서는 밥을 해서 그 군인들을 다 챙겨 먹였었대. 마을 사람들이 중요 지리를 잘 아니까 장군이 중요 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군 작전을 펼치던 곳이야. 마을 사람들은 부관과 함께 얘기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내 숲 그늘로 와서 휴식을 취하곤

했었지. 도천 마을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면 조용했다가 군인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인민군들이 다시 왔었어.

마을과 멀지 않은 바닷가에서는 무서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 사람들은 그것을 장사리 전투라고 해. 각 마을에서 참여한 어린 학도병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었어. 장사리 전투는 장사리상륙작전으로 큰 교훈을 남겨주어 장사리에서 가까운 도천리 사람들도 오래 잊히지 않는 마을의 역사야.

그 시절 마을마다 어린 자식들을 학도병에 보

내어 목숨을 잃은 집이 많았어. 자식을 찾아 사람들이 불을 밝힐 것이 없어서 맥주병에 속해(솜)와 기름을 넣어 들고 찾아 다녔었지. 너무 무섭고 불안했던 시절이었어.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왔듯이 나는 그 시대를 모두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아왔어.

무서운 전쟁이 지나간 도천리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궁금하지 않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참으로 처절한 시대를 살아 온 우리 어르신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야.

전쟁이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왔어.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있었어. 집집마다 당장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 너무 배가 고프는 시절이었지.

큰 전쟁을 치룬 뒤라 온 산과 들관이 황폐해져 마을에는 끼니거리가 없었어. 몸을 데울 땀감조차 없었어. 정지(부엌) 아궁이에 솔 방구리(솔방울), 솔잎들을 굵어 넣어서 불을 땀지. 여름이 되면 바짝 말려두었다가 추워지면 불을 지폈어. 겨울엔 깨비(가지)를 넣어 추위를 이겨내야 했었어. 너무 가난해서 똥구리(장작)도 잘라 강구장에 나가 팔던 사람들도 있었어. 지게자리(나무 파는 자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다투어 강구장에 나가 자릴 잡아야 했다. 벌거벗은 산에서 나무를 못하게 해서 장에 팔러 나갔다가 산감(관리자)들에게 모두 빼앗기기도 했었대.

그 시절 마을에는 전기도 없었어. 집집마다 돼지비계 기름을 이용하여 깜깜한 밤을 밝히고 호롱불 켜 놓고 모든 일을 했지.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암울한 시대였어.

학교 없이 아이들은 경로당에서 공부를 했어. 그러나 아이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었고 매일 일을 해야 했어. 산에서 매일 일하기 싫어 부모 모르게 친구가 있는 먼 삼척으로 뺨방(가출)도 했었지. 집을 나간 아이들은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했었대. 객지에 나가도 고생이라 1년도 못가 고향마을 도천으로 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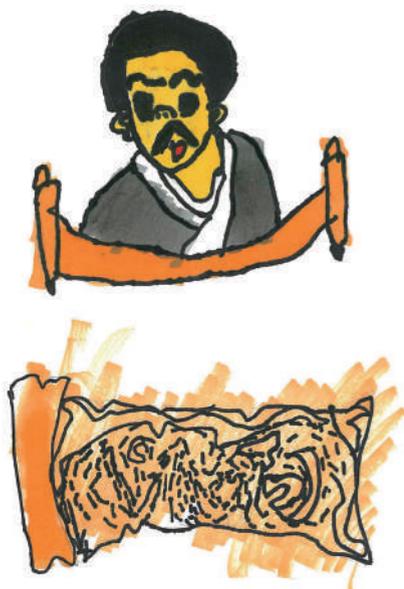


그림 • 김가은

왔지. 혼내기는커녕 마을어르신들이 도천마을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무척 좋아했었다.

그렇게 우리 마을은 조금씩 전쟁 속에서도 마을의 모습을 되찾으려 애를 쓰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 집집마다 가난하고 돈은 없어도 교육열이 높은 동네였기에 멀리 포항에 아이들 방을 얻어서 어렵게 공부를 시킨 집들도 더러 있었어. 도천리 마을에는 옛날부터 양반집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그 시절 여자아이는 공부도 안 시키고 밖에 나가는 자유를 누리질 못했어. 바깥 나들이를 못하는 여자아이들은 집 안에서 수를 놓으며 지냈어. 재료 살 돈이 없어서 부모님 몰래 집에서 쌀을 훔쳐 팔아서 재료를 사곤 했다네.

도천리마을은 예전에는 반 이상이 이씨 성을 가진 집성촌이었지만 요즘에는 여러 성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해. 집성촌이라 그랬는지 남녀가 결혼할 때는 멀리 사는 다



그림 ● 김서우

른 집안끼리 주로 혼사를 치뤘대. 동성동본끼리는 절대 혼사를 치르질 못했지.

결혼할 때는 이 마을까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와서 가마를 타고 들어온 어르신도 있다고 해. 가마를 타고 오다가 가마꾼들이 무겁다고 내리라 해서 걸어오다가 거의 다 와서 탄 사람도 있지.

결혼할 때 식순에서 신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등 결혼식을 도와주는 사람을 ‘대반’이라 불렀어. 대반을 고르는 일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신중했었다. 자식도 잘 낳고 부부간에 사이도 좋은 사람이어야 했지. 신부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말을 못 하니까 대반에게 전달해서 해결하는 등 다양하게 혼례를 도와주는 담당자였어.

그 시절에는 너무 가난해서 숟가락 2개만 가지고 와서 살림을 차렸거나 숟가락 살 돈이 없어서 숟가락을 큰집에 가서 얻어 와서 살림을 차린 사람도 있었다. 남녀가 사랑을 하려면 보리밭으로 갔다고 하는 재미난 말도 있어.

일제강점기 때 못(저수지)을 만들었는데 마을에 못을 만들기 전에는 쌀이 귀해 주로 조밥을 지어 먹었어. 주로 복상(복숭아)농사, 위(참외)를 지어 살기도 했는데 영감들이 논밭 일할 때 여자들은 새참을 가져다 줬었어. 맨다리로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붙어 힘들었어. 나중에는 스타킹 신고 들어갔다고 해.

먹고 살기 위해 어느 집에서는 술을 빚기도 했었는데 옛날엔 술 빚는 일조차 단속했었지. 산감(감독관)들이 들어와서 정지(부역)에 들어가 술 단지 어떻게 했냐고 들이닥치곤 했다. 심지어 누룩도 못 하게 했었어.

도천리는 경상도 지방 사투리가 아직도 심한데 다양한 사투리들이 지금도 마을 어른들끼리는 통용되기도 해. 예를 들면 정지는 부역, 당식은 반진고리, 뜨에는 뚜껑, 지차는 들째, 깨비는 장작이라는 사투리야. 그리고 기출을 뺨뺨, 숨을 속해, 화장실을 통시뒀간, 군량미를 알랑미라고 옛날에는 그리 불렀대.



그림 ● 김하람

마을에는 제사를 주도하는 재관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선정되면 1년간 다른 대소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대. 장을 보러 가서 도관이 물건을 잡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했대네. 지금까지도 청년회 회장, 새마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고 있어. 이 마을은 옛날도 지금도 여자들은 제사에 필요한 장을 보러 가지 못한 대. 요즘도 여자들이 마을 제사에 참여 안 하는 게 풍습인 마을이 많이 남아 있어.

큰 숲 울타리를 부드럽게 타 넘고 동쪽 바람이 불어오네. 나는 내 몸을 저 바람에 흔들흔들 말할 때 기분이 참 좋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숲 그늘에 들어와서 조용히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해져. 숲에서 만들어진 오랜 이야기

들, 도천마을 숲으로 살아가는 푸른 이야기들을 언젠가 다시 또 들려줄 날이 오겠지. 그때는 내 눈이 더 깊어지고 맑아져 넓은 그늘로 있을게.

그옥이 나를 바라보며 안녕 숲, 이라고 먼저 나를 불러봐 줄래? 그럼 내가 바람 속에서 흔들흔들 온몸으로 껴안아 줄게.

● 이 이야기는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마을 어른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도천리마을을 지켜 온 수호신 도천숲의 역사가 실존하는 내용과 전쟁에 대한 기억, 과거 생활 모습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또한 도천리라는 마을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 속에 도천숲의 시대정신을 통해 마을민들의 애향 의식과 마을공동체, 산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천리

인터뷰 Interview

마을장소 남정면 도천리 마을회관 · 도천숲 인터뷰어 박병준, 전미학

참 여 자 권우와, 박영고, 신수형, 이노미, 이달형, 이선옥, 이순일, 이영희, 이이형, 이정애, 이충자, 전구분, 전대복, 정노미, 한갑익

도천리 마을이야기

도천숲

- 앞산의 뱀머리 형상이 마을을 위협하는 풍수적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숲을 만들었다고 한다. 숲을 조성할 때 이 숲의 나무를 베면 해롭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 도천숲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 겸 임진왜란 시기에 나무들을 심었다고 한다. 그중 오래된 나무의 수령이 450년 된 나이 많은 나무도 있다.
- 도천 숲 내에 마을 제당이 있어 그 주위에는 나무들을 베어내지도 못하고 전혀 손을 대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신성시 여겨 숲 가까이도 못 오게 했다.

6.25전쟁 전

- 채명신 장군이 대위 때 와서 마을에서 밥을 해서 군인들 먹였었다. 마을 사람들이 근방 지리를 잘 아니까 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작전을 짰다.
- 부관과 함께 얘기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놀기도 했다고 한다.
-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면 조용했다. 군인들이 떠나고 나면 인민군들이 왔다.



- 불을 밝힐 것이 없어서 맥주병에 속해(솜)과 기름을 넣어 들고 다녔다.

생활

- 17살에 일하기 싫어서 어르신들 모르게 친구가 있는 삼척으로 뺨방(가출)했었다.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했다. 1년도 못가 돌아왔더니 혼내기는커녕 어르신들이 돌아왔다고 좋아했다.
- 처가하고 통시(화장실)은 멀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 화목(땃갸)이 없어서 난로에 솔방구리(솔방울), 갈비(솔잎) 넣어서 불을 땀다. 여름이 되면 말렸다가 땀다. 겨울엔 깨비(가지)를 넣었다.
- 똥구리(장작) 산나무 잘라 강구장에서 팔았다.
- 지겟자리(나무 파는 자리)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못을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는데, 마을에 못을 만들기 전에는 쌀이 귀해 주로 조를 먹었다.
- 돼지비계를 이용하여 밤을 밝혔다.
-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 없이 경로당에서 공부했다.
- 복숭아를 복상, 참외를 위라고 불렀다.
- 돈은 없어도 교육열이 높은 동네였다. 그래서 포항에 아이들 방 얻어서 공부시켰다.
- 영감들이 밭일할 때 새참을 가져다 줬었다.
- 산에서 나무 못하게 해서 장에 팔러 나갔다가 산감(관리자)들에게 뺨기기도 했다.
- 옛날엔 술도 단속했었다. 산감들이 들어와서 정지(부엌)에 들어가 술 단지 어떻게 했냐고 들이닥치곤 했다. 심지어 누룩도 못 하게 했다.
- 숟가락 2개만 가지고 와서 살림을 차렸다. 숟가락 살 돈이 없어서 큰집에 가서 얻어 왔었다.
- 수 놓는 거 재료 살 돈이 없어서 부모님 몰래 집에서 쌀을 훔쳐 팔아서 샀다.
- 맨다리로 눈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붙어 힘들었다. 나중에는 스타킹 신고 들어갔다.
- 호롱불 켜놓고 밭일 다 했다.
- 이 마을에 양반집이 많이 있었다.
- 옛날에는 여자는 학교도 안 보내고 밖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다.
- 남녀가 사랑을 하려면 보리밭으로 갔다고 한다.
- 예전에는 80% 이상이 이씨성을 가진 집성촌이었지만 요즘에는 여러 성들이 함께 살고 있다.

지방사투리

정지(부엌), 당식이(반지고래), 뜨예(뚜껑), 지차(들째), 깨비(장작), 뺨방(가출), 속해(솜), 통시뒗간(화장질), 알랑미(군량미)



이라 불렀다. 대반을 고르는 일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신중했다. 자식도 잘 낳고 부부간에 사이도 좋은 사람이어야 했다. 신부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말을 못 하니까 대반에게 전달해서 해결하는 등 다양하게 도와줬다.

제사

- 제사를 주도하는 재관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선정되면 1년간 대소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 장을 보러 가서 도관이 물건을 잡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했다.
- 지금까지도 청년회 회장, 새마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간다. 이 마을은 옛날도 지금도 여자들은 제사에 필요한 장을 보러 가지 못한다.

결혼

- 결혼할 때 이 마을까지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거의 다 와서 가마를 타고 들어온 어르신도 있다.
- 가마를 타고 오다가 가마꾼들이 무겁다고 내리라 해서 걸어오다가 거의 다 와서 탄 사람도 있다.
- 결혼할 때 식순, 신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는 등 결혼식을 도와주는 사람을 '대반'

영덕옛이야기모음집 <동고동락> vol.2

옛이야기 샘에서 핀 꽃

영덕 옛이야기와 어른신들의 이야기

인터뷰 강신기, 권효진, 김만식, 박병준, 신문기, 오정민, 원충희,

이옥수, 이옥순, 이정희, 전미학, 정봉연, 최병인

글 시골길따라(박승렬, 신현량, 이영숙, 조종문, 최정연)

그림 강구초등학교, 원황초등학교, 지품초등학교, 축산항초등학교 학생들

인터뷰어 특강 아올리협동조합 박성익

편집·디자인·제작 소소밀밀

도움주신 분들 영덕 주민여행사 맑음, 9개 읍·면 사무소, 각 마을 이장님, 영덕군 관계자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진흥원 / 영덕문화관광재단

발행처 (재)영덕문화관광재단 |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3 생활문화 확산 지원 <모두의 생활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및 지역문화진흥원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